



12

1989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9. 12호

(루게 506)



## ◆◆◆◆◆◆◆◆◆◆ 차 례 ◆◆◆◆◆◆◆◆◆◆

불멸의 화폭 .....	4
창성 .....	4
삶의 봄 .....	5
정의로운 국가건설 찬가 .....	6
우리 언제나 그이와 함께 .....	6
모비론습 .....	7
사랑으로 꽃피는 나라 .....	7
100 프로 계승 .....	8
백두산의 리정표 .....	9
<b>김정일</b> 화 .....	10
밀영에 어리는 마음 .....	11
달아 달아 처량하게 밝은 저 달아 .....	12
꽃분이의 비통한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파고든 명가사 .....	12
인민의 기쁨을 안으시고 .....	14
회령고향집 .....	14
어머님 우러러 피운 꽃 .....	15
시인의 고백 .....	16
어머님께서 주신것은 .....	17
위훈의 년대 찬란히 빛나는 80 년대 .....	18
가을 .....	24
80 년대여, 영원히 너를 잊지 않으리 .....	25
빛나는 년대와 더불어 .....	27
렬사의 후손 .....	30

우리의 생명 .....	38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충실성과 우리 문학 .....	39
내 심장우에 당원증이 있다 .....	42
기발에 대한 시 .....	43
력서의 마지막장을 번지며 .....	45
혁명가극전통의 창작실천적재부의 내용 .....	46
량심 .....	49
우리가 사는곳 .....	50
80년대 청춘들에게 .....	51
새들은 노래한다 .....	52
진달래 피는 그 봄날에 .....	54
은혜로운 조국의 품속에 안겨 30년 .....	55
내가 택한 길 .....	57
아버지의 마음 .....	58
심장은 말한다 .....	66
력사의 한페이지 .....	67
통일각의 6일간 .....	70
80년대와 통일문학에 대한 소감 .....	71
호박의 노래 .....	73
조국은 하나 (외 1 편) .....	74
지구의를 청소하다가 .....	74
어머니의 목소리 .....	75
저탄장에서 .....	75
붉은기 .....	76
표창 (외 2 편) .....	76
량심에 묻노니 .....	77
어머니 .....	77
청춘들의 주소 .....	78
소녀에게 .....	79
잘 가라, 승리의 해여 .....	80

# 불멸의 화폭

정영호

자나깨나 손꼽아 그려온  
인민의 꿈이  
인민의 진정이  
순천벌이 넘치도록 뿔어올랐는가  
조업의 꽃보라 하늘 가득 터치며

알뜰히 다듬어세운 휴양각이런듯  
눈에 부신 희디흰 벽체들  
하늘 한끝에서 휘어져내렸나  
나래돋힌 무지개다리  
선남 선녀들이 내리는구나

하늘가 은빛탑을 안고돌며  
눈뿌리 아득히 뻗어간 배관마다  
인민의 기쁨이 소리치며 흘러가라  
끝없이 웨치고 웨쳐라  
불물을 끓이는 로마다  
누를길 없는 이 감격 이 환희로움

눈길을 땔수 없구나  
세월의 안개자락 홀연히 벗어버리고  
한폭의 그림이 돌아났는가  
이 벌이 비좁도록  
저 하늘이 비좁도록

이 가슴을 치고치누나

우리 수령님 걸으신  
자옥자옥마다 솟아난  
사랑의 불물이 끓어번지는 화폭  
인민의 기쁨이 웃는 화폭  
인민의 행복이 층층 얹혀진 화폭

멋이로다 불수록  
멋이로다 녀을 앗는 황홀경  
세월의 모진 눈비에 도  
지워짐 모르고  
갈수록 생생히 빛을 뿌리며 살아오르는  
참으로 놀라운 신비경

한평생 인민위해 바쳐오시는  
우리 수령님  
돌우에도 꽃을 피워  
인민의 행복  
억만년 꽃피워줄 생명선  
비날론공장을 일떠세워주셨으니

아, 어버이 우리 수령님은  
인민이 기원해온 숙망의 빛을 드시여  
온 나라에 웃음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미래를 줄  
위대한 사랑의 화폭  
세월우에 영원할 불멸의 화폭을  
여기 순천벌에 창조해주셨구나

## 창성

김휘조

네 어떤고장이여서  
그러이도 내 마음 끌었더냐  
노래에  
소문에 듣던 창성  
걸음걸음 생각깊어져라

언제더냐  
풀잎에 가시덤불에  
이슬비는 내려도  
멀리 사양공들을 찾으시여

방목장 풀판을 잡아주신 수령님  
함께 기념사진도 찍어주신 그날은

산비탈 돌썩발에  
이랑을 두지느라  
터갈린 손들을 잡아주시며  
하늘아래 첫동네  
여기서도 잘살수 있다고  
손수 고추모를 헤아려주신 밭이랑은 어디

황금산 높은 봉아  
푸른 숲 흔들어 너도 이야기하누나  
머루 다래 산과실 해마다 무르익는  
예가 바로 《황금산》 《보물산》이라고  
식료공장도  
덩실하니 짓자시던 그 사랑  
영주천 길고긴 맑은 흐름아  
너도 다정한 물소리에 담았구나

아, 수수천년 세월이  
버리고갔던 보물을  
안아올리신 수령님  
한숨속에 빛을 잃었던  
이 나라 산간지대의 력사우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으시고  
산간의 본보기로 꾸려주신 고장이여

이것이 바로  
이 나라 산간마을이 나갈길이라고  
온 나라를 불러  
련석회의를 마련해주신 고장이여

오늘은 해종일 해빛이 웃는  
저 직물공장 직기마다에선  
넘치는 기쁨 함박꽃 무늬에 피워  
필필이 쏟아내는 비단필  
다충주랙 늘어선 저 읍거리

철죽꽃도 스러져가는 어느해 늦은 봄날  
한 전사의 령전을 찾아주신 수령님  
봄은 갔다가는 다시 오지만  
한번 떠나간 전사는 다시 올줄 모른다고  
이름 불러주시며  
잔디 쓸어주시며  
그날에 하시던 뜨거운 음성  
아, 젖어계시더니

여기 다들 모였구나  
대성산 언덕에  
승엄한 정적속에 대렬을 세워놓고  
장군님을 영접하던 그날의 모습인가  
피어린 언덕 넘어 싸움의 먼길 떠나던  
유격대지휘관도 여기 있어라

회관무대에선 농장원들 흥겨운 노래소리

행복이 끝없으니  
노래도 끝없구나  
값없이 묻어두었던 꿈을 안고  
창성이여, 조국의 한복판에  
네가 솟아있구나

어찌 창성뿐이라  
이 나라 산간마을 어디나  
너를 닮아  
가도가도 도시부럽지 않은 그 모습을  
내 여기서 다 보나니

창성이여  
수령님께서 그날  
너의 풀판을 잡아주신 그 방목장은  
온 나라에 보낼 양무리를 다 키우고  
농민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그날  
그이께선 벌써 온 나라 산간사람들을  
행복의 넓은 품에 다 안아주셨구나

아, 창성  
온 조국이 공산주의로 달려가는 지름길에  
크나큰 디딤돌로 높이 솟아있는  
창성, 창성이여

## 삶의 봄

### 최상희

여기에선 아버지를 한번 못본 유복너도  
오열을 터뜨리며 아버지 얼굴 익히고  
피터지는 가슴안고 살붙이들을 다 잃은  
렬사의 어머니는 정에 겨운 자식들과  
뜨거운 상봉에 목메이거니

아, 산과 들에 오는 봄은 왔다가는 가건만  
반세기 넘는 오늘날에도 늘 잊지 못하시며  
전사들의 이름을 자주 불러보시는  
수령님의 사랑은 가지 않는 삶의 봄

그 삶의 봄빛 안고  
다 돌아오는구나  
산천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세월은 흘러가도 늙지 않는 삶으로

# 정의로운 국가건설 찬가

시모니시 후비오

김일성 주석 빛나는 령도에술로  
인민을 묶어세우시고  
비길데 없는 슬기와 고매한 인품으로  
락원을 펼쳐놓으시였어라  
나라는 수십성상

룡성번영 노래하나니  
부정의를 쓸어버린 기쁨의 종소리  
누리에 은은히 울려퍼져라  
  
(필자는 일본 돗토리현 사카이미나토시의회  
의원임)

# 우리 언제나 그이와 함께

룸푸안쏘니 베나조

우리 언제나 그이와 함께 있네  
그이는 청년들의 향도의 별  
영명하신 지도자 김정일 동지  
우리 언제나 그이를 따르네

압박받는 인민들  
투쟁의 한대오에서  
그이와 운명을 같이하네

지구의 한끝에 있는 우리 청년들  
그이와 함께 있네  
그이 빛나는 모범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나니

우리 그이께 칭송의 노래  
기쁨의 노래 드리네

우리 언제나 그이와 함께 있네  
앞길 밝히는 태양  
어디에나 빛을 뿌리는 향도의 별  
그이와 함께 있네

우리 영원히 그이를 따르리  
조국을 번영으로 이끌기 위해  
사회주의를 일떠세우기 위해

지난날에도 오늘도 앞날에도  
우리 언제나 그이를 따르고 따르리  
압박받는 인민들의 향도의 그 별을

(필자는 자이르 《인류의 태양》방송청취소조  
성권임)

# 모비론숨

한정규

세상에 가벼운게  
숨이라더니  
여기 출하장에선  
기증기로 숨을 실소

오, 모비론숨  
차판에 실리면 무죄용수가 움썰하는  
정녕 저 숨통구리의 무게를  
무엇으로 다 헤아리겠소

우리 인민의 요람  
더 따스하라고  
우리 수령님 꽃피주신  
모비론 이불숨

저 숨엔  
못잊을 마안산  
그 한장의 담요로부터  
우리 가슴 덥혀주시는 따사름 다 스며있소

다 스며있소  
집집의 이불장을 열어보시며  
거리와 마을을 찾으시던 우리 수령님  
그날 그길에 내린 눈비며 밤이슬...

첫 모비론숨을 손에 드신 그날  
이제는 소원이 풀렸다고  
그리도 기뻐하시던  
수령님의 그 밝으신 미소도

숨이 그리워  
내리는 눈송이를 숨이 되어달라며  
겨울밤을 떨던 인민이기에  
이런 좋은 숨이불을 해주고싶었다시던 그날

수령님 주무셨던  
오가자의 농가집 그 목침과  
숙영지 천막속의 락엽이 어려와  
우리의 두볼을 적시던 뜨거움도 다 젖어있소

이 세상 그 무엇으로써도  
채일수도  
가늠할수도 없는  
수령님의 위대한 은정의 무게!

아, 세상에 가벼운게 숨이라지만  
우리의 모비론숨 고마운 숨은  
오늘도 무겁게 차판에 실리오  
오늘도 무겁게 이 가슴에 실리오

가사

## 사랑으로 꽃피는 나라

김병두

강물도 호수되어 그 사랑에 출렁이고  
산들도 황금산 그 손길에 열매맺네  
이 세상 모든 행복 우리에게 주시려  
친애하는 그이께서 강산을 가꾸시네

푸른 꿈 푸른 희망 가슴마다 안겨주고  
걸음걸음 손잡아 영웅으로 키워주네

하늘처럼 넓은 품 봄빛처럼 따사로워  
인민들은 그품속에 행복을 누려가네

사랑으로 시작되고 사랑으로 끝이 없어  
받들고 따르는 마음도 끝이 없네  
친애하는 지도자 그이께서 계시여  
하늘땅에 사랑넘친 행복한 내 나라

## 100 프로 계승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한 녀성항일혁명투사와 함께 량강도안의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보시던 1968년 7월 어느날이었다.

이날 그이께서는 압록강의 흐름을 거슬러올라 보천보혁명전적지를 돌아보신후 이어 삼지연으로 가시였다.

설레이는 밀림속에 아득하게 펼쳐진 삼지연못가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깊은 감회에 잠기시여 한동안 못가를 천천히 거니시였다.

《삼지연은 언제 봐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또다시 삼지연을 더욱더 바라보시다가 녀성투사에게 삼지연에 오니 감상이 어떤가고 물으시였다.

녀성투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올려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와 함께 항일혁명투사들의 송고한 냇이 깃들어있는 유서깊은 못가를 거닐게 되니 감회도 새로웠고 한편으로는 이 력사적인곳에 표식비 하나 세워놓은것이 없으니 마음허전함도 금할수 없었다.

그는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이야기하고나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이곳에 표식비라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긍정해주시며 못가로 걸음을 옮기시던 그이께서는 우리는 앞으로 여기에 표식비가 아니라 웅장한 대기념비를 세워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할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지난날 나쁜놈들이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거세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면서 이 유서깊은곳에 혁명전적지 하나 바로 꾸러놓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혁명전통은 혁명의 배신자들에 의하여 절대로 통락되지 말아야 하며 오직 대를 이어가면서 순결하게 고수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수령님께서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100프로 계승하고 100프로 실현하여 수령님께서 념원하시는대로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것입니다.

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하여 목숨바쳐 싸우다가 오늘을 보지 못하고 먼저 간 수많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간절히 바란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혁명전통 100프로 계승, 100프로 실현!

그이의 말씀을 속으로 외우며 녀성투사는 복받

쳐오르는 감격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그 말씀속에는 항일혁명선렬들이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념원이 그대로 담겨져있었고 그 념원이 꽃피날 찬란한 래일이 굳게 약속되어있었던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못가에서 다지신 굳은 결심을 한시바삐 실현해나가실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기 위하여 사색의 낮과 밤을 이어가시였다.

그러던 어느날 녀성투사는 밤이 퍼그나 깊어 그이께서 계시는 방으로 찾아갔다.

매일 200여리의 먼길을 다녀오시는 그이께서 밤은 또 밤대로 지새우시니 그이의 건강이 몹시 걱정되어서였다.

그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서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어머니, 또 오셨구만요. 인차 자려던 참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이왕 오셨으니 한가지 물겠다고 하시며 아동단원들이 하루에 몇리나 걸었는가고 물으시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이야기가 나오자 녀성투사는 휴식하실것을 권하려던 생각을 까맣게 잊고 그이의 말씀에 이끌려들어갔다.

그는 아동단원들은 아무리 춥고 배고파도 하루에 산길을 60리는 실히 걸어다녔다고 말씀올렸다.

그러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하루에 60리라...》라고 조용히 외우시더니 책상우에 퍼놓은 커다란 종이우에 선을 그으시고 무엇을 적어넣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무슨 일로 밤을 지새우시는가 알고싶어 책상곁으로 다가가 그것을 들여다보던 녀성투사는 저도 모르게 두손을 가슴우에 모아잡았다.

그것은 우리 나라 전국각지의 혁명사적지와 혁명전적지들에 빨간색과 파란색갈로 여러가지 부호들이 가득 표시되어있는 지도였기때문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감동에 젖어있는 녀성투사에게 이 빨간색갈로 표시된 부분들은 모두 새롭게 꾸려야 할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만경대로부터 봉화리, 백두산으로부터 삼지연과 청봉 그리고 보천보, 압록강의 흐름을 따라 포평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에 가나 위대한수령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어려있고 선렬들의 뜨거운 숨결이 깃들어있습니다.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는 말이있



지만 사람들은 여기에 한번 와서 보기만 해도 큰 감동을 받고 교양을 받을것입니다.

그러니 이 유서깊은 사적지들에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더 정중하게 모시고 사적물들을 원상대로 보존하면서 사적비도 세우고 기념탑도 만들며 조각군상들도 앉힌다면 이 일대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업적을 역사적 사실 그대로 생동하게보여주는 혁명전통교양의 훌륭한 학교로 될것입니다.

세대는 바뀌어도 백두밀림에서 시작된 조선혁명의 행군길은 계속될것입니다.

(삼지연못가에 거연히 서시여 혁명앞에, 혁명선렬들앞에 굳게 다짐하시던 그 엄숙한 맹세가 벌써 현실로 꽃피어나는것이 아닌가.)

너성투사의 가슴은 또다시 뭉클하였다.

참으로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100프로 계승, 100프로 실현해나가시려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구상이 담겨진 찬란한 설계도였다.

그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 숭고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었다.

그리하여 왕재산과 보천보, 포평을 비롯한 온 나라의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어나갈 기념비들이 일떠섰고 혁명의 성지 삼지연에는 우리 나라 혁명사적지건설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웅대한 대기념비가 일떠섰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와 함께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사적지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혁명사적지 답사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오늘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찾는 답사행군대오는 끝없이 물결쳐가고있다. 그 대오속에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몸소 펼쳐주신 《배움의 천리길》과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로정을 따라 힘차게 행군하는 청소년학생들도 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100프로 계승하고 100프로 실현해나가시려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이 현실로 꽃피어나고있는 자랑스런 모습이 다.

## 백두산의 리정표

김종백

백두다리 지나서 조금 오르니  
리정표 말뚝 하나 다가서네  
《백두산-4k》

여기서는 가깝구나 백두의 령봉  
아들아 어서 올라오라고  
초원의 다정한 언덕처럼 키를 낮춘듯

먼 천리길 걸어서 예 왔건만  
온몸엔 더더욱 새힘이 솟네  
길을 떠나던 첫 순간처럼

당치 않구나  
길은 마지막 구간이 어렵다던 말  
가슴울렁이는 환희와 감격  
거세찬 나래우에 이 마음 없어주는  
백두산의 마지막 리정표여!

내 잠시 걸음 멈추거니

가쁜숨 돌리려함이 아니라네  
저 리정표의 말뚝  
그 어데라도 안고가고싶어

내 걸을 생활의 길은 아직 멀어  
아찔한 벼랑 천길나락이 다가선다면  
스스로 저 리정표앞에 세워놓으리  
동경과 희망의 산정 가까이 바라보며  
청춘의 열정으로 가슴 불태우고싶어

일생은 황혼기에 들어서고  
생의 종점이 멀지 않을 때  
다시 또 저 리정표앞에 서리  
만년청춘을 빛내이는 장군봉  
영생의 푸른 천지 앞에 있도록

바라노라 바라노라  
내 가는 앞길에  
언제나 백두의 령봉이 솟아있기를...

련시

## 김정일화

김송남

### 해가 솟는듯

꽃송이 붉고붉어  
금시 타오를듯  
꽃잎은 푸르청청  
방금 파도칠듯

천송이 만송이  
꽃바다에 받들려  
**김정일**화 피어나네  
피어서 웃네

저절로 떨어진 씨앗을 품어  
땅과 흙이 피워준 꽃이라면  
곱단 말 한마디로  
안아주련만

안지를 못하겠네  
그 뜻이 너무 커서  
곱단 말도 모자라네

그 모습 신비로워  
  
불같은 그 빛은  
내 피줄 덥혀주는듯  
날으는 향기는  
하늘 땅을 움직이는듯

이 세상 오직 한분  
위대한 이름  
받들고 따르며  
세월이 쌓아온 뜨거움  
그대로 불이 되었나

아, 정녕  
꽃이 아니라 해가 솟는듯  
푸르청청 설레이는 잎새우에  
세기의 먼 끝까지 비치고 비쳐갈  
행복의 노을이 일어서네

### 나도 한송이

아름다움에 마음 끌리면  
승엄함이 안겨오고  
승엄함에 머리숙이면  
따뜻함이 어려오네

꽃이라도  
일만꽃의 향기를 합쳐 피는 꽃  
세기의 위인을 모시고 따르는  
온 세상의 뜨거운 숨결을  
다 모아 불타는 꽃

천만년 피여온  
그 봄보다도  
더 따뜻한 봄을 속삭여주고  
더 아름다운 봄을 가까이 불러주네

그 붉은 빛  
한잎의 꽃처럼 물들면  
내 한생은  
얼마나 빛날가

그 푸른 빛  
 설레는 잎새의 정기 지니면  
 내 젊음  
 얼마나 푸르를가

붉어도  
 친애하는 그이의 생각에 붉고  
 푸르려도  
 친애하는 그이의 뜻으로 푸르자고

내 마음속에도  
 향기를 풍겨주는 꽃

그 어느곳에 피어도  
 이 꽃 우리러 피면  
 한생을 살아도  
 이 꽃과 더불어 살면  
 나도 한송이  
 꽃다운 꽃으로 되리

## 봄과 봄이 세기를 덮었네

꽃많은 나라  
 그 어디에  
 이런 자랑 있던가  
 바람 잔잔한 기슭이던가  
 해빛 뜨거운  
 남방이던가

어제는 **김일성**화 피고  
 오늘은 **김정일**화 웃어  
 온 세상이 부러움속에  
 이 강산을 바라보네

하늘을 움직이는 높은 뜻  
 한시대에 두번 나래친 이 땅  
 한없는 그 영광에  
 꽃은 피고  
 다시 피고

서로 다른 꽃이건만  
 한뿌리에 피어난듯  
 두 뿌리에서 피었어도  
 한송이 꽃이런듯

**김일성**화 피어  
 봄이 만발한 강산  
**김정일**화 피어  
 조선의 봄 누리에 빛나네

꽃은 이 강산의 자랑  
 꽃은 온 누리의 기쁨

아 **김일성**화-**김정일**화  
 이 땅에서 시작된 봄과 봄이  
 세기를 덮었네!

## 가사

## 밀영에 어리는 마음

리 석

백두의 밀림에 내리는 봄비야  
 구호나무 뿌리를 실실이 적셔다오  
 억세게 자라서 영원히 푸르게

백두의 밀림에 흐르는 바람아  
 손길처럼 글발의 이끼를 씻어다오

세월의 흰서리 내리지 못하게

밀영에 흐르는 소백수 물결아  
 노래처럼 언제나 정답게 흘러다오  
 글발마다 빛나는 자랑을 전하며

# 달아 달아 처량하게 밝은 저 달아

높은 담벽 나의 앞을 가로막았고  
굳게 닫힌 저 대문도 야속하구나  
그 어디에 하소하라 억울한 신세  
그 누가 알아주랴 슬픈 이 사연

달아달아 처량하게 밝은 저 달아  
불쌍한 우리 신세 너는 아느냐

쌍이고 쌍이는건 슬픔뿐이요  
갈수록 더하는건 천대와 멸시

무심하다 달빛마저 빛을 가리고  
원한의 프락안엔 어둠만 깊네  
낮에는 머슴살고 밤에는 꽃을 팔아  
어머니의 깊은 병을 고쳐드리리

## 명가사평(제 12 회)

### 꽃분이의 비통한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파고든 명가사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에서 나오는 노래 《달아달아  
처량하게 밝은 저 달아》의 가사에 대하여-

정순희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에 나오는 노래가사들은 뜻이 깊고 형상이 잘되어 새길수록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며 읊으면 저절로 노래가 되는 주옥같은 명가사들이다.

그러한 가사중의 하나가 2장 2경의 마지막에 불리우는 노래가사 《달아달아 처량하게 밝은 저 달아》이다.

이 가사가 사람들의 심금을 끝없이 울리며 강렬한 충동을 안겨주는것은 극적정황에서 드러나는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파고들어 가사에 뜻이 깊은 내용을 담은데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는 인물들의 호상관계와 생활과정에서 드러나는 그들의 내면세계를 파고들어야 가사에 뜻이 깊은 내용을 담을수 있습니다.》**

가사는 시종일관 꽃분이가 체험하는 비통한 심리세계를 생활정서적으로 섬세하게 파고들어 착취사회에 대한 피맺힌 원한과 눈물겨운 설움의 세계에 독자들을 이끌어간다.

각박한 세상 지주놈의 압제밑에서 온갖 수모와 멸시, 슬픔과 고통을 말없이 감수하면서도 오직 하나 어머니만을 믿고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성을 안고 살아온 꽃분이였다.

그런 어머니가 지주놈의 못매를 맞고 사경에

쳐했는데 악착한 마름놈은 아무리 애걸하고 몸부림쳐도 사정없이 대문을 잠그어버린다.

열리지 않는 대문과 앞을 막는 높은 담벽을 안타까이 두드리며 꽃분이가 마음속 설분을 토로했으나 그 어디 하소연해도 덜수 없고 그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차디찬 세상은 어머니와 딸의 뜨거운 인정세계마저 무참히 짓밟아버리였다.

꽃분이를 동정하여 함께 흐느끼듯 처량한 빛을 감추지 못하는 밝은 달, 여기에 꽃분이의 내면독백을 담은 애절한 노래가 울려나온다.

달아달아 처량하게 밝은 저 달아  
불쌍한 우리 신세 너는 아느냐  
쌍이고 쌍이는건 슬픔뿐이요  
갈수록 더하는건 천대와 멸시

어떻게나 비극적인명에서 벗어나보려고 부지런히 일했고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어 쓰러지면서도 사랑과 효성으로 서로 의지하여 살아가자고 무진 애를 쓰던 꽃분이. 허나 근면과 성실도 자식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에 대한 자식들의 효성도 형제간의 우애도 가난한 이웃들의 동정도 그들을 결코 수난자의 운명에서 구원해주지 못했다.

꽃분이가 바란것은 고작해야 굶주려도 헐벗어

도 온 가족이 한데 모여 자유롭게 살아가는것이 전부였던단 크지 않은 이 소망은 실현될 길 막막하고 오히려 갈수록 더하는건 천대와 멸시, 쌓이고 쌓이는건 슬픔뿐이었다.

좁쌀 두말 빗진것때문에 아버지가 머슴살다 돌아가지고 그뒤를 이어 오빠가 8년세월을 머슴으로 살았다. 지주집 토방에 넣어놓은 대추 한알을 집은것이 화가 되어 동생 순희는 눈이 멀고 지주놈의 집에 불을 질러 항거한 《죄》로 오빠는 감옥으로 끌려간다. 제놈의 치부를 위해서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것도 서슴지 않는 지주놈은 오빠대신 6년간의 머슴살이 고역에 골병든 어머니를 내쫓고 꽃분이마저 머슴으로 끌어가며 지주 처녀와 거간꾼은 꽃분이를 판데 팔아넘길 흥계를 꾸민다.

인간이 당할수 있는 불행과 고통, 학대와 멸시가 아무리 크다 한들 이렇듯 모질고 가혹할수가 있겠는가!

가사는 꽃분이가 살고있는 죄악과 모순으로 가득찬 썩고병든 사회에 대한 원한과 저주의 감정을 터뜨리면서 그속에서도 정성과 효성의 꽃으로 어머니를 구원하려는 꽃분이의 아름다운 지향을 보여주는데로 점차 승화된다.

낮에는 머슴살고 밤에는 꽃을 팔아 어머니의 깊은 병을 고쳐드릴수 있으리라 믿는 소박한 꽃분이!

피눈물 흘리면서도 자기 집안에 들쳐위지는 참혹하고 가혹한 운명이 무엇때문인가를 알기에는 너무나도 순박하고 선량한 꽃분이의 심리세계의 추구는 시대와 성격의 본질을 생동하게 드러내면서 독자들을 깊은 사색에 잠기게 한다.

과연 인간의 존엄과 자주성이 유린당하고 돈과 권세가 판을 치는 생지옥같은 세상에서 꽃분이의 소망이 이루어질수 있을것인가.

애써 일도 해보고 참아도 보고 사정도 해보았지만 슬픔의 나락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꽃분이의 억울한 신세-이것은 그대로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조선인민이 당하는 설움이였고 고통이었다.

가사는 망국노의 설움과 고통을 속속들이 체험하는 꽃분이의 형상을 통하여 시대와 사회의 본질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하고있다.

이로부터 얻어지는 사상적결론은 나라 잃고 자주성을 짓밟힌 피압박 인민대중의 운명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으며 착취사회와 착취계급의 본질을 인식하고 계급적으로 각성하여 혁명투쟁에 나서는 길만이 참된 삶의 길이라는것이다.

바로 여기에 가사의 뜻깊은 내용이 있으며 명가사의 품격을 갖추출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있다.

가사는 정서를 펼치고 정서를 통하여 인간의 내면세계를 밝혀내며 생활의 깊은 의미를 밝히는 정서의 문학이다.

정서가 풍부하여야 말하려는 사상적내용이 적

극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킬수 있다.

가사는 주인공 꽃분이의 극적체험에서 흘러나오는 사상감정의 정수를 옹골치게 포착하고 훌륭히 시화함으로써 시형상을 높일수 있었다.

어머니의 병세가 위급하다는 말을 듣고 집으로 달려가던 꽃분이가 굳게 닫혀진 지주집대문을 주먹으로 치며 통곡하는 극적인 정황에서 체험한 사상감정의 핵은 설움과 원한의 하소연이다.

가사는 매절마다에 형상의 초점을 명백히 설정하고 그것을 높이 솟은 담벽과 대문, 처량하게 밝은 달과 빛을 가린 무심한 달빛에 의탁하여 정서적으로 파고들어 가사가 담고있는 심오한 뜻을 감성적으로 파악케 하였다.

가사는 또한 인물의 내면세계의 토로에 매우 적중한 구성조직을 한것으로 하여 특징적이다.

매절의 앞부분(1, 2행)에서는 꽃분이의 체험세계를 개방할수 있는 생활적전제를 충분히 깔아주고 뒤부분(3, 4행)에서는 그로부터 환기된 심리세계를 탁 터쳐놓는 구조적형식은 세상밖에 버림받은 꽃분이의 불우한 처지와 억울한 신세, 사무친 원한의 감정을 보다 진실하게 보여줄수 있었으며 그의 정신세계를 극적으로 더욱 고조시켜 사람들의 뜨거운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있다.

이 가사가 명가사로 될수 있는것은 꽃분이의 설움과 원한의 하소연을 드러내는데 적중한 표현과 간결하고 소박하면서도 뜻이 깊은 시어들을 잘 골라쓰고있는것과도 관련된다.

가사에 리용된 시어와 표현들 가운데는 《억울한 신세》, 《슬픈 사연》, 《불쌍한 신세》, 《슬픔》, 《천대와 멸시》, 《원한의 프락》, 《야속하다》, 《하소하라》와 같은것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이것은 설움과 눈물속에 끝없이 잠겨있는 꽃분이의 절절한 내면세계를 보여주는데 집중되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새로 탐구한것도 아니고 귀에 익은 평범한 시어와 표현들이지만 생활정황에 어울리고 정서적 색깔이 뚜렷한것으로 하여 씹으면 씹을수록 깊은 뜻이 안겨오고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꽃분이의 가궁한 정상이 가슴에 사무쳐와 나라잃은 민족이 당하는 슬픔과 고통을 뜨겁게 절감하게 된다.

이 가사의 운율은 약간 느리면서도 비통하게 흐르면서 주인공의 절절한 내면세계를 파헤치는데 복종되고 여운있게 안겨와 독자들을 정서적으로 흥분시킨다.

참으로 명가사 《달아달아 처량하게 밝은 저 달아》는 구체적인 생활정황에서 발현되는 꽃분이의 설움과 원한의 하소연을 훌륭히 시화함으로써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생활의 심원한 진리를 다시금 똑똑히 인식시켜주는 혁명교양, 계급교양의 무기로 되고있다.

# 인민의 기쁨을 안으시고

리동후

보시겠다고  
꼭 보아주시겠다고  
이른아침 전화기에 울리던 그이의 음성  
아직도 귀에 쟁쟁해  
영광의 시각을 기다리는 이 저녁

어느덧 정문가에 고르로운 동음소리  
차문이 열리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가까이 가까이 걸어오시는  
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우러러 경건히 인사를 드리는데

그 어디 먼곳에 다녀오신 길인가  
모자며, 신발이며 수수한 차림새  
흙물이 그대로 얼룩진 차바퀴...  
순간 눈언저리 젖어오는 송구한 마음앞에  
그이께서는 오히려 늦어서 미안하다고  
다정히 손잡아 이끄시여라  
경공업전시장을 우리함께 돌아보자고-

제품마다 정성이 어려서인가  
아이들의 옷색갈도 모양도 가지가지  
정겨운 눈길로 헤아려보시고  
녀성들의 옷견본이 시원해서 좋다고  
꽃단추 하나에도 마음쓰시는  
다심한 친어버이 사랑이여

웁기시는 걸음걸음  
지혜의 나래를 펼쳐주시며  
인민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것  
다 찾아내야 한다고  
세심한 가르치심도 그 몇번...

제품도 수천가지 다 돌아보시고  
그리도 만족하시여 호탕히 웃으시는 영상  
끊임없이 불비며 흥성이는 매대를  
온 나라에 펼칠 인민의 기쁨 안으시고  
그이께서는 열정에 넘쳐 이르시여라  
인민소비품생산에 큰힘을 넣자고-

아, 풍성한 살림 나날이 꽃피우시려  
농장의 들길  
공장의 구내길  
오늘도 이어오신 사랑의 그 길은  
천리런가 만리런가

평범한 이 하루에도  
친애하는 그이의 품속에서  
행복이 무르녹는 사랑의 바다  
우리 한생토록 다 헤아릴길 없는  
영원한 축복을 받아안았어라

## 회령고향집

김재원

두만강여울소리  
정다운 노래로 울려오고  
백살구꽃향기  
봄바람에 살포시 날리는  
해빛밝은 오산덕 기슭  
아무때 찾아와도

집은 고요히 비여있어  
하많은 추억과 간절한 그리움만이  
승업한 정적속에 뜨거이 감도는  
어머님 고향집  
하건만 어쩐지 나는  
빈집에 온것 같지 않구나  
정가론 트랙의 토방돌을 보아도

봄꽃이 란만한 동구길을 보아도  
몽당치마에 짚신을 신으셨던  
그 시절의 어머니 발자취소리  
사뻐히 들릴듯

눈길들어 다시 방안을 살피니  
너무도 가난했던 생활의 흔적들  
어머님 체온이 숨배인  
네모난 구름노전이며  
단출한 살림이 담겼던 그날의 나무함

그 모든것  
젖어드는 마음의 손길로 쓰다듬으며  
내 길이 생각에 잠기나니  
어떤것인가 집을 떠나서도  
집을 비우지 않은 생!

이 집을 나서시여  
어머님 헤치신 장장수만리...  
그 길 한끝에서 오늘도 조용히  
어머님 나를 마주향해 속삭이는것 같구나  
마안산눈길에 소백수샘물가에서  
도천리들길에 대사하언덕길에서

아아, 그 길이 모두  
이 집에 감돌아들어  
집은 비여있어도  
내 결코  
빈집에 온것 같지 않구나

집은 비우시였어도  
조국은 비우지 않으신 어머니!  
집을 떠나계신 그날과 달속에  
그뒤도 대신못할 어머니 곁결한 사랑  
해빛속에 어려 별빛속에 어려  
밝게 비치나니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추억속에  
간절한 그리움속에  
어머님의 고귀한 업적이 집에 차고 넘쳐  
내 결코 빈집에 온것이 아니구나

만경대고향집 추녀에 잇대여  
백두밀영고향집 추녀에 잇대여  
혁명의 고향집으로 솟아오른  
아, 회령고향집  
김정숙어머님의 고향집!

## 어머님 우러러 피운 꽃

김 선

그리운 마음이 피웠습니다  
따르는 효성이 어렸습시다  
눈내린 창가에서 꽃들이 피니  
마음은 한달음에  
어머님 품으로 달려갑니다

눈이 내리니  
12월의 눈이 내리니  
더더욱 그리운 마음이여서  
대성산혁명렬사릉에 안고갈  
꽃다발을 정히 엮는데

문득 팔애가 묻는 말  
-김정숙어머님은  
무슨 꽃을 제일 좋아했나?

아, 어린것의 천진한 물음에  
가슴속에 차오르는 꽃향기  
망울 터치는 하많은 꽃망울들

무슨 꽃이라고 말해줄까

이 땅에 피는 꽃이면  
그리도 사랑하신 어머니  
꽃이름만 꼽는다면 다 알까  
어머님 사랑하신 그 많은 꽃을...

진달래꽃을 사랑하셨단다  
조국으로 진군하던 그날  
이 땅의 첫 기슭에 피여웃던 그 진달래  
장군님 그리도 기쁘시여 안아보시던  
그 꽃, 그 향기

백살구꽃을 사랑하셨단다  
밀영의 우등불가 숙영의 실참이면  
장군님 모시고 갈  
고향의 언덕에 짙은 향기 뿌려줄 그 꽃  
기어이 찾아야 할 조국의 모습으로  
언제나 외우시던 그 꽃 그 향기

눈꽃을 사랑하셨단다  
백두밀영고향집 트랙에  
2월의 그날에 곱게 폈던 그 꽃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첫 웃음과 함께  
환희롭게 피어나던 그 눈꽃을...

딸애도 한송이  
나도 한송이  
송이송이 엮은 꽃을 안고  
대성산혁명렬사릉 높은 언덕  
어머님 반신상앞에 서니  
우리만이 아닌 수천수만의 마음이 어린  
충성의 꽃  
효성의 꽃  
천송이 만송이 피어있습니다

나도 그 꽃바다위에  
딸애도 그 꽃물결위에  
우리 수령님의 기쁨  
삼지연의 진달래꽃으로  
우리 어머님의 사랑  
회령의 백살구꽃으로  
우리 지도자동지의 웃음  
백두밀영의 그 눈꽃으로  
영원히 피어서 지지 않을 꽃으로  
마음도 함께 피어났습니다

## 시인의 고백

김경기

잊지 못할 밤이었소  
너무나도 위대한 업적을 더듬으며  
너무나도 작은 나의 심장이 끓고있었기에  
들었던 붓도 흥분에 젖어  
한자한자 글귀를 고르던 밤  
문득 어머님께서 찾아주신 그 밤은!

들을수록 전설같은 장군님의 이야기  
새길수록 숭고한 백두의 력사였소  
창너머 류달리 별이 많던 그 밤은  
다감한 시상으로 가득찬 밤이었소

수령님을 떠나선  
단 한번도 고동친 일이 없으신  
그렇게박엔 그렇게박엔 땀수 없었던  
김정숙어머님의 숨결소리를 들으며  
이 심장도 새로이 뛰기 시작한 그 밤

전설같은 어머님의 이야기는  
구절구절이 해빛과도 같아서  
마디마디가 씨앗과도 같아서  
이 가슴에 안겨지자 시가 자라나고  
노래가 자라났소

끝없이 나래퍼는 령감과 령감은  
광막한 백두산야를 수리처럼 날아예머  
불타는 노을빛에 물들고  
울부짖는 폭풍을 한껏 들이켰소

울려왔소, 장군님의 전설들에서  
태양에 대한 불멸의 노래가  
그것은 인민의 힘을 묶어 폭풍을 일으킨  
장엄한 백두밀림의 설레임소리였고  
삼도왜적이 벌벌 떨던

백두산 푸른번개의 노호소리였소

어머님께선 심장의 갈피갈피에  
장백산 줄기줄기를 주름잡으시던  
거룩한 그 자욱을 새겨주셨소  
압록강 굽이굽이 넘나드시던  
피어린 그 자욱을 새겨주셨소

구절구절 빛이 없던 나의 시행에  
번개가 번뜩이고 천둥이 울었소  
쟁쟁해진 내 시의 운과 행들은  
거룩한 시상에 불타오르고  
우리려 태양을 청송하는  
황홀한 가락으로 넘쳐흘렀소

그렇소  
시줄과 시줄들에 뛰는 맥박은  
시행과 시행들에 푸덕이는 냇은  
멸함없는 이 시의 온 생명력은  
어머님의 심장에서 넘겨받은것이였소

이렇게 씌여졌소  
조신이 부르고 세계가 부르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는  
어머님께서 주신 그 뜨거운 숨결  
어머님께서 주신 그 드높은 맥박  
어머님께서 주신 그 백두령감으로!

김정숙어머님이시야말로  
위대한 태양을 노래하고싶은  
인민의 소망을 한가슴에 다 안으신  
태양의 노래를 온 누리에 울려주신  
이 나라 시인중의 첫 시인이시였소!



# 어머님께서 주신것은

백일호

오리 오리 실오리 감다가도

머리 들면

해빛 넘친 창문너머

끝없이 푸른 하늘

아, 저 밝은 해빛

저 푸른 하늘은

우리 제사공들에게 노래와 기쁨을 주신

언제나 못잊어 그리운

어머님의 그 사랑이 아닌가

감격도 새로워라

조국에 개선하신 걸음으로

아버이장군님의 뜻 꽃피우시려

제사공들을 찾으신 어머니

그저 기쁘시여 기쁘기만 하시여

손과 손 따사로이 쓰다듬으시더니

이윽고 알아보시였는가

끓는 약물에 방울진 물집들을

부풀어 터진 손가락들을 만지시며

어린시절 고역속에 살아온

처녀들의 고통을 헤아리시던 어머니

어머님께서

다시 머리드시며 보신것은

공장 어디라없이

한줄기 해빛도

한점의 푸른 하늘도 새어들세라

높이 쌓은 콩크리트울타리

그우에 가시 돌힌 철조망

저렇게 감옥처럼 담벽을 쌓고

그안에 나 어린 처녀들을

죄수와 같이 가두어두고 피눈물짜넌

간악한 원썬놈들

분하시여

주먹을 부르짖시며

증오의 불 뿜으시는 말씀

-저 담벽을 흔적없이 들어냅시다!

아, 오랜 세월

억눌려 살아온 가슴들에서

원한의 담벽 송두리채 뿜으시는

위대한 사랑

온 공장이 어깨를 들먹이던

어머님의 그 사랑

세상과 쌓은 담벽을 터쳐

제사공처녀들 어서 곱게 피여

희망창창한 래일로 나래 펼치라고

수령님의 따사로운 해빛 주시고

가없이 넓고 푸른 하늘을 열어주시었으니

세월이 갈수록

창문 넘어 흘러들어

오리 오리 실오리에 함께 감기는

저 밝은 해빛을 보아도

푸른 하늘을 보아도

더더욱 못잊어 그리운 김정숙어머님

진정 어머님께서

그날 터치신것 담벽만이라

제한몸도 제것이 못되었던

나 어린 제사공처녀들에게 안겨주신것은

살아처음 자주적인간으로 떳떳이 걸어가는

아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의 품

영원한 행복의 세계였어라!

# 위훈의 년대 찬란히 빛나는 80 년대

강능수

일반적으로 하나의 년대를 놓고 그간의 문학의 특징에 대하여 규정하는것은 불가능한 일로 되고 있다. 정신문화의 발전자체가 장구한 기간을 요구하며 특히 문학은 작가의 오랜 사색과 탐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사업이기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대 조선문학을 돌이켜볼 때 눈길이 미치는곳마다 찬란히 빛을 뿌리는 위훈의 봉우리들을 접하게 되며 그 수많은 봉우리들을 모두 합쳐 높이 올려세운 80년대 조선문학을 무한한 긍지와 감격속에서 우러르게 된다.

1980년대, 이는 우리 문학의 위훈의 년대이며 우리 당의 정력적이며 현명한 령도밑에 이루어진 1970년대의 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소설, 시, 아동문학, 희곡, 평론 등 문학의 모든 분야에 더욱 심화시켜 찬란히 꽃피운 년대, 새롭게 심화발전된 문학예술의 대전성기이다.

위훈의 년대로 아로새겨진 80년대의 우리 문학의 성과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1980년대가 시작되는 벽두에 벌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문학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조선작가동맹 제3차대회를 소집하도록 배려하여주시고 우리 문학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그 사상예술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데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인 말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기량을 결정적으로 높이자》**를 주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중요시기마다 문학예술앞에 제기되는 과업과 함께 그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를 명시하여 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문학이 인민들의 사상문화정서교양과 문학예술분야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깊이 헤아리시고 문학을 앞세우는 것을 우리 당의 방침으로 제시하시고 그것을 힘있게 전개하여나가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은 모든 예술의 기초입니다. 문학을 앞세우지 않고서는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킬수 없으며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미학적요구를 충족시킬수 없습니다.》**

**작가들은 창작에서 주체의 인간학의 요구를 구현하여 우리 시대 인간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그린 소설과 시를 비롯한 문학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여야 하겠습니까.》**

80년대의 조선문학을 장식하는 그 위훈의 봉우리마다 그 어디에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로고와 사랑의 손길이 깃들지 않은곳이 있으며 위대한 탐구와 창조의 력사가 비끼지 않은곳이 있는것인가.

참으로 1980년대, 조선문학의 위훈의 년대는 혁명과 건설 전반을 헤아리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것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문학, 우리 작가들을 내세워주시고 키워주시고 알찬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주신 비범한 예지와 비상한 정열, 탁월한 령도와 위대한 사랑의 년대이다.

그렇기때문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최근 우리 문학의 실태를 헤아리시고 우리 문학이 최근년간에 주체적으로 잘 나아가고있다고 높이 평가하여주시였다.

이보다 더 큰 평가와 표창은 이 세상에 없다.

이는 우리 조선의 작가들만이 누릴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며 최상의 생복이다.

## 1

80년대를 우리 문학의 위훈의 년대라고 하는것은 무엇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손수 친필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고증각색하는 사업을 계속 줄기차게 밀고나감으로써 우리 문학의 력사적뿌리를 더욱 깊이 파악하게 하고 인민대중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한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독창적으로 지펴주신 연극혁명의 불길속에서 힘차게 벌어진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에 대한 고증각색사업이 1970년대에 혁명연극 **《성황당》**을 이어 80년대에 혁명연극 **《혈분만국회》**, **《딸에게서 온 편지》**, **《3인1당》**, **《경축대회》**로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우리 나라는 5대혁명연극, **《성황당》**식혁명연극을 가진 나라로 되였다.

**《혈분만국회》**를 비롯한 혁명연극의 의의는 그 하나하나가 고전적인 명작으로서 당시는 물론 오늘날도 래일도 영원히 불후의 가치를 빛내일것이라는데 있다.

고전적명작으로서의 혁명연극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작품들이 제기하고 예술적으로 해명한 종자-문제의 철학적심오성에 의하여 담보되고있다.

사대는 망국이며 오직 자주성을 가질 때에만 나라를 찾을수 있다는것을 자신의 파란곡절에 찬피의 결판을 통하여 비통하게 웨치는 리준의 절규, 배워야 인간의 존엄을 빛내일수 있다는 허달수의 절절한 호소를 감명깊게 형상한 **《딸에게서 온 편지》**, 파쟁은 망국이며 단결은 힘이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한 **《3인1당》**, 인민의 민족자주정신

은 현대적인 그 어떤 무기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소리높이 호소하는 《경축대회》… 그 하나하나가 심오한 진리이며 철학이며 몇권의 책을 쓴다고 해도 다 담지 못할 폭과 깊이를 가지고 있다.

혁명연극의 불후의 고전적명작으로서의 가치는 또한 개개의 작품들이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의 관점, 자주성의 견지에서 인간과 생활을 고찰하고 예술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자주적인 인간을 내세웠다는데 있다. 이것은 연극부문에서는 물론 문학전반에서의 일대 혁명이다. 혁명연극에 이르러 비로소 사회적인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귀중한 자주성을 지닌 인간전형의 본모기를 내세울 수 있었다.

혁명연극의 불후의 고전적명작으로서의 가치는 이외에도 극작술에서 무대적인 제한성이라는 구실밑에 무대밖에 밀어놓았던 생활을 현실생활을 보듯이 무대위에 펼쳐지게 극을 구성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인간의 내면심리세계를 부각시켜주는 방창의 도입, 립체적미술 등 형식과 수법에서 새로운 혁신을 가져온데 있다.

혁명연극은 이러한 혁신성과 고전적가치로 하여 주체적인 희곡창작에서는 물론 주체문학건설에서 튼튼히 의거해야 할 영원한 본보기로, 모범으로 빛을 뿌리고 있다.

다음으로 80년대를 우리 문학의 위훈의 년대라고 하는것은 우리 당과 수령 형상창조에서 거대한 성과를 이룩한데 있다.

수령형상창조문제, 이는 문학이 어떻게 혁명의 자주적주체를 강화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구현하며 수령의 혁명위업에 이바지하는 로동계급의 문학이 어떻게 자기의 기본사명을 다하는가 하는 근본문제이다. 동시에 그것은 문학작품창작에서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인간을 최상의 사상예술적수준에서 재현할것을 요구하는 매우 영광스럽고도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우리 문학은 이 영광스럽고도 어려운 과제를 빛나게 해결하였다.

우리 문학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위대한 수령님의 해방전 영광찬란한 혁명투쟁력사를 대서사시적화폭속에 그린 총서 《불멸의 력사》의 창작을 80년대에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에 대한 력사문헌적내용과 최상의 예술적가치가 겹비된 기념비적인 작품 15편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영화문학분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초기혁명활동시기부터 반일유격대의 조직에 이르는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단계별로 그리면서도 일관하게 감명깊이 형상한 혁명영화 《조선의 별》(1부~10부, 리종순 작)을 성과적으로 결속짓고 뒤이어 《민족의 태양》(1, 2, 3부)의 창작이 눈부시게 진척되었다.

소설분야에서는 총서 《불멸의 력사》 해방전편의 성과적인 결속과 함께 벌써 해방후편의 첫 작품으로서 장편소설 《빛나는 아침》(권정웅 작)이 세상에 나왔다.

수령형상창조에서 80년대 우리 문학이 거둔 귀중한 경험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빛나게 구현한것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당이 수령관 확립에서 기본은 수령의 위대성교양이며 수령의 위대성은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인간의 품모속에 있다는 심오한 사상을 명철하게 밝혀주었으며 우리 작가들이 그것을 깊이 체득하고 창작사업에 정력적으로 구현한데서 얻어진것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품모에서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특징은 각각 별개로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호상 침투하면서 하나의 위대한 인격을 이루고있다. 우리 문학은 바로 이 위대한 인격속에 만사람을 끌어당기는 거대한 견인력의 비결이 있으며 사람들을 반하게 만드는 매혹이 있는것을 힘있게 확증하였다.

그렇기때문에 유격근거지에서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뵈운 한 일군은 상급에 보내는 사업보고서라는 성격에 어울리지 않게 자기의 감동에 찬 인상담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있는것이다.

《그는 탁월한 혁명가, 정치가, 군사가이며 천재적인 예술가이다.

인간에 대한 사랑, 인민대중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중추로 하여 탁월한 리성과 다감한 감성, 철저한 원칙성과 적에 대한 비타협성, 대해같은 포용력, 강철의 의지와 비범한 예지… 이 모든 훌륭한 자질들이 결합되어 령도자로서의 그의 인격의 총체를 이루고있다.

그는 조선의 피어린 력사와 인민대중이 낸 유일무이한 결출한 령도자이다.》

이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인격에 접한 한 인간의 완전한 매혹이며 그로부터 어쩔수 없이 터져나오는 감탄과 찬양이다.

위대한 인격에 매혹되었기때문에 또한 슬기로운 조선의 청년공산주의자이며 열혈투사인 김혁이 위대한 장군님을 뵈운지 얼마 안되어 인차 장군님을 민족을 구원할 해방의 구성으로 높이 칭송하는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창작하게 되었다.

수령형상창조에서 우리 문학이 거둔 중요한 경험의 하나는 또한 당시의 생활을 기정사실화하지 않고 생활적사실 그대로 진실하게 그림으로써 단결의 중심, 생명의 중심으로서의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품모를 빛나게 형상한것이다. 이에 있어서 당의 현명한 지도밑에 창작완성된 혁명영화 《조선의 별》(2부)의 창조경험은 매우 귀중하다. 작품은 단결의 중심, 생명의 중심으로서의 위대한 장군님의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는 현상을 극복하고 생활적사실 그대로

로, 즉 그것을 수령님과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뜨거운 동지적결합관계속에서 그리 고 김혁, 차광수 등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절박한 생활의 요구로, 심장의 요구로 제기된것으로 형상하였기때문에 그처럼 진실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될수 있었던것이다.

수령형상창조에서 80년대 우리 문학이 거둔 중요한 성과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깊이있게 형상한 작품들을 많이 창작발표한것이다.

이에 있어서 우리는 특히 시대의 기수이며 나팔수인 우리 시문학이 우리 당의 위업에 대하여 정력적으로 노래함으로써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고 당을 더욱 강화하는 사업에 크게 기여한데 대하여 자랑하게 된다.

80년대에 당을 노래한 우리 시문학의 기본특징은 당에 대한 노래이자 곧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지니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신 남다른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에 대한 노래로 되고있는데 있다.

이것은 시대정신의 반영이면서 동시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에 우리 시인들 자신이 매혹되었기때문이며 그로부터 뜨겁게 터져나오는 열정의 산물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에 대한 매혹, 그것은 우리 시문학으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시고 혁명하며 생활하는 우리 민족이 세상에 제일이라는 민족제일주의정신을 날게 하는 바탕으로 되고있으며 당을 노래한 우리 시문학을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에 대한 노래, 민족제일주의의 노래로 되게 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은 우리 시문학이 80년대에 거둔 가장 귀중한 성과이며 우리 시문학을 당과 수령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나아가고있는 우리 시대의 기치로 되게 하고있다.

80년대 당을 노래한 우리 시문학에서 또한 중요한 특징으로 되는것은 당에 대한 모든 감정과 정서가 민족제일주의정신의 바탕우에서 산생된 감정과 정서이며 그에 의하여 가장 정화된 감정과 정서라는데 있다.

최근에 발표된 박미성의 《백두밀영의 고향집》과 《김정일화》, 《남해가의 붉은 꽃》 등 가사들이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며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 당에 대한 흠모의 정으로 가슴불타게 하는 리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노래하는 대상들이 각각 다르지만 가사들에 관통하고있는 정서는 수정같이 맑은 환희의 감정이다. 이 환희의 감정으로 하여 백두밀영의 고향집이 그처럼 친근감을 가지고 안겨오게 하면서 영원한 마음의 고향집으로 사람들의 가슴속에 간직하게 하고있는것이다.

수정같이 맑은 환희의 감정이 있었기에 가사들

이 구체적인 사적대상을 노래할 때 흔히 범하기 쉬운 사적대상에 대한 설명이나 일반적인 감격을 노래하는데 머무를수 있는 현상을 극복하고 백두밀영의 고향집은 조선인민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집으로, **김정일화**는 간절한 흠모의 꽃으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우리 인민의 충성의 마음을 담은 충성의 꽃으로 길이길이 전할수 있게 되었던것이다.

80년대 당을 노래하는 시문학창작에서의 특징은 또한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성의 신념과 의지를 노래한 걸작들을 많이 내놓은것이다.

당에 대한 인민의 충성의 신념과 의지에 대한 시작품이 나왔다는것자체가 우리 시문학분야에서는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는것을 의미하며 당에 대한 노래가 그만큼 철학적으로, 정서적으로 심화되었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여기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리정술의 가사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우리의 신념은 하나》이다.

특히 가사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는 주체혁명위업의 개척과 그 완성을 위한 투쟁의 장엄성과 충성의 전통을 이어받은 인민의 긍지가 한데 어울리어 혁명적이며 광만적인 불초를 이루면서 지난날 항일혁명투사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혁명의 천만리길을 헤쳐온것처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시고 또다시 혁명의 천만리길을 헤쳐 반드시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할 결의와 각오로 사람들의 가슴을 충만되게 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가사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는 우리 인민의 충성의 신념과 의지에 대한 노래로 되고있는것이다.

이외에도 우리 시문학은 당에 대한 충성과 결의를 깊이있게 노래한 서정시 《우리는 배낭을 벗지 않으리》(리광재 작), 《나는 당의 영원한 동행자》(오필천 작) 등 수많은 시가작품들을 내놓았다.

80년대 당에 대한 노래가 철학적으로 정서적으로 심화되었다는것은 신념과 의지에 대한 시가작품들이 많이 나왔을뿐아니라 당과 혈연적으로 맺어진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을 깊이있게 노래한 시가작품들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가사 《밤하늘에 내리는 눈송이야》(전동우 작), 가사 《그 품 떠나 못살아》(신운호 작), 가사 《친애하는 그이는 우리와 함께》(최준경 작) 등 시가작품들은 당과 혈연적으로 맺어진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을 그자체가 인간감정의 가장 깊고 아름다운 세계인 충성과 효성의 각도에서 다양하게 노래함으로써 커다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우리 문학이 당의 불멸의 업적을 형상하는데서

거둔 성과는 소설과 희곡 등 서사시적화폭과 극적인 장면을 통하여 깊이있게 재현한것이다.

우리 문학은 당의 업적을 노래한 장편소설 《아침해》(현승걸 작)와 서사시 《불타는 해》(백하 작)와 같이 큰 형식의 작품들을 세상에 내놓았다.

장편소설 《아침해》는 인민경제6개년계획수행에서 관건적인 문제로 제기되었던 채취공업, 특히는 폐광의 운명에 처하였던 은률광산에 장거리 벨트콘베아의 새 력사가 펼쳐진 이야기를 통하여 어떻게 6개년계획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는가 하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있다.

작품은 그것이 다름아닌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무한한 충실성과 효성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그이의 비범한 예지와 통이 큰 작전, 정력적인 령도, 일군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에 의해 이루어졌다는것을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장편소설 《아침해》는 6개년계획수행행정에서 태어난 기적의 이야기, 그것을 이 땅우에 마련해오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에 대한 노래로 되고있는것이다.

기적에 대한 이야기, 그 기적을 창조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그것을 서사적으로 썼든 시적으로 형상하였든 관계없이 칭송의 노래가 아닐수 없다.

서사시 《불타는 해》는 6개년계획수행에서 결정적인 의의를 가지는 《70일전투》를 몸소 조직하고 전당, 전국, 전민을 불려일으키시여 그 진두에서 걸린 고리를 풀어나가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빛나는 업적을 감동적으로 노래하였다.

장편소설 《아침해》와 서사시 《불타는 해》는 작품들이 거둔 일련의 사상예술적성과와 함께 우리 당을 노래한 첫 장편소설과 서사시로서 의의가 매우 크다.

이외에도 우리 문학은 당을 노래한 단편소설 《고요》(리종렬 작), 단막극 《전사의 목소리》(진부섭, 김승훈 작)를 비롯한 짧은 형식의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여 우리 당에 대한 충실성교양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 2

80년대를 우리 문학의 위훈의 년대, 심화발전된 문학의 대전성기라고 하는것은 우선 10년간에 수백편의 장중편소설을 창작발표한 대풍작의 년대로 되고있는데 있다.

이 기간에 장편소설들인 《너당원》(김보행 작), 《대지의 아침》(고병삼 작), 《탄생하는 계절》(김수경 작), 《청춘송가》(남대현 작), 《탄부》(김문창 작), 《동트는 강산》(백보흠 작), 《야금기지》(허춘식 작), 《첫 기슭에서》(1, 2부, 김진성 작), 《붉은기》(림재성 작), 《태백산줄기》(정기중

작) 등과 중편소설들인 《세대》(김삼복 작), 《병사의 고향》(김동욱 작), 《여덟시간》(리희남 작) 등 많은 작품들이 창작되었다.

우리 나라 문학력사에서 이처럼 많이, 이처럼 왕성하게 장편소설이 창작된 년대는 일찌기 없었다.

이것은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축적되고 준비된 우리의 무진장한 창작력량의 일대파시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대혁명의 기치높이 나가는 우리의 사회주의현실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의 시위이다.

현실생활은 문학의 모체이며 창조적환상과 매력있는 형상을 낳게 하는 원천이다. 우리의 사회주의현실이 영웅적인 위훈들과 기적적인 사실들로 충만되어있기때문에 그처럼 우리 나라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장중편소설의 대풍작을 가져오게 하였던것이다.

80년대를 우리 문학의 위훈의 년대, 심화발전된 문학의 대전성기라고 하는것은 장중편소설창작에서의 대풍작일뿐아니라 우리 주체문학, 공산주의인간학으로서의 우리 문학의 위용을 온 누리에 떨친 자랑찬 년대로 되고있는데 있다.

문학작품의 가치는 인간생활과 운명개척에서 얼마나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예술적으로 해명하였는가 하는데 의하여 규정된다.

이것은 지난날과 오늘은 물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는 기본척도로 된다.

80년대 우리 문학의 혁신성은 사회적인간에게 있어서 존엄과 가치를 좌우하는 자주성의 문제,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이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새롭게 제기하고 성과적으로 해명하는데 있다.

우리 문학은 무엇보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정치사상적으로, 동지적으로 굳게 결속된 우리 인민의 통일단결에 기초하여 충성과 신념문제를 새롭게 개척한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신념이라고 할 때 삶의 기초와 그 가치를 의미하는것처럼 충성의 신념이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 시대 인간들의 인생관의 기초와 그 가치에 대한 문제이다.

80년대 우리 문학이 충성의 신념문제를 개척하였다는것은 우리 문학발전에서의 획기적인 사변이며 커다란 비약이다.

그것은 지난 시기 우리 문학이 인간의 삶의 보람에 대하여 의의있는 문제들을 많이 제기하였으며 당과 수령께 충실한 인간전형들을 많이 창작하였지만 충성의 신념문제를 문학의 문제성으로 제기하지 못하였기때문이다.

충성의 신념에 대한 문제, 그것은 주체형의 인간의 삶의 기초와 원천에 대한 문제이며 인간의 힘과 행복의 원천에 대한 문제이며 총적으로 주체형의 인간의 근본에 관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우리 인민의 충실성의 상징인 태성할

머니를 원형으로 하고있는 장편소설 《축원》(천세봉 작)은 우리 문학에서 충성의 신념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하였다는 의미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

우리 문학은 이에 머무르지 않고 수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성과 효성에 대한 작품을 또한 창작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충실성의 문제해결에서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하나의 새 세계의 발견이며 개척이다.

장편소설 《빈터우에서》(김보행 작)는 수령님에 대한 충성과 효성을 지닌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또 얼마나 큰 힘을 낼수 있는가 하는데 대한 해명을 통하여 충성과 효성의 문제를 천명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작품은 제명이 말해주는것처럼 미제의 야수적폭격으로 모조리 파괴되고 아무것도 남은것이 없는 빈터우에서 어떻게 발전된 사회주의나라에서도 년간 몇대밖에 생산하지 못한다는 대형양수기를 조선의 로동계급이 생산하였는가 하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킨 비결에 대한 이야기로 되고있는것이다.

장편소설 《철의 신념》(김리돈 작)의 혁신적의의도 조선로동계급의 신념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철학적깊이가 있게 해명한데 있다.

일반적으로 신념이라고 할 때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이 그것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수 없는 마음의 기둥을 의미한다.

작품은 사회적인간에게 있어서 근본문제인 신념의 문제, 조선로동계급의 신념이 어떤것인가 하는것을 제기하고 그것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고 그이의 령도를 받는 한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 강철같은 신념이라는것을 밝히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장편소설 《철의 신념》은 강철 1만톤만 더 있으면 나라가 허리를 펼수 있었던 전후의 그 어려운 시기 어떻게 하여 6만톤의 공청능력을 가진 분괴압연기에서 12만톤의강재를 생산하였는가 하는데 대한 기적의 비결에 대한 이야기, 우리 나라에서의 천리마의 새 력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비결에 대답을 주는 작품으로 되고 있는것이다.

우리 문학은 이처럼 자주적인간에게 있어서 근본문제로 나서는 문제들과 함께 사회적으로 의의있는 문제들을 깊이있게 탐구하고 밝히었다.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변희근 작)은 우리의 주체형의 당일군의 품모의 높이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사회적으로 매우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였는가 하면 중편소설 《향토》(김삼복 작)는 고향에 대한 참다운 사랑이란 어떤것인가 하는 심오한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작품들에서 충실성에 기초한 우리 시대 인간들의 혁명적량심문제를 제기한것

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인생관화하고있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의 반영으로서 80년대문학에 새롭게 제기되고있는 문제이다.

우리 문학의 혁신성은 다음으로 우리 문학에서 수령님에 대한 충성과 효성을 지닌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새롭게 창조한데 있다. 우리는 이것을 80년대 우리의 주체문학의 성과가운데서도 가장 큰 성과임을 자랑한다.

수령을 신념과 의리로서뿐만아니라 자식된 도리를 다하여 받들어모시는 여기에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의 사상정신적높이가 있으며 80년대 우리 문학이 새롭게 개척한 분야가 있는것이다.

신념과 의리의 세계자체가 아름답고 숭고한 분야인것처럼 그 효성의 세계 또한 아름답고 숭고한 분야이다.

우리 문학은 충성과 효성을 그림으로써 비할바 없이 아름답고 숭고한 우리 시대 인간들의 내면세계와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펼쳐보일수 있었다.

장편소설 《빈터우에서》의 주인공 주용녀의 형상이 것처럼 감동적이며 매력이 있는 인간으로 될수 있는것은 바로 그가 지니고있는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의 세계를 깊이있게 그린것과 관련된다.

정전직후 빈터와 다름없이 된 공장형편에서 대형양수기생산에 대한 과업을 접수한 때로부터 자재, 설비, 기술의 부족과 반당종파분자들과 암해분자들의 갖은 악랄한 책동 등 온갖 난관을 무릅쓰고 마침내 대형양수기를 생산하는데 이르는 로정은 걸음걸음 피눈물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주용녀는 굴하지 않았으며 난관이 앞을 막아나설수록 맞받아 헤쳐나갔다. 그렇다고 그에게 남다른 힘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것은 아니였다. 다만 그에게 있다면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일인것만큼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충성과 효성이 있을뿐이었다.

그렇기때문에 대형양수기생산에 대한 과업을 접수한 때로부터 그 제작에 이르는 과정은 걸음걸음 피눈물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충성과 효성을 아름답게 수놓은 로정이기도 하였던것이다. 그가운데서도 특히 천신만고하여 만든 첫 제품이 실패하게 되자 반당종파분자들이 대형양수기생산을 할수 없다는 내용의 제의서를 당중앙위원회에 올려보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의 주용녀의 행동세계와 내면세계를 그린 장면이 숭고함과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룬것은 바로 그 장면이 충성과 효성의 최고발현으로 되고있기때문이다.

그는 반당종파분자들의 어처구니없는 행위에 너무도 분하고 안타까와 피로울 때나 기쁠 때나 찾아오게 되는 유서깊은 그 민주선전실앞에 서게 되며 거기에서 수령님앞에 다진 자신의 맹세를 생각한다.

작품은 이렇게 서술하고있다.

《그런데 수령님께서 양수기를 만들었다는 보고가 아니라 우리 힘으로 양수기를 만들수 없다는 제의서를 받아보시게 되었다. 이 얼마나 불효막심 하고 죄스러운 일인가.

아, 수령님...

용녀의 두볼로는 눈물이 줄지어 흘러내렸다. 그 흐름은 끝이 있을상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눈물만 흘리고있을수 없었다. 그는 결연히 눈물을 털어버리고나서 세포위원장에게 세포회의를 소집할것을 제의한다. 비록 양수기를 생산할수 없다는 제의서가 올라갔지만 주물직장 당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다져서 편지를 당중앙위원회에 올려보내자고 제의하는것이다.

이처럼 주용녀는 혁명전사로서 수령님앞에 다진 맹세를 어길수 없었으며 자식된 도리로서 또한 그것을 허용할수 없었던것이다.

우리 시대 주인공들의 세계가 아름답고 숭고한 것은 그들이 지닌 충성과 효성의 세계자체가 아름답고 숭고한데도 있지만은 중요하게는 그들이 그러한 충성의 세계, 효자의 세계에 더 높이 올라서기 위해 자신을 부단히 독촉하고 채찍질하고 있는 인간이라는것과 관련되어있다.

우리 문학은 우리 시대 인간들의 이러한 내면적인 세계를 깊이 파고들으로써 자식의 본분과 도리를 다하기 위한 우리 시대 인간들의 아름다운 내면세계를 감동적으로 보여줄수 있었다.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의 주인공 신철민이 우리 시대 주체형의 당일군의 전형으로서 우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있는것은 바로 이러한 내면적인 극을 잘 형상화였기때문이다.

련합기업소의 책임비서인 신철민의 정치사상적 준비와 인간적수양, 일군으로서의 실무적수준은 물론 일반 당원들에 비할바없이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 대하여 만족을 모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바라시는 높이에 자신을 올려세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있는데 형상의 매력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바라시는 그 높이란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다.

특히 복잡한 사회정치생활환경위와 사고로 하여 당책벌까지 당하였으며 생활에 대한 신념마저 상실한 박정호기사에 대한 포섭은 우리 당의 군중로선의 승리인 동시에 신철민이 주체형의 당일군이 지녀야 할 그 높이에 올라섰으며 그가 인간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불타는 뜨거운 심장을 지니게 되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박정호기사에 대한 포섭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으며 그것은 기대와 의혹, 부정과 신임의 복잡한

과정이었다. 이것은 그만큼 신철민자신이 주체형의 당일군의 정치사상적높이에 올라서기 위한 심각한 내적투쟁이 있었다는것을 반증하는것이다.

우리 문학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하면서 수령님에 대한 충성과 효성이 몇몇 주인공들에게만 집중되어 구현되고있는것이 아니고 우리의 평범한 인간들의 사상정신생활과 윤리도덕생활을 지배하고있는 보편화된 사상감정이라는것을 밝히었다.

이것은 80년대 우리 문학이 생활에 대한 사실주의적침투가 강화되었으며 우리 문학의 새로운 미적세계가 그만큼 넓어졌다는것을 말해준다.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의 장범도, 장편소설 《아침해》의 로장권의 형상은 수령님에 대한 충성과 효성이 얼마나 사람들의 생활속깊이 뿌리내리였으며 사람들의 삶의 신념으로, 의지로 되고있는가 하는것을 형상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장범도의 형상적매력은 아들이 아버지를 대하듯 늘 가슴속깊이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생각을 안고있는 사람이라는데 있다.

비록 연공작업반의 고문이며 오랜 당원이기는 하지만은 평범한 노동자에 지나지 않는 그가 전제철소적립장에서 제철소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대하여 사색하며 그 관철을 위해 앞장에 서는것은 이배문이다.

그가 어떻게 수령님에 대한 생각을 가슴속깊이 간직하고있는가 하는것은 자기의 가정을 억년 변심이 없을 충성의 가정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온 가족의 충성심이 언제나 대추나무처럼 쯤들지 않고 깨끗하고 굳세기를 바래여 트랙에 대추나무를 심어놓고 아침저녁으로 바라보게 한데서 표현되고 있다.

로장권은 장범도처럼 오랜 당원이고 숙련된 제관공이되지만은 그와 다른 성격적특징을 가진 인물이다.

로장권의 형상적매력은 긴긴 세월 위대한 수령님을 충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일해왔던 것처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려는 조선로동계급의 신념과 의지의 체현자로 되고있는데 있다.

그렇기때문에 그의 형상은 우리 로동계급의 충성과 신념의 화신으로 되고있는것이다. 그의 이러한 특징은 작품에서 오매에도 그리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뵈옵고 폐광에 처해있는 은물광산을 추켜세울 방도에 대한 물으심을 받고 하는 로장권의 다음의 말에서 그대로 드러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너무 상심해마십시오. 우리 광산이 조선로동당의 하늘아래에 있는데 달리야 되겠습니까. 혁명을 하면서 보니 난관은 언제나 있는것이고 그걸 이겨내면 기쁨이 있고 그렇게 한걸음씩 진군하군하였습니다. 우리 광산일

도 시작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하나 광산을 추켜세우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꼭 모시겠습니다.》

이러한 대답은 조선로동계급과 같은 진짜 충신만이 할수 있는 말이다.

우리 문학은 충실성의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충성과 효성으로써 빛나는 주인공들을 성과적으로 창조함으로써 긍정문학으로서의 우리 문학의 면모를 강화하고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에 더욱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었다.

X X

풍작의 년대로서의 80년대, 우리의 주체문학의 특징은 다양한 주제의 성과적인 작품들이 많이 창작된것이다. 이것은 우리 문학이 관심하고있는 분야가 그만큼 넓어지고 다양해졌으며 우리 조국의 현실과 역사에 대한 우리 작가들의 사색이 깊어졌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다양한 주제가운데서 특히 중요한 주제분야로서 새롭게 제시되고 빛나게 개척된 분야는 조국에 대한 주제이다.

우리 문학에서 조국에 대한 주제가 이처럼 중요한 주제로 제기된것은 그것이 곧 우리 인민의 행복과 삶 자체와 관련된 문제이며 그것을 쫓아우게 한 어머니품에 대한 문제이기때문이다.

어머니품-그것은 곧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품이다.

이것은 우리 문학이 천명한 철학이며 풀어도 풀어도 한이 없는 문학의 세계이다. 그렇기때문에 조국에 대한 주제는 곧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가진 조국에 대한 찬가이다.

서사시 《대동강》(오영재 작), 가사 《우리가 제일일세》(최로사 작), 서정시 《나는 들었네》(로진용 작), 《감격의 그날》(정화흠 작) 등 작품들이 조국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서 각각 작품세계가 다르고 형식도 다르지만 위대한 조국에 대한

례찬으로 되고있는것은 이때문이다.

력사주제의 작품창작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있었다. 력사주제의 작품들이 활발히 창작된것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민족적자부심을 키워주는 중요분야이기때문이다.

《갑오농민전쟁》(2부, 박태원 작), 《높새바람》(상, 홍석중 작), 《김정호》(강학태 작)는 력사물창작에서의 현대성과 력사주의적원칙의 배합, 생활세태묘사와 개성화 등 력사물창작에서 독창성을 발휘한 작품들이다.

80년대는 소설, 시 문학분야만이 아니라 아동문학분야에서도 대풍작, 대성과의 년대였다.

여기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11년제의무교육의 우월성을 생활그대로의 순결성과 발달성, 생동성을 가지고 형상한 중편소설 《1학년생》(김정 작)을 비롯하여 중편동화 《세번째 소원》(김청일 작), 중편소설 《너를 기다린다》(박현 작), 서사시 《새싹이 움틀 때》(림금단 작) 등 작품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우리 작가들의 창작력량의 급격한 장성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80년대는 주체문학의 직접적담당자인 우리 작가들의 축적된 창작력량이 활짝 꽃핀 년대, 다양한 개성과 재능이 개화만발한 년대였고 새로운 창작력량으로 강화된 년대였다.

10년간에 증년들은 로숙한 작가로, 신진들은 중견으로 자랐으며 그리하여 우리 작가부대는 충성의 대부대로 자랐다.

우리는 위훈의 년대, 우리의 주체문학발전력사에서 커다란 자리를 차지하는 80년대를 보내고 승리와 영광으로 빛날 1990년대를 맞이한다.

그전과 마찬가지로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충성과 효성을 다함으로써 1990년대를 반드시 승리와 영광의 년대로, 우리 문학의 대전성기로 되게 할것이다.

## 가을

가을은  
잎새보다 열매가  
두드러지는 계절이더라

가을은  
땅을 가꾼 농민의 걸모습보다  
속마음이 두드러지는 계절이더라

아, 걸발림과 태만을 타만한

농민의 진심과 열정이  
이삭으로 알차게 무르익은 가을!

진정 가을은  
곡식으로 땅의 뜻 받드는  
농민의 참마음이  
그 장한 모습이  
들가득 언덕에 가득 떠실린  
충성의 계절이여라!

## 서진명



## 80년대여, 영원히 너를 잊지 않으리

오영재

새로 입사한 광복거리 새 주택의 웃층 서재에서 나는 지금 80년대에 기록한 창작목록을 들여다보며 한생에서 가장 뜻깊었던 이 년대를 돌이켜보고 있다.

유구하게 흘러가는 력사에서 10년이란 결코 긴 세월이 아니라고 하지만 짧아도 뜻있게 살기를 바라는 시인의 한생에서는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닌것이다. 혁명시인 조기천이 해방직후 《두만강》을 써서 독자들과 첫 상면을 한 그때로부터 전쟁이 가렬하던 50년 초기 자기의 생을 마친 그때까지의 기간이란 5년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그 5년 세월에 시인은 남들이 웅근 한생동안 시를 써도 쌓을수 없는 큰 봉우리를 이루어놓았다.

앞선 시인들이 이렇듯 모범으로 보여준 창작적 공로와 세월을 값있게 산 시인적인 그 열정에 비겨볼 때 내가 산 80년대는 돌이켜볼수록 자책만이 앞서고 이렇다 하게 자신을 위안할 공지도 자부도 크게 없다. 허지만 80년대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잊을수 없는 강렬한 추억을 남긴 년대였다. 이 년대에 로속하고 세련된 우리 당은 온갖 시련과 난관을 물리치고 신심 드높이 혁명의 큰 걸음을 내디디면서 력사에 튼튼없는 일대 번영기를 마련하였다. 이 위대한 력사를 창조해가시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시인들로 하여금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높은 사명감을 자각하도록 언제나 따듯이 깨우쳐주시었으며 당과 조국을 위하여 참담게 복무할수 있는 길을 밝혀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80년대의 거창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시인들이 쓴 작품을 하나하나 보아주시고 세심히 지도하여주시면서 시문학에서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확고히 고수할데 대한 문제, 자연주의, 형식주의, 수정주의 등 온갖 이색적이며 비혁명적인 요소를 철저히 극복하고 창작에서 주체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당정책적요구를 제때에 신속히 반영하는 문제, 작품에서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높이며 철학적이면서도 생활적인 정서가 풍기는 시들을 창작할데 대한 문제,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체험을 깊이하며 작가적인 안목과 창작적인 기량을 높일데 대한 문제 등 우리 시인들이 창작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이 현명한 지침이 있었기때문에 우리 시인들은 80년대 시문학의 화원을 그 어느때보다도 아름답게 장식할수 있

었으며 그속에서 내가 걸어온 10년간의 시인으로서의 생활도 때로는 자랑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뜨거운 추억으로 간직할수 있었던것이다.

X

40대의 고개마루로부터 50대의 고개마루에까지- 이것은 나의 한생의 행로수에 걸쳐진 80년대이며 지금까지의 나의 시창작로정에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세월이다. 작가의 연령으로 볼 때 이 기간이 자기나름으로는 창작의 원숙기라는 그런점도 물론 있겠지만 그 어느 시기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우리 문학운동에 대한 위대한 령도와 사랑을 크게 받으며 작가적인 키를 키워온 그것으로 하여 가장 뜻깊고 보람있는 년대였다.

창작에서의 자신심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것이며 또 상대적인것일수도 있겠지만 나의 경우 이 자신심이란 작가적인 숙련과 그 어떤 기량에서만 오는것이 아니며 그보다도 근본적인 추동력은 당의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을 이 시기처럼 절감한 때는 없었다. 혁명에 복무하는 시인이 자기의 정치적수령으로부터 받아안게 되는 다시말하면 사회라는 거대한 생명체속의 한 성원인 시인이 자기가 속해있는 생명모체의 위대한 어버이로부터 받아안게 되는 그런 사랑과 믿음보다 더 귀중한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이 없이는 제아무리 작가적 능력과 기량이 높다 해도 빛을 낼수 없으며 자유로이 창작의 나래를 펼칠수 없다.

80년대야말로 별로 이렇다할 창작적공로도 쌓지 못한 내가 한 일에 비해서는 너무도 과분한 배려와 은덕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로부터 받아안게 된 가슴뜨거운 년대였다.

1985년에는 작가적인 시야와 안목을 넓히라고 중국을 방문하는 문예총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망라시켜주시었으며 그 다음해인 1986년에는 쏘련방문 조선작가휴양단 성원으로 가족을 데리고 1개월에 걸쳐 쏘련각지를 다니며 관광과 휴양의 날을 보내도록 해주시는 남다른 배려를 돌려주시였고 또 그 다음해엔 창작에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을 돌보라고 서해명승에 특별휴양까지 보내주시었다. 눈물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해같은 이런 사랑 앞에 어찌 그 눈물을 감출수 있으며 량심과 의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찌 이런 믿음 앞에 그것을 다하지 않을수 있을것인가, 이 사랑과 믿음은 나에게 무한한 창작적열정을 불려일으켜주었으며 사색과 환상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그리하여 이 나날에 시문학이 포함하고있는 모든 류형과 양상의 다양한 영역에 나의 창작은 다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결국 생활이 요구하고 생활속에서 제공되는 소재가 그런 형식을 요구하였기때문이다. 그리하여 나의 창작목록에는 시인들이 흔히 쓰는 서정시와 가사만이 아니라 정론시, 담시, 풍자시, 장시, 서사시, 서정서사시, 그 밖의 산문으로 씌여진것까지 기록되게 되었던것이다. 작품주제영역에서도 다양한 생활을 다쳐보려고 하였다.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정치적사변을 시급하게 반영한 시와 당정책적요구를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시들을 비롯하여 극히 생활적인 시들, 말하자면 청춘남녀의 사랑을 노래한 시라든가 사람들의 도덕교양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인간도덕문제를 취급한 시들, 자기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며 명상에 잠기게 되는 시들도 써보았고 반미, 조국통일에 대한 작품도 여러가지 양상을 빌어 비교적 다양하게 시도해보았다. 나의 이러한 노력에는 독자들이 우리 시문학에 대하여 적지 않게 가지고있는 불만과 제기하는 .보다높은 요구를 어느정도나마 해결할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욕망도 있었던것이다. 독자의 목소리란 곧 인민의 목소리이기때문에 작가가 한편의 작품을 세상에 내놓았을 때는 언제나 독자의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늘 우리 작가들을 깨우쳐주고 계시는것처럼 인민이 좋아하면 좋은 작품이며 인민이 싫어하면 좋은 작품으로 되지 못하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물론 독자를 놓고 볼 때에는 그 층이 천층만층이며 매 계층에 따라 그들의 요구가 서로 다를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개별적인 사람의 취미가 작용할수도 있다. 그러나 작가는 달건 쓰건 그 모든 의견들을 들을줄 알아야 하며 그래야 그 많은 의견들을 가지고 종합하고 판단하고 추리하여 정확한 독자의 요구를 포착해낼수 있는것이다.

작가가 한편의 작품을 계획하고 창작할 때 독자들의 이런 요구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그 작품이 출판되어도 독자들의 환영을 받을수 없을것이며 일부 계층의 개별적인 취미에 아부하는 결과에까지 이를수 있다. 독자들이 우리 시문학에 대하여 더 높은 요구를 제기할 때에는 그 원인을 찾아보고 자기의 창작을 놓고 냉혹하게 분석해보면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돌파구를 열어나아가야 할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런 시인적인 자세와 립장에 서지 못하고 독자들이 나의 최근의 시에 대하여 사상성만이 로출되고 생활적인 정서가 깊지 못한데 대하여 비난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안타까와 모대기기만하였지 그것을 극복할 확고한 방도를 찾지 못하고있었다.

그러한 때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시인들의 창작이 저조해진 원인을 로동자, 농민

들 속에 깊이 들어가 성실하게 체험을 하지 않는 데서 찾으시면서 현실체험을 강화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것은 전적으로 내가 모대기며 찾고있던 그 돌파구를 열어주신것이였다.

나는 무산광산련합기업소로 현지체험을 떠나는 렬차안에서 자기가 걸어온 창작 전과정을 총화해보았다. 변변한것은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기억해주고 세월이 지나도 입에 올리고있는 그런 시들은 다 현실속에서 깊이 체험한 감정을 반영한것들이였다. 현실은 작가의 문제이며 사람이 하루 세끼 밥을 먹어야 사는것처럼 작가는 언제나 현실속에서 부단히 영양분을 섭취해야 한다.

작가가 현실을 떠나기만하면 인차 고립무원하고 무력한 존재로 되어버리며 정서의 좁도 말라버리며 사색을 위한 사색의 주관적인 상아탑속에 갇히워 탁상문학을 하게 된다는 이 원론적이며 초보적인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종종 잊어버리고 실행하지 못하는것이 우리 시인들뿐만아니라 나에게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던것이다.

그런 결과 80년대의 나의 창작을 엄격하게 독자들앞에서 총화해본다면 꽃은 많이 피워놓았지만 희한하게 아름다운 꽃은 없고 흙은 많이 모아놓았지만 봉우리를 쌓지 못했던것이다. 이 10년 동안의 나의 창작에서 인민들이 기억해줄것이라고 위안하고 싶은 작품들이 있다면 100여편이 넘는 그 가운데서 겨우 몇편 안되는 서사시, 서정시, 가사일뿐이다.

×

80년대를 돌이켜볼 때 해놓지 못한 일을 두고 가슴 아픈점도 많고 아쉬운것도 많지만 이 나날이야말로 나를 시인으로서는 인간으로서 성장시켜준 의의깊은 년대였다. 그것은 전적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뜨거운 보살핌과 가르치심이 있었기때문이다.

당적인간으로서 부족점이 많았던것으로 하여 한때 나는 극복하기 어려운 생활의 시련도 겪었다. 이 모든것을 료해하시고 한생을 두고 영원히 잊을수 없는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 아픈 자책을 안고 80년대의 문어구에 들어선 나를 따뜻이 안아 당원-시인은 어떻게 한생을 빛나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위대한 삶의 진리를 안겨주시였다. 나는 이 나날에 시대와 혁명이 요구하는 좋은 시를 쓰자면 먼저 자기 자신이 진심으로 우리 혁명을 공감하고 그 어떤 난관앞에서도 동요없이 확고한 혁명적신념을 간직하고 언제나 투쟁속에서 사는 철저한 당적인간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체험으로 느꼈다.

어린 나이에 남반부에서 의용군으로 들어와서 당의 품에 안겨 시인이 되여 자기 창작활동을 벌

려가고있는 한 전사의 성장을 지켜보고계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과분하게도 나를 정  
치활동의 무대에까지 내세워주시었다. 북과 남,  
해외동포작가회의 소집을 위한 예비접촉 북측대  
표단의 한 성원으로 북과 남, 해외동포작가들이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힘을 합쳐 투쟁하며 민족  
문화를 발전시킬데 대한 뜻깊은 회합의 마당에  
세워주시었다. 남조선피뢰들의 방해책동으로 하  
여 고대하던 판문점에서의 상봉은 이루어지지 못  
했지만 대표단활동을 진행하던 그 나날은 내가 정  
치적으로 성장하던 나날이었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그리도 심려하고계시는  
조국통일을 위해 자기 한몸을 기꺼이 바칠 각오  
를 더욱 새롭게 한 계기로 되었다.

참으로 80년대의 후반기는 조국통일을 위한 우  
리 인민들의 열망을 뜨겁게 불태워준 격동적인  
사변들로 련속된 가슴 벅찬 시기였다. 원썬들의  
반동일적, 반대화적 자세로 하여 비록 합의를 보  
지는 못했지만 북과 남파의 여러가지 형태의 접  
촉과 대화, 문익환목사의 방북, 제13차 세계청년  
학생축전에 남조선의 《전대협》대표의 참가, 《백  
두에서 한나까지!》라는 구호를 웨치며 나아가던  
국제평화대행진의 장엄한 행진, 이 행진대성원으로  
참가하여 백두산에서 판문점까지 가는 그 파  
정에 나는 얼마나 통일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망  
을 뜨겁게 목격했으며 일생을 두고 잊을수 없는  
크나큰 충격을 받아안았던가. 이 벅찬 생활을 직  
접 체험하면서 어찌 시인의 심장이 붓을 들지 않  
을수 있겠는가, 한편의 시로 세기를 불태운다는  
시인의 이 흥분, 이 격정은 나에게 젊음을 되살  
려주었으며 시대를 안고 혁명의 발걸음에 불을  
달아주는 시인의 사명감을 더욱 깊이 자각케 하  
면서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그 영예감과 긍지로 가슴을 부풀게 하

였다.

80년대는 력사의 흐름속에서 과거로 흘러가고  
있지만 나에게 이 모든것을 안겨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믿음과 은덕은 세월이 가도 영원히  
가슴속에 남아있을것이다.

이제 맞이할 90년대는 또 얼마나 벅찬 생활을  
나에게 줄것인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나이를 먹고 늙어가는것이 자연의 리치이지만 언  
제나 창작적 의욕과 정열에 넘쳐 살 때 시인은  
로쇠할수 없으며 당이 준 이 심장으로 90년대는  
더욱 왕성하게 창작의 붓을 달려갈것이다.

지금 이 글을 쓰고있는 나의 서재에는 우리 집  
의 가보로 가장 귀중하게 간수하고있는 표창장이  
있다.

80년대의 마지막해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는 과분하게도 나에게 《김일성상》계관인의 영  
예를 안겨주시었다.

시인으로서 이보다 큰 표창, 높은 신임이 어디  
있겠는가,

생각할수록 가슴이 뜨겁고 기어이 보답해야만  
할 전사의 도리로 하여 어깨가 무겁다.

90년대에 첫발을 들여놓으면서 나는 지금까지  
오래도록 소망하여왔고 필생의 과제로 제기하고  
있는 작품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노래하는 서사시를 기어이 최상의것으로 완성하  
여 그이께 충성의 선물로 드림으로써 이 무거운  
어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고싶다. 만들어질  
작품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지 우려도 많고 불  
안도 크지만 욕망은 내가 오늘까지 닦아왔다는  
기량을 다 기울여 대담하고 정력적으로 쓰고 써  
나갈것이다.

80년대여, 영원히 너를 잊지 않으리.

90년대여, 나는 크나큰 희망과 포부를 안고 너  
를 맞으리!

## 수기

# 빛나는 년대와 더불어

## 길락건

우리 조국 력사에 찬연히 빛날 1980년대!

이 빛나는 년대에 우리 조국은 얼마나 멀리 달  
러왔으며 위대한 승리의 상상봉에 높이 올라섰는  
가.

파도 사나운 20리 날바다를 가로막고 서해갑문  
을 일떠세워 세상사람들을 놀래운것도, 순천땅에  
세계굴지의 대비날론섬유기지를 건설한것도, 협  
산준령과 강하를 꿰질러 연연 수백리 북부철길을  
놓은것도 1980년대에 우리 인민이 이룩한 기적

들이다. 어찌 그뿐이랴. 이 자랑스런 년대에 우리는  
1만톤프레스를 만들어 주체공업의 위용을 떨치  
였고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주최함으로써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조선인민의  
일심단결된 모습을 온 세계에 파시하였다.

그렇듯 기적과 사변들로 충만된 이 격동의 십  
년간에 찬란히 개화발전된 문학예술의 대화원속  
에서 우리의 주체적극문학도 자기의 특출한 성과  
를 력사에 기록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5대혁명연극은 당의 연극혁명방침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며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연극예술인들의 헌신적 노력이 가져온 자랑스런 열매입니다.》**

1970년대에는 혁명연극 《성황당》을 세상에 내놓아 연극혁명의 첫 포성을 울렸다면 1980년대는 우리 식의 새로운 혁명연극인 《혈분만국회》, 《딸에게서 온 편지》, 《3인1당》, 《경축대회》를 세계적인 명작으로 련이어 완성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극문학분야에서 이룩된 이와 같은 기적적인 성과는 전적으로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위대한 스승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면불휴의 노력과 정열적인 지도에 의하여 이룩될수 있었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연극혁명의 본보기인 혁명연극 《성황당》을 현시대의 미감에 맞는 새형의 작품으로 완성시켜주시고 그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세계적인 수준에서 고증각색하도록 하는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였다. 이때로부터 우리 극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자애로운 손길을 따라 한걸음한걸음 주체적인 국문학을 체득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나는 지금도 혁명연극 《혈분만국회》를 창조하던 날을 회고할 때면 가슴뜨거운 생각을 금할수 없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혁명연극 《혈분만국회》를 직접 지도해주시기전까지만 해도 우리 작가들과 창작지도일군들은 작품을 원작에 토틈히 기초하여 각색함으로써 력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옳게 구현하였다고 제나름으로 생각하고있었다. 그런만큼 첫 지도를 받는 날까지도 작품의 대라든가 인물들의 성격형상에 대하여 일정한 신심을 가지고있었으며 지어 높은 평가를 받으리라하는것을 믿어의심치 않고있었다.

그러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작품을 보아주시고 그 부족점에 대하여 하나하나 지적해주셨을 때 우리는 자신들의 생각이 얼마나 짧고 어리석었으며 심중한 파오를 범하였는가를 깨닫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우리 창작가들이 범한 사상적파오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과 그 이전시기의 독립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애국투쟁사이의 계선을 명백히 굽지 못하고 그 본질적차이를 깊이 해명하지 못한것이였다. 그러다보니 작품의 주인공인 리준이나 서대감의 형상에서 그들의 애국심만 강조하던나머지 시대와 계급적 제한성을 옳게 형상하지 못함으로써 그들을 마치 민족의 영웅이나 혁명투사처럼 형상하는 결과를 빚어

냈다.

뿐만아니라 주인공 리준이를 가정애 발을 붙이고 안해와 자식들과의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움직이는 산 인간으로 그릴 대신 시대의 사조를 타고 떠다니는 풍류객 처럼 형상함으로써 미학적으로도 심중한 착오를 범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비범한 예지로 작품이 가지고있는 이와같은 심중한 부족점에 대해 명철하게 분석해주시면서 자애깊은 눈길로 우리 창작가들을 돌보시였다.

그러나 우리들은 머리를 들수 없었다.

나라의 귀중한 재보인 혁명연극을 창조하는 과정에 범한 파오도 파오려니와 자신들의 너무나도 낮은 정치적식견과 저조한 미학수준으로 해서 차마 얼굴을 들어 그이를 바라볼수 없는 심정이였다. 그러한 우리 창작가들의 심정을 헤아리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너그러운 웃음을 지으시며 작품에 심중한 결함은 있지만 일없다고,

작품이 90프로는 되었으니 락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면서 그 수정방도를 하나하나 깨우쳐주시였다. 이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력사물주제의 작품창작에서 력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옳게 구현하는 문제, 주인공의 성격형상과 생활묘사, 극구성의 견인력 등 혁명연극창조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강력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리하여 수정완성된 혁명연극 《혈분만국회》는 주인공 리준이가 가정생활애 발을 붙이고 처자와의 관계속에서 기쁨도 있고 눈물도 있는 산 인간으로 되었으며 그의 애국심을 뜨겁고 절절하게 그리면서도 자기 인민의 힘을 보지 못하고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에 국권회복의 기대를 거는 인물로 형상함으로써 시대적 계급적 제한성을 옳게 규정지을수 있게 하였다. 혁명연극의 주인공 리준이 《만국평화회의》장에서 자신이 가졌던 환상이 깨어짐과 동시에 배를 갈라 피를 뿌리며 내 할수만 있다면 저 하늘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볼수 있도록 이 붉은 피로 남의 힘을 믿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글을 새겨놓고싶다고 웨친 그 말속에는 얼마나 심각한 력사의 교훈이 담겨있는것인가!

이처럼 혁명연극 《혈분만국회》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비범하고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세계연극계에 내놓고 당당히 소리칠수 있는 명작으로 완성될수 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지도는 비단 《혈분만국회》에만 한한것이 아니다.

혁명연극 《딸에게서 온 편지》에서는 소재와 내용에 맞는 형식을 선택하는 문제와 우리 시대 경희극의 본질적특성에 대하여 밝혀주시였으며 혁명연극 《3인1당》에서는 력사물주제작품 창작에서 시대감을 옳게 형상하는 문제와 풍자극작품에서 의 절정장면을 말싸움으로 대단원을 이루도

록 하는 문제를 밝혀주시었고 혁명연극 《경축대회》에서는 풍자극작품일수록 생활의 논리에 따르는 정극적요소와 풍자극적요소를 진실하게 결합시키는 문제, 작품에 일관된 양상적통일을 이루도록 하는 문제, 대사구사에서 시대감을 내는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측면에서 우리 식의 주체적극문학이론을 밝혀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또한 혁명연극을 지도해주시는 과정에 우리 작가들이 창작생활 전 과정에 강령적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문제에 대하여 깊이 깨우쳐주시었다. 그것은 매 작품이 제기하는 사회적인 문제성, 사상주체적과제를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해명하도록 하여주시는 것이다. 사실상 주체사상의 심오한 철학적원리를 문학작품에 깊이있게 형상하는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허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혁명연극이 세계적인 명작으로서의 품격을 갖추자면 반드시 주체철학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혁명연극에 그 사상을 훌륭히 구현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던 것이다.

혁명연극 《성황당》에서는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적요구를 반영하여 원작이 가지고있는 그 심오한 사상을 주체철학의 원리에서 찾으시여 자기 자신의 힘을 믿어야 한다는 자주성에 관한 진리를 밝혀주시었으며 혁명연극 《혈분만국회》에서는 아 무리 애국심이 높다고 해도 자기 인민의 힘을 믿지 못하고 남의 힘만 믿다가는 결국 비극적인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되며 나라를 구원할수 없다는 역사적교훈을 통하여 민족자주의식의 참된 진리를 밝혀주시었다.

혁명연극 《딸에게서 온 편지》는 배움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다. 그러나 문맹자란 한사람도 없고 전체 인민이 배우고있는 오늘의 우리 나라에서는 작품의 주제사상을 배움에 대한 문제에만 국한시킬수 없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여기에서도 원작이 제기하고있는 심오한 철학에 기초하시여 사람은 알아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일수 있다는 진리를 밝혀주시었으며 혁명연극 《3인1당》에서는 파쟁은

결국 멸망을 가져온다는 피의 교훈을 통하여 통일단결의 정당성을 실증함으로써 연극을 인민대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결속시키는 힘있는 교양수단으로 되게 하여주시었으며 혁명연극 《경축대회》에서는 원수들이 아무리 수적 기술적 우세를 믿고 호언장담해도 민족자주정신앞에서는 파멸의 희극적종말밖에 가져올수 없다는 참된 진리를 밝혀주시었다.

이처럼 우리 극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지도를 받으며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각색하는 데서는 물론 그 어떤 문학작품을 창작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작품의 사회적문제성과 주제사상적과제를 찾으며 문학의 본성적요구인 인간학의 원리를 해명해야 한다는 확고한 창작원리를 체득할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1980년대는 주체적인 극문학발전의 빛나는 년대였으며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으로 수놓아진 영광의 년대기였다. 오늘 우리는 80년대 령마루에 높이 올라서서 지나온 영광의 년대를 회상에 넘쳐 돌아보며 더 높이 비약할 래일의 드높은 열정으로 가슴을 불태우고있다.

예로부터 훌륭한 스승을 모신 제자들이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힘을 잃지 않았으며 희망찬 노래를 부르며 역세게 전진하였다.

우리 작가들의 위대한 스승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들의 진두에 서시여 빛나는 예지로 앞길 밝히고계시는 한 주체적인 우리 극문학의 앞날은 더없이 전도양양하다.

우리들은 당면하게 조국해방전쟁시기 탁월한 군사전략가로, 강철의 령장으로서의 한없이 고매한 덕성을 소유하신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한 혁명연극을 세계적인 명작으로 창작하며 로동계급을 형상한 작품을 우리 시대의 사상감정을 훌륭히 반영한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으로 완성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최대의 기쁨과 만족을 드리겠다. 그리하여 1980년대에 이룩된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을 1990년대에 더욱 빛내여 나갈것이다.

# 렬사의 후손

백보흠

## 1

누구나 낯선 고장에 오면 대체로 그러하듯 공철규는 호기심에 차서 주변을 두리번리며 청암로동자구의 주택거리를 걸어갔다.

간선철길로 900리, 립철기관차를 타고 백여리, 이렇게 천여리를 거쳐 낯선 립산땅을 찾아온 철규에게는 광대한 천연공원속에 묻힌 주변의 모든 것이 이채롭고 생소하였다. 그는 북부철길건설대 돌격대원으로서 3년세월이나 험준한 산밭과 깊은 계곡을 밟고다니며 립산풍경에도 어지간히 낯을 익혔건만 수림우거진 설령에 둘러막힌 립산도시- 청암땅은 마치 서먹서먹한 이방의 그것처럼 기이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저녁해는 방금 설령밑으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하늘가에 강렬하게 반사되는 락조의 여광으로 하여 주변은 오히려 더 밝아지는 것 같았고 어디라 없이 흰눈이 두텁게 깔린 백설의 도시가 주홍빛으로 불타는 듯했다.

철규는 주택지구를 벗어나서 통나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둔덕길을 돌아오르다가 낡은 통나무귀틀집 한채가 앉아있는 산기슭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기실 그 귀틀집은 청암로동자구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락후한 건물로서 이끼가 퍼렇게 내뿜힌 귀틀벽이며 고삭고 찌그러진 지계문이며 바투 내려붙은 지붕이며가 옛날 화전민이나 처서군들이 쓰고 살던 집을 그대로 남겨둔 것 같았다.

지금 스물한살의 젊은 새 세대인 공철규는 멀리 흘러가버린 화전민생활의 흔적과도 같은 그런 낡은 집을 난생처음 보는 것이었다. 더구나 그를 의문에 잠기게 하는 것은 그 낡고 초라한 옛날의 귀틀집을 이제 그가 만나려고 하는 작가 윤세훈이 현지창작실로 쓰고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렇다. 공철규청년은 윤세훈작가를 만나러 천리길을 거쳐 여기 청암마을을 찾아왔었다. 하지만 방금전까지만 하여도 철규는 윤세훈의 창작실이 이런 오랜 초라한 귀틀집이라고 생각지 못했었다. 이미 50대에 이른 우리 나라의 중견소설가의 한사람인 윤세훈은 바로 그 창작실에서 중편소설 두편과 여러편의 단편소설들을 썼다고 한다.

(어쩌면 저런 통나무귀틀집을 현지창작실로 쓰고있단말인가?)

합각지붕에 유리창문이 번쩍이는 단층주택과 고층살림집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있는 청암로동자구에 집이 모자라서 저런 귀틀집을 현지창작실로 쓰고있는것은 물론 아닐것이다.

공철규는 혹시 작가의 현지창작실을 잘못 찾아오지 않았는가 싶어 선뜻 주인을 부르지 못하고 귀틀집앞에서 서성거리었다. 그가 윤세훈작가를 찾아온 까닭은 50여년전에 사망한 할아버지의 과거경력을 작가에게 정확히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급히 제기되어서였다.

철규의 할아버지는 1937년 봄에 혁명투쟁을 하다가 장렬하게 희생된 혁명렬사였다. 그러나 여태 그것은 공철규네 가족밖에는 누구도 모르는, 이를테면 공철규일가가 비밀을 지켜온 것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마적에 윤세훈작가가 공철규 할아버지에 대한 글을 써서 세상에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로 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철규가 아버지를 통해 알고있는 할아버지의 사망날자와 작가가 쓴 할아버지의 사망날자에 너무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수백만, 아니 수천만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가의 글에 털끝만한 거짓(비록 그것이 본의가 아닐지라도)이라도 있어서야 되겠는가. 더구나 작가는 량심의 대변자라고 하지 않는가. 빨리 작가를 찾아가서 잘못된 글을 고치게 하여 독자들에게 보다 진실하고 정확한것을 알려주게 해야 한다.

이러한 공민적량심과 작가를 도와주고싶은 충동으로부터 철규는 것처럼 먼길을 허위단심 찾아온 것이었다.

귀틀집앞에서 서성거리고있던 철규는 문득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다. 검은 솜외투를 입은 선대여섯살났음직한 중늙은이가 매생이같은 군용동화를 시적시적 끌면서 귀틀집뒤로 곧추 뻗은 물매진 발구질을 내려오고있었다. 그 사람은 철규와의 거리가 가까와지자 발걸음을 늦추더니 창백하고 주름살이 많은 얼굴에 의아한 빛을 띠었다.

《어디서 온 동무요?... 윤세훈선생을 찾아왔소?》

《그렇습니다. 이 집이 그 작가선생의 현지창작실이 옳습니까?》

철규는 어쩐지 아직도 자기가 잘못 찾아온것 같은 생각에 귀틀집을 뜨아히 지켜보았다.

《그렇소. 그 선생의 창작실이요. 어디 먼데서 온 모양이구만…소설을 써가지고 왔소?》

그 사람은 철규의 손에 쥐여져있는 푸른 뚜껑의 잡지책을 던지시 스쳐보았다. 그는 아마도 공철규를 소설공부에 정열을 쏟는 문학통신원청년으로 생각하는것 같았다.

《나역시 작가선생을 만나러 외지에서 온 사람인데 선생이 안계신다누만… 한 열흘 지나서야 오실것 같다니 돌아가야 될가보오.》

《안계신답니까?》 철규는 그만 실망하여 맥없이 중얼거리고 그 사람에게 물었다.

《아바인 어디서 오셨습니까?》

《나는 7혁명사적관 연구원이요… 사적연구와 관련해서 난 자주 윤선생의 방조를 받는다오.》

연구원은 시계를 들여다보고 천천히 둔덕길을 내려갔다. 철규도 역시 바쁜 시간을 타서 일껏 먼길을 서둘러 왔했으나 어차피 돌아갈수밖에 없었다. 햇물을 켜고 돌아가는듯한 아쉬움과 허전함으로 하여 그는 내키지 않은 걸음으로 연구원을 따라가며 말을 걸었다.

《그런데 작가선생은 왜 저런 낡은집을 창작실로 쓰고있을까요? 좋은 집들이 많은데…》

철규의 물음에 연구원은 문득 걸음을 멈추더니 의외로운듯이 눈을 치떴다.

《아니, 소설을 공부하는 문학통신원이 그걸 리해하지 못한단말요?》

공철규도 어정쩡히 서버렸다. 마치 웅당 알아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있는가싶어 얼굴이 불깃해 졌다.

《바로 작가가기때문에 저런 집을 창작실로 쓰지… 고골볼에 그슬린 저 화전농가에서 우리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과거에 겪은 슬픔과 고통을 몸으로 느껴보면서 인간생활을 연구한단말요. 사람들에게 인생의 집을 지어준데서 작가(집을 만든 다는 뜻에서)라고 하지 않소. 참다운 인생의 집을 짓자면 저런 집에서 체험을 해봐야 하거든.》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1950년대까지만 하여도 청암지구에는 집이 다섯채밖에 없었는데 저 귀틀집은 산림탐사대원들을 비롯하여 약초채집자, 산포수, 지질조사원 등 산과 인연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의 림시거처지로 리용되어오다가 1976년부터 윤세훈작가의 현지창작실로 고정되었다는것이다. 그러고보면 저 초라한 귀틀집이 모체로 되어 오늘의 변화장성한 청암로동자구가 생겨났는지 몰랐다. 어쨌든 철규는 오두막같은 청암의 옛집을 창작실로 쓰는데는 보다 고상한 목적과 의미심장한 사연이 있을것이라 생각하며 새삼스레 귀틀집을 돌아다보았다.

청암마을을 붉게 비치던 락조의 여광은 어느새 스러지고 음침한 회색 땅거미가 귀틀집마당으로 소리없이 기여들고있었다.

(나의 할아버지에 대한 글도 바로 저 집에서 쓰지 않았을까?) 하고 공철규는 생각하면서 무겁게 발을 떼었다.

## 2

혁명사적관 연구원은 제가 들어있던 러관방으로 철규를 안내하고나서 림산간부들과 작별인사를 하러나갔다. 마침 러관방은 비어있어서 무료할 정도로 호젓하였다.

(작가선생이 어디로 갔을까? 멀지 않은곳이려면 내친김에 거기로 찾아가는게 어떨가?)

어쩐지 철규는 조급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한편 돌아가신 할아버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이 뜨겁게 젖어들었다.

철규는 할아버지가 사망된 때로부터 31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청년이었다. 할아버지의 사망날자와 손자의 출생날자사이에 그처럼 많은 세월이 격세되어있는 탓이었던지 몇년전만 하여도 공철규에게 있어서 할아버지의 과거생활은 전혀 관심밖에 있는것이였다.

그러던것이 3년전 어느 봄날에 아버지에게서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때로부터 할아버지란 말은 그의 생활에서 가장 큰 의의를 부여하는 한시도 잊을수 없는것으로 되였었다.

철규는 러관방 천정을 물끄러미 올려다보면서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무던히도 놀랐던 3년전 봄날을 회상해보았다.

《철규야, 이젠 네나이 열일곱살이지? 그만하면 이젠 너도 철이 다 들었으니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어야 될가부다.》 하고 그때 아버지는 새삼스레 철규의 나이를 외우면서 추연히 창밖을 내다보았었다.

그날은 유난히도 따뜻한 날씨였다. 창문으로 비쳐드는 햇빛은 요람속 아기를 다독여주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부드럽고 따스했다. 그 살뜰한 자연의 애무가 겨우내 쌓이고 얼어붙었던 눈과 얼음을 녹여내는지 창밖에서는 봄시위물소리가 소연했다. 봄을 맞이하는 열렬한 환성파도 같은 눈썹이물소리가 아버지에게 그 무슨 깊은 회억을 자아내는듯싶었다.

《네 할아버지는 내가 여덟살나던해에 돌아가셨다. 무송시가지에서 조금 떨어진 장가골이란곳에서 김득진이라는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공작원파련계를 가지고 혁명투쟁을 하다가 돌아가셨다. 바로 오늘처럼 햇빛이 따스한 봄날에 할아버지는 적들에게 체포되었는데 비밀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자결하였다. 그후에 우리는 조선으로 나왔지.》

이 뜻밖의 말을 듣는 순간 철규는 너무도 의외로와 눈을 홑뜨쳐 이윽도록 아버지를 지켜보았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혁명가였단말인가? 그런데 왜 이제야 그 말을 해주는것인가?

철규는 조국광복을 위하여 투쟁한 혁명가들을 우리 인민들이 얼마나 존경하고있는가를 잘 알고 있었다. 유격대의 집을 몇번 날라준 일이 있어도 사람들은 그런 이들을 혁명가 방조자로 존경해마지 않으며 지어 그들의 자식들에 대해서까지 우대해주기를 아끼지 않는다. 철규는 그것을 응당한 일로 생각했으며 그때문에 이제 와서야 할아버지의 말을 들려주는 아버지의 처사가 잘 리해되지 않았던것이다.

아버지는 회억에 잠긴채 이야기를 계속했다. 《어렸을 때 일이라 나도 네 할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희미하다만 할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할아버지가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싸운 혁명가였다면서 나라가 독립되면 김득진이란분을 찾아보라고 하셨다. <아마 그분을 찾으려면 네 아버지의 시신이 어디에 묻혔는지도 알수 있을지 모른다. 허나 지금은 네 아버지가 혁명가였다는걸 알면 왜놈들이 행패질을 할수 있을테니 누구에게도 아버지 말을 해선 안된다.> 하고 유언을 하고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할머니마저 돌아가신후 아버지는 혈혈단신의 고아가 되어 광산에서 소년로동을 하다가 열다섯살에 해방을 맞이하였다. 아버지는 그때부터 할머니의 유언대로 할아버지의 낡은 독사진 한장을 품에 간수하고 다니며 김득진이란 사람을 찾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철규의 아버지지는 평양에도 여러층 올라가서 항일혁명투사들까지 만나보았으나 그들속에는 공왈빈(철규 할아버지의 이름)이나 김득진의 이름을 알고있는 사람이 없었다.

공왈빈! 할아버지의 이름은 그렇게 특이했고 누렇게 색이 바래진 사진속의 얼굴 역시 불거져 나온 광대뼈며 데굴데굴한 눈이며 한번 보면 누구나 인상깊게 새겨넣을수 있는 얼굴이었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모르겠다고 도리질을 하였다.

철규 아버지는 그렇게 1년 세월을 허송하였다. 그러느라니 그는 공부도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그때까지도 조선글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는 문맹자로 값없이 남부끄럽게 지냈었다.

《나는 열일곱살나는 해에야 아버지를 찾는데만 음하고 공부도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장래를 망칠수 있다고 채심하게 됐다. 그리구 내가 정말 효성이 있는 아들이라면 아버지처럼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건국사업에 한몸을 바쳐야 된다고 생각했지.》

철규 아버지는 그때부터 일을 성실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40년의 세월이 흘러온 오늘까지 할아버지의 투쟁경력에 대한 말을 집안사람들밖에는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다. 그렇듯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버지가 김득진을 찾아다니던 일마저

주변 사람들의 기억에서 아예 지워지고말았다.

《나는 그 시절을 돌이켜보고 열일곱살만 먹으면 대체로 철이 든다고 생각되어 너의 누이들에게도 열일곱살이 잡힌 다음에야 할아버지 얘길 하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해주는것은 <우리 할아버지가 혁명가요!> 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래서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넋을 이어 어버이수령님께와 조선혁명에 충실하기를 바라서이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제3자의 보증을 받을수 없는 할아버지의 투쟁경력을 그 자손들이 외우며 다니는것은 매우 가소로운 일이라고 하며 밖에 나가서는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고 엄격히 타일렀다.

철규 어머니도 그의 손우 누이들도 아버지의 결국한 뜻을 명심하고 일체 할아버지에 대한 자랑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그것은 결국 그들 일가의 엄격한 비밀로 된것이였다.

지난 3년세월, 힘들고 어려운 철길건설에서 철규에게는 피와 살을 나눌수 있는 많은 벗들이 생겼다. 로동속에서 뜨거운 우정을 맺은, 혈육처럼 다정하고 친근하고 그리고 자기자신처럼 미더운 친구들에게 무슨 말을 못하며 무엇을 속이라만 오직 할아버지에 대한 비밀만은 숨기였었다.

기실 공철규는 나라를 위해 한몸을 바친 할아버지의 고결한 넋을 이으면 그만이지 할아버지의 투쟁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며 다니거나 혁명투사 자녀로서의 존대를 받아볼 마음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던 그가 바로 며칠전에 우연히도 윤세훈의 단편소설에서 공왈빈이라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발견하게 된것이였다.

### 3

할아버지에 대한 철규의 번거로운 생각은 사적관 연구원이 나타나자 문득 끊어졌다.

연구원은 러관방에 들어서자바람으로 림철차시간이 박두했다면서 떠날 차비를 서둘렀다.

《그런데 윤선생님이 어디로 가셨답니까?》

철규는 웬간하면 윤세훈작가가 간곳으로 찾아가 볼 작정으로 물었다.

《백두산밀영쪽으로 갔다오. 새로 발굴된 구호목들을 보려고...》

《예?! 구호목들을 보시려고요?》

철규는 부지중 부르짖으며 벌떡 일어섰다. 한것은 할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는 윤세훈의 소설이 바로 구호목과 관련된 이야기였기때문이다. 그랬으나 연구원은 철규의 부르짖음을 그 어떤 실망의 어조로 느꼈던지 동정하듯 말하였다.

《어찌겠소. 일이 그렇게 되걸... 소설습작한게 있으면 여기 누구한테 말기고 가지. 윤선생은 로



동속에서 창작된 문학통신원들의 작품을 대단히 귀중히 여기는분이니 말기고 가면 후에 서면으로라도 착실히 지도해줄게요.》

철규는 고개를 수긏하고 덤덤히 서있었다. 그는 작가를 찾아온 용건을 연구원에게 선뜻 말하게 되지 않았다. 하긴 그것이 얼마나 신중히 엄수되어 온 가족의 비밀인가. 모든것이 명백히 확인되기전에는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여전히 철규의 머리를 엄격히 지배하고있었다.

《그런데 동문 참 어디서 왔소?》

《저는 북부철길 건설장에 있습니다.》

《북부철길 건설장? 응 그렇소?》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바닥에 놓여있는 철규의 잡지책을 내려다보더니 말을 이었다.

《북부철길에 있으면 아주 좋은 소설을 썼겠소.

거긴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지... 나도 소설을 좋아하오. 좋은 소설을 읽으면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되고 힘을 얻게 된단말요. 허허허...》

연구원은 창백한 얼굴에 무수한 주름살을 지으며 소리내어 웃었으나 공철규는 여전히 심각한 표정을 짓고 서있었다.

마침 이때 배고동소리같은 은근하고 부드러운 림철기관차의 기적소리가 들려왔다. 연구원은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린듯 시계를 들여다보며 다시 서둘렀다.

《차시간이 돼서 그럼 난 가봐야겠소. ... 참 동무도 같이 가지 않겠소? 나도 동무네 북부철길을 타고 후창쪽으로 가야 하오.》

《갑시다.》 하고 철규는 방바닥에 놓여있는 잡지책을 집어 들고 러판방을 나섰다. 그는 백두산 밀영쪽으로 갈것인지 아니면 자기네 본부가 있는 작업현장으로 돌아갈것인지 딱히 마음을 질정하지 못한채 총총히 림철역으로 걸어갔다.

림철기관차는 마치 그들을 기다리고나 있었던 듯 이 두사람이 객차에 뛰어오르자 기적을 울리며 천천히 자국을 떴었다.

## 4

날은 벌써 어두워졌다.

림철차는 오토기처럼 좌우로 까불면서 어둠에 묻힌 협곡을 누비어나갔다.

병약하고 로쇠한 연구원은 여라문명의 손님들이 앉아있는 자그마한 림철객차 한쪽구석에 자리를 잡더니 소금에 절인 파처럼 나른히 몸을 늘어뜨린채 세상모르고 코를 골았다. 그러나 청암에 왔다가 당일로 되짚어돌아가는 철규는 오히려 정신이 새록새록해 앉아있었다. 혈기왕성한 젊음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는 윤세훈의 소설을 읽고 여기로 오는 련이틀동안 흥분과 걱정때문에 토끼잠을 몇번 잤을뿐 내내 뜬눈으로 밤을 보냈었다.

그는 지금 도 무릎에 놓인 푸른투쟁의 잡지를 어루만지며 할아버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을 설레이고있었다. 그 푸른 투쟁의 잡지에 철규를 놀래우고 격동시키고 그리고 깊은 사색의 심연속으로 끌어들인 윤세훈작가의 단편소설이 실려있는것이다.

공철규가 윤세훈의 소설에서 할아버지의 이름을 발견하게 된 뜻밖의 기적은 이틀전 평성역 도서열람실에서 생겨난것이었다. 련대참모부의 지시에 의해 과학원에 가서 기술문헌들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던 철규는 평성역 도서열람실에서 차시간을 기다리는동안에 우연히 윤세훈의 소설을 읽게 되었던것이다.

《잊을수 없는 렬사》라는 제목에 마음이 끌려 글을 읽기 시작한 철규는 대번에 눈이 둥그래졌었다.

《우리 나라 북부지대에서 많은 구호목들이 발굴되고있다는 소식을 들은 때로부터 나의 머리속에는 20여년전에 어느 한 항일혁명투사에게서 들은 공활빈렬사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갈마든다.》

소설의 첫 문장이 바로 이렇게 되어있었기때문에 공철규는 자기 눈을 의심하면서 여러번이나 그것을 곱씹어 읽어보았다. 3년세월 철규의 머리속에서 한시도 잊혀지지 않던 할아버지의 이름, 자기네 가족들밖에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모르고있다고 생각한 혁명투사로서의 할아버지의 이름이 소설의 첫 문장부터 나오고있으니 놀라지 않을수 없는것이였다.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만난듯 기쁘기도 했고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억해져 눈물도 나왔다. 그랬으나 점차 소설을 읽어가는 과정에 공철규는 의혹을 느끼게 되었다. 소설에 나오는 공활빈은 틀림없는 할아버지였으나 그의 생존활동시기와는 전혀 인연이 없는 1940년대초 국내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있기때문이었다.

공철규에게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소설의 마지막 한절은 이렇게 되어있었다.

...조선북부지구의 울창한 원시림속을 걸어가던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공작원 김석민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어디선가 피비린내가 풍겨와서였다.

그는 한참 주변을 두리번거리던끝에 붉은피가 즐비한 풀숲을 발견하게 되었다. 거기에 낫선 젊은이가 하나가 쓰러져있었다. 흥중에 깊은 상처를 입고 인사불성이 된 젊은이는 눈을 감은채 가쁜 숨을 쉬고있었다. 그 숨결은 림종의 시각을 재촉하는듯 점점 거칠어졌고 피에 젖은 가슴은 동안 뜨게 그리고 불규칙하게 오르내리었다.

석민은 서둘러 젊은이를 무릎에 안아서 팔다리를 주물러보고 미간을 비벼보고 잦은 애를 다 썼으나 젊은이는 인차 숨을 거두었다. 바라보니 이제 인생의 한창시절인 서른안팠의 꽃다운 젊은이

였다.

석민은 피자박이 된 젊은이의 품속을 뒤져보았다. 《조국광복회 10대 강령》을 등사한 종이 한장, 손칼, 먹조각 그리고 조그마한 손거울 하나가 그의 지참품의 전부였다. 손칼과 먹조각을 보는 순간 석민은 번개처럼 떠오르는 예감에 고개를 쳐들고 주변의 나무들을 살펴보았다. 바로 몇발자국 앞, 방금 꺾질을 벗긴 이깔나무등어리에 《전민일심 김대장 받들고 일제와 싸우자!》라는 구호가 써여져있었다. 미상불 그것은 젊은이가 얼마전에 이 손칼로 나무껍질을 벗기고 먹조각에 물을 주저서 쓴 구호일것이다.

《아, 내가 다문 한시간이라도 먼저 이자리에 왔던들 동무의 이름이라도 알아둘수 있지 않았겠는가!》

석민은 마치도 오랜세월 혈전의 길을 같이 걸어온 막역한 전우의 마지막 운명을 목격하는듯 가슴이 저려났다. 그는 가장자리에 빨간띠를 두른 렬사의 동그란 손거울을 생각깊이 들여다보다가 흠칫 놀라며 눈을 치떴다. 한것은 거울뒤면에 《공왈 빈, 동예숙 결혼축. 1930. 3. 23》이라는 글이 두줄로 부각되어있었기때문이었다.

(이 젊은이의 이름이 공왈빈인가 아닌가?)하고 석민은 생각하면서 거울뒤면에 부각한 이름들을 오래도록 여겨보았다. 아마도 이 혁명렬사는 벼들에게서 받은 소박한 결혼선물인 그 맑은 거울에 자기의 마음을 비쳐보며 혁명의 길을 걸어온 듯싶었다.

김석민은 구호목옆에 공왈빈을 묻고나서 영결의 눈물을 흘리며 무덤뒤에 서있는 이깔나무에 이렇게 먹글을 새겼다.

《공왈빈 동무! 고이 잠들라! 그대를 여기에 묻고 떠나는 이 마음 절통하다. 천백배로 복수하리라.》

이날은 1940년 8월 23일이었다.

석민은 그날 혁명렬사의 무덤앞에 오래 머물러 있을수 없었다. 그에게도 분초가 바쁜 공작임무가 있었기때문이었다.

그날부터 1948년까지 석민에게는 공왈빈의 무덤을 찾아볼 기회가 생기지 않았다. 해방을 며칠 앞둔 어느날 그는 전투에서 치명상을 입고 2년 8개월동안 병원생활을 했던것이다. 퇴원후에 그는 자기가 손수 묻은 렬사의 무덤과 구호목을 찾으려고 여러번 시도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못하였다. 그전날에 머리속에 깊이 새겨두고 지나간 잊을수 없는 그 장소가 어디였던지 도저히 알수가 없었던것이다.

하기는 지형도도 없이 총총히 다니던 길없는 숲속, 끝간데 없는 아득한 천리수해 일점에 묻어놓은 렬사의 분묘를 찾아내기란 결코 험치 않은 것이었다.

석민은 공왈빈의 가족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원체 항일혁명투사와 국내지하조직원들중에 공왈빈이란 이름을 알고있는이가 없는것으로 보아 십중팔구 공왈빈은 자기의 본이름을 숨기고 어떤 다른 익명을 가지고 혁명투쟁을 해왔던것 같았다.

석민이 자신이 원래의 이름은 김용기였으나 지하혁명을 시작하면서부터 김석민이라는 이름을 썼었다.

거의 모든 정치공작원들이 그랬었다.

렬사의 분묘도 가족도 고향도 알아내지 못한채 세월을 흘러보내는 자신의 불민함을 두고 석민은 탄식하다가 1971년에 상처의 후파로 5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하여 공왈빈의 무덤을 찾기는 더 어려워졌다.

아, 이제는 렬사의 분묘가 바람에 닳고 물에 깎이여 평지로 되었으리라! 근 50년전에 썼던 나무 줄기의 구호도 비문도 세월의 눈비를 맞아 지워졌으리라!

오로지 조국광복을 위하여 혹은 총탄이 비발치는 사선을 넘고 혹은 얇은 살얼음길같은 지하투쟁의 위태로운 길을 걸어온 우리의 선렬들중에는 그러한 이름없는 렬사가 비단 한두명이 아닌것이다. 그들은 비록 산중의 무주고혼이 될지라도 혁명의 리익에 보탬이 된다면 그저그만이라고 생각한 사람이었기에 마지막 숨지는 시각에 심산속 나무에 구호를 쓰면서도 혁명조직의 안전을 위해 자기 이름을 적지 않은것이 아닐가.

그래서 오늘도 구호목들이 수없이 발굴되고있으나 그것을 쓴 혁명투사들의 이름은 보지 못하는지 모른다.

독자들이여! 피어린 항일전의 나날에 써여진 구호나무들을 볼 때마다 마지막 숨지는 시각에도 김장군 받들고 일제와 싸우라고 호소한 공왈빈이와 같은 충직한 렬사들을 생각하자!...

윤세훈의 소설은 이렇게 끝났다. 공철규로 하여금 눈물없이 읽을수 없게 한 그 기이한 글은 무엇을 말해주고있었던가?

공철규는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이 죄다 실재한 인물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거울뒤에 부각된 이름들은 틀림없는 공철규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였다. 그러나 김석민이가 1940년 8월에 조선북부 지구 수립속에 묻은 그 혁명렬사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그 어떤 다른 사람이였다. 왜냐면 그의 할아버지 공왈빈은 분명 1937년봄에 무송지구에서 사망되었기때문이었다.

공철규의 량심은 세상에 잘못 알려진 이 사실을 그대로 묵인할수가 없었다.

(그 어떤 다른 사람의 장렬한 최후를 나의 할아버지의것으로 세상이 알게 되고 또 그렇게 후세에 전해진다면 그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이겠는가!)

하여 공철규는 5일동안 휴가를 받도록 본부에

전보를 치고 급기야 청암을 찾아왔던 것이다.

림철기관차는 여전히 좌우로 대쪽거리며 밤길을 달리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작가선생을 직접 만날 것인가 아니면 돌아가서 편지를 쓸 것인가.)

공철규는 긴숨을 내쉬며 차창에 얼굴을 돌리었다. 어둠에 가리워진 차창은 흥분에 뜬 철규의 얼굴을 거울처럼 비쳐주고있었다. 혁명사적관 연구원은 여전히 노그라진채 코를 끌고있었다.

## 5

철규는 려행길에서 새날을 맞았다.

눈덮인 산마루에 떠오른 황금의 쟁반같은 아침 해를 마주하듯 려차는 새로 건설한 북부철길을 기운차게 달리었다.

혁명사적관 연구원은 이미 잠에서 깨어났으나 웬일인지 철규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생각에 잠긴 눈으로 차창밖을 내다보았다.

철규 또한 자신의 구슬땀이 솟배인 북부철길에 들어서자 더욱 생각이 깊어졌다. 언뜻언뜻 차창으로 지나가는 백설의 산악과 깎아지른 벼랑과 얼어붙은 강관들을 바라보느라니 어렵고 힘들었던, 그러나 끝없이 보람찼던 철길건설의 나날들이 가슴 찢릿하게 추억되는 것이었다.

청춘의 희노애락이 깃들어있는 사연많은 일터들이 너무도 빠르게 화살처럼 지나가고있었다. 철길이 굽이져 돌아간 저쪽, 골개울을 건너간 철길다리가 바라보이자 철규는 차창가에 더 바투 다가앉았다.

일년전 한겨울, 저 깊은 골개울에 철길다리를 건설할 때 철규는 수없이 많은 밤을 패웠고 날마다 얼음구멍에 들어가서 어깨로 나무통을 떠받들며 어려운 전투를 했었다. 얼음구멍에서 사지가 굳어지고 력이 덜덜 떨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도 처녀들이 지퍼놓은 우등불알에 와서 동무들과 함께 우정의 노래를 부르면 피로와 추위가 한순간에 가뭇없이 사라지던 보람찬 로동이었다.

그때 철규는 다리건설을 두달이나 앞당겨 완공할수 있도록 창의고안을 하여 동무들로부터 《교량박사》의 칭호를 받았고 신문에도 소개되었었다.

그렇게도 잊을수 없는 나날을 보낸, 그의 인생행로의 자랑스러운 한 지점인 철길다리도 순식간에 지나가버렸다.

려객들은 청년돌격대원들의 수개월동안의 땀이 솟배여있는 철길다리를 미처 내다보지도 못한것 같았다. 하나 려객들은 결코 차창밖을 무심히 보지 않고있었다.

《참, 철길건설대원들이 수골했겠수다. 이런 험한 길에 철길을 놓자니 조련했겠소.》

공철규와 마주앉은 예순살나이의 늙은 녀인이

혀를 찼다. 그러자 그때까지 전혀 말이 없던 혁명사적관 연구원이 명상에서 깨어난듯 철규를 돌아보았다.

《아닌게 아니라 동무네들이 수골했소... 나는 근 이십년동안 여기 북부내륙지대를 다니며 사적발굴사업을 했기때문에 지금 더욱 감회가 깊소.》

연구원은 또다시 한동안 명상에 잠겨 차창밖을 내다보고나서 말을 이었다.

《동무네들이 이 철길을 놓기전엔 나는 주로 걸어다녔지. 지금 려차가 달리고있는 이 주변일대가 그 옛날 김형직선생님과 김형권선생님께서 자주 다니신곳이요. 그리고 1936년도부터는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공작원과 조국광복회조직원들이 수없이 이 지대를 걸어다녔소. 동무들은 선렬들이 걸어간 그 길에 철길을 놓았소.》

철규는 가슴이 뿌듯해졌다. 연구원은 느리고 조용하게 그리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하고있었으나 철규는 어떤 격동적인 웅변을 듣는것 같은 기분이였다. 다른 려객들도 저으기 엄숙해지면서 연구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였다.

혁명사적관 연구원은 북부철길이 지나간 여기 자드락길을 지난기간 수없이 밟고다니는 과정에 민족력사의 재보로 될 혁명사적들을 많이 발굴하였을뿐아니라 세상에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훌륭한 혁명가들을 여러명 찾아냈다고 하였다.

《내가 사적발굴사업을 하면서 강하게 느낀것은 해방전 우리의 혁명가들은 한결같이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고 일신의 명예에 대해선 티끌만치도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것입니다. 그전날 만주에서 옥중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어 조선으로 나온 어떤 혁명가는 세상을 떠나는 림종의 시각에까지도 혁명투쟁을 한 자신의 자랑스러운 경력을 자식들에게 숨기고 아버지수령님께 충성을 다하라는 오직 하나의 유언만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런 사람들이였지요.》

차창밖을 내다보는 연구원의 우묵한 눈에는 감동의 빛이 짙게 어려있었다. 려객들도 혁명가들의 깨끗한 량심에 대한 경의감으로 술렁대었다. 누구인가 고개를 끄덕이며 《하긴 요즘 발굴되는 구호목들만 봐도 그들의 정신세계를 력력히 들여다볼수 있지요.》하고 연구원의 말에 동을 달았다.

공철규는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을 받으면서 문득 마음속으로 소설에서 읽은 혁명렬사가 쓴 구호 《전민일심 김대장 받들고 일제와 싸우자》를 외워보았다.

《지난해에는 이런 일도 있었지요.》하고 연구원은 말하였다. 《1936년부터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공작원과 련계를 가지고 혁명투쟁을 하다가 희생된 사람의 자손들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투쟁경력을 알고있었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지냈던것입니다.》

공철규는 부지중 눈을 치뜨며 고개를 번쩍 쳐

들었다. 그의 얼굴은 웬일인지 불시에 창백해졌다가 점차 붉게 달아올랐다. 어쩌면 자기 일가와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는것만 같아 무중 강한 충격을 받았던것이다.

그러나 물론 그것은 다른 사람, 다른 가족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렇다. 나도 그래야 한다. 작가선생앞에서도 할아버지의 희생적인 최후에 대해선 말할 필요가 없다.)

공철규는 의자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지그시 눈을 감았다.

## 6

그날 철규는 본부로 돌아와서도 소설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다. 그는 동무들이 군잠에 든 깊은 밤에 이불속에 엎드려 손전지를 켜놓고 윤세훈작가와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윤세훈작가에게는 서두에 인사말을 몇자 적고는 그저 간단히 이렇게 썼다.

...김석민동지가 1940년 8월에 조선북부지구 수림속에 묻은 그 혁명렬사는 공왈빈이가 아닙니다. 공왈빈은 저의 할아버지인데 1937년 4월에 무송지구에서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저 평범한 농군이였지요. 그러나 혁명렬사의 품에서 나온 손 거울뒤면에 부각된 공왈빈, 동예숙이란 이름은 분명 저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름입니다. 어떻게 되어 그런 거울이 그 사람의 품에서 나오게 됐는지는 저도 알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련상되는것은 저의 할아버지의 친구들중에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공작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김득진입니다. 혹시 그 혁명렬사가 김득진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본의아니게 진실을 외곡하여 지성과 량심의 대변자인 작가의 명예에 손상을 주게 될것이 두려워 이렇게 서둘러 사실을 전하는 바입니다.

정말이지 이름없이 돌아간 그 훌륭한 무명렬사의 장렬한 최후가 할아버지의것으로 오도된것을 보고는 잠시도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나자 철규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뒤이어 아버지에게 쓴 편지는 백지 너장을 가득채웠다. 작가에게 편지를 쓰게 된 사연을 말하느라 길어진것 같았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명심하고 작가선생에게도 할아버지의 투쟁경력을 숨기고 그저 평범한 농군으로서 병으로 사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하는 글을 쓸 때에는 무엇때문인지 모르게 눈앞이 자꾸 흐려와서 여러번 눈곱을 훔치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할아버지의 투쟁경력이 영원히 묻히게 된다는 아쉬움에서 나오는 비감의 눈물이 아니라 훌륭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가지고있다는

궁지감에서 솟아나는 기쁨의 그 무엇이었다.

철규는 윤세훈작가와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를 책갈피에 끼워넣었다가 이튿날 점심녁에 봉투를 만들어 믿음성있게 등기로 부치었다.

그로부터 십여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더니 어느날 중남때 문득 손님 한분이 찾아왔다. 겨울철 백두산답사행군대원들처럼 보위색숨옷에 숨신을 신고 굵직한 검은테안경을 낀 신살안팎의 수척한 사나이가 증대장사무실에서 철규를 기다리고있었다.

《응, 동무가 공철규동무요?》 그 사람은 철규가 들어서자 바른손으로 안경을 추어올리며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렇습니다. 공철규입니다.》

《음, 동무로구만... 내가 윤세훈이요.》

《아, 그렇습니까?...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하고 공철규는 침착하게 뇌이며 깎듯이 절을 하였으나 가슴속에서는 견줄수 없는 흥분의 파도가 일어났다.

윤세훈은 잠시 아무 말도 없이 천천히 방안을 거닐면서 안경너머로 철규의 얼굴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 의미심장한 눈빛에 철규는 갑자기 온몸이 굳어지는듯했다.

인간의 심리를 투시경처럼 꿰뚫어본다는 작가의 눈, 한점의 파거의 흔적을 보고도 인간의 역사를 복원하고 그들의 인생을 알아낸다는 작가의 비상한 상상력...저 작가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있기에 나를 저렇게 뚫어지게 지켜보는것일까? 어쩌서 저 선생의 얼굴이 저리도 침울하고 발걸음 또한 저렇게 무거운것인가? 내가 보낸 편지에 불만을 느꼈던가?

짧은 한순간에 많은 생각과 의문들이 철규의 머리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선생님! 저의 편지를 받고 오셨겠지요?》

공철규가 먼저 긴장한 표정을 짓고 침묵을 깨트리었다.

《그래, 동무의 편지를 받아보았소. 내가 진실을 외곡할가봐... 나를 도와주자고... 동문 청암엘 찾아오고 또 편지까지 보내고... 정말 고맙소.》

윤세훈은 웬일인지 목이 잠긴듯한 쉼 목소리로 떠들떠들 힘겹게 말을 이었다.

《그러나 철규동무! 동문 괜한 근심을 하고있소. 나는 진실을 외곡하지 않았소. 모든것이 진실이요! 그렇소. 진실이지!》

윤세훈은 우뚝 걸음을 멈추고 주장을 굽히지 않을것 같은 고집스럽고 완강한 표정으로 철규를 응시하였다.

《그렇구말구. 나는 진실을 썼소. 사실상 거짓말은 동무가 했지. 동문 할아버지의 사망에 대해서 나한테 거짓말을 했지? 그렇지?》

윤세훈은 철규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 무슨 아픔이라도 참는듯 얼굴을 약간 찌프리었다. 철규

는 소스라치듯 고개를 쳐들었다.

《선생님! 제가 할아버지의 사망에 대해 거짓말을 하다뇨?...저의 할아버지는 1937년에 사망하였습니다.... 그건 거짓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인것 같소. 동무의 할아버지는 분명 1937년 봄에 사망한것 같소. 그렇다고 내가 진실을 외곡했는가? 아니요. 동문 사실과 진실을 혼돈하는것 같소. 소설가는 사실을 쓰는게 아니라 진실을 쓰는거요. 내 말이 리해되오?》

윤세훈은 창너머에 비낀 아아한 산발을 바라보며 어딘가 침통한 어조로 계속하였다.

《공왈빈이가 언제 사망했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나는 다만 공왈빈이와 같은 혁명렬사들은 비록 산중의 무주고혼이 될지라도 혁명에 보탬을 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걸 말하자고 했소. 그게 과연 진실이 아니란말요?》

철규, 솔직히 내앞에서 말해보오. 동무의 할아버지가 그런 혁명렬사가 아니었던말인가?》

철규는 뜻밖의 물음에 당황하였다. 침묵이 흘렀다. 철규는 그 침묵이 얼마나 길었던지 알수 없었다. 한순간의 침묵처럼 짧았던것 같기도 하고 영원한 정숙처럼 긴 시간으로 느껴진듯도 싶었다.

《철규!》 윤세훈은 다시 철규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동무의 할아버지는 1937년 봄에 혁명조직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적 경찰 두놈을 까둑히 피잡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혁명가였지. 동문 그걸 나한테 속였소.》

철규는 반사적으로 온몸에 전율을 일으키면서 윤세훈을 흠뻑보았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모르고 누구도 보증할수 없는 할아버지의 과거사, 영원히 가족의 비밀로 남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할아버지의 장렬한 최후에 대해서 윤세훈작가가 그리도 구 체적으로 알고있는것이 너무도 놀라왔던것이다.

《철규동무, 놀랄건 없소. 동무가 나의 소설문제로 편지를 쓰던 그밤에 동무의 류다른 행동을 주시하고있는 한 청년이 있었소.》

그는 철규네 소대장이었다. 그 청년은 남들이 다 자는 한밤중에 손수건으로 눈굽을 훔치며 긴 시간 글을 쓰고있는 철규의 동정을 불안스레 살펴보다가 그가 잠들었을 때 책갈피속에 끼워둔 편지를 읽었던것이다. 만약 철규에게 그 무슨 불행이 생겼다면 도와주려는 심산에서 읽게 된 그 장문의 편지를 통해 결국 소대장은 수십년세월 업수되어 온 철규일가의 비밀을 알게 되었었다.

기실 아버지에게 보내는 철규의 편지에는 할아버지문제와 관련된 일장사연이 다 적혀있었던것이다.

《철규동무, 그래서 동무네 소대장은 이튿날에 휴가를 받고 나를 찾아왔소. 백두산밀영으로말이

요. 동무의 편지는 그 며칠후에 받아보았소.》

(아, 일은 그렇게 되었구나!)

일시에 모든 의문이 풀리자 철규는 웬일인지 현훈증이 일어나면서 몸을 지탱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는 몇발자국 비칠거리다가 사무탁에 손을 짚고 눈을 꼭 감아버렸다. 귀가 멍멍해지더니 윤세훈작가의 목소리가 아득히 먼곳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동무네 소대장이 나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아오? <우리 철규동무는 정말 정직하고 성실한 동무입니다.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직 공왈빈동지의 과거생활을 직접 목격한 제3자보증인이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들려준 철규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인정할것입니다. 왜냐면 그들 철규네 온 가족의 깨끗한 량심을 믿을수 있기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작가선생님에게 보낸 공철규의 편지, 그것보다 더 믿음직한 보증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소대장은 말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많은것을 시사해주는 의미심장한 말이요.》

윤세훈은 문득 말을 끊었다. 멀리서 기적소리가 울려와서였다. 험준한 산발을 누비며 길게 뻗어간 청춘궤도, 북부철길을 달리는 열차의 기적소리도 그 순간엔 유난히도 많은 의미를 띠고있는것 같았다.

《나는 소대장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오.》 하고 윤세훈은 계속하였다.

《철규동무와 철규동무네 온 가족이 지니고있는 깨끗한 마음, 모든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있는 성실성, 그것이 바로 할아버지의 투쟁경력을 확고히 보증하고있소. 나도 작가의 량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확신있게 말할수 있소. 동무네 가족은 명실공히 혁명렬사의 후손들이라고...》

철규는 별안간 뜨거운것이 명치를 치받아올라 얼른 고개를 수그리었다. 오열이 터져나올것 같았다.

또다시 기적소리가 울렸다.

윤세훈은 가까와오는 열차의 힘찬 구름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듯 이윽도록 묵묵히 서있다가 혼자 소리처럼 중얼거렸다.

《혁명렬사들의 넋을 이은 철규와 같은 새세대 청년들이 있었기때문에 저렇게 북부철길 건설이 훌륭하게 진척됐구만.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소. 철규를 위해 휴가를 받고 나를 찾아왔던 소대장 역시 얼마나 아름다운 청년인가.》

윤세훈의 목소리를 들으며 철규는 입술을 깨물었다. 드디어 그의 눈에서 뜨거운 이슬이 비오듯이 흘러내렸다. 철규는 자기가 무엇때문에 그렇게도 억제할수 없는 흐느낌에 어깨를 떨고있는지 알수 없었다.

《그만하라구 그만해!...》

윤세훈은 철규의 어깨를 쓸어만지며 흐느낌을 달래었다

《선생님!》 철규는 윤세훈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채 흐느끼며 애원하였다.

《선생님은 소설에서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왈빈이란 실재인물이 나오는데 이상 소설을 사실대로 고쳐주십시오. 만약 그러지 않으면 실지 구호목을 쓰고 전사한 그 무명렬사에 대한 생각때문에 저는 평생 괴로울것입니다.》

《음-》 윤세훈은 씹어삼키는듯한 신음소리를 내며 공철규를 꼭 그러안았다.

《아니요. 아니요. 내 생각이 틀림없다면 공왈빈이란 결국 한사람이요. 사망년도가 차이나는건 분명 착오요. 내 이제 그것을 밝혀내겠소. 그리고

이 모든것으로 소설의 속편을 더 써서 세상사람들이 이 사실을 죄다 알게 하겠소.》

윤세훈은 공철규를 포옹한채 창박을 내다보며 그전날 김석민이가 수립속에 묻은 그 젊은이를 눈앞에 그려보았다. 정녕 그 젊은이처럼 이 땅우에는 아직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렬사들이 얼마나 많으며 공철규네 가족들처럼 부모들의 혁명투쟁경력을 말하지 않고 지내는 렬사의 후손들은 또한 얼마나 되랴!

인생을 연구하는 작가 윤세훈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으며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깨끗하고 고상한 정신을 웅변으로 증명하는 민족의 큰 자랑으로 된다고 생각하고있는것이다.

## 우리의 생명

최호진

먹으로만 쓴 글이 아니구나  
세월의 눈비도  
폭풍도 지우지 못한  
글발의 뜻은 오늘도 력력하구나

볼수록 읽을수록  
깊은 생각 불러내는  
생명같은 글발  
구호나무의 글발이어

원고지도  
수첩도 아닌  
밀영의 이름없는 나무에  
투사들 어찌하여  
조국은 생명이라 써놓았는가

다시금 바라보노라니  
글발은 뜨겁게 말하누나  
간도 천리길에  
현해탄 푸른물에  
원한의 피눈물 떨구며  
조국을 하직했던 겨레는 그 얼마였는가

그 누가 찾아주랴  
그 누가 안겨주랴  
찾아도 제힘으로  
온 민족이 목숨을 대신해서라도  
기어이 찾아야 할 조국이였다고...

조국을 잃었다고  
넋마저 잃었으랴  
이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찾으려  
성스러운 붉은기아래서 총을 잡은 투사들  
싸우다 목숨은 잃어도  
기어이 찾아야 할 조국이기에  
생명이라 아로새긴 조국

내 숨엄히 가슴가득 안노라  
이 세상 가장 귀중한 재보로  
세기와 세기에 빛발치며  
세대와 세대에 넘겨준  
신념의 그 넋을

아! 목숨은 천만이어도  
조국은 오직 하나  
누구나의 운명으로 이어진 조국이  
투사들의 생명임을  
우리의 생명임을  
뜨겁게 깨우쳐주는 불멸의 구호여

진정  
희망도 행복도 미래도  
진정한 삶도 인간의 존엄도  
조국- 그 품을 떠나서는 없음을  
조국- 목숨보다 더 귀중함을 웨치는 글발  
청춘을 바쳐 조국을 넘겨준  
투사들의 산 숨결을 가슴가득 안겨주는  
백두의 구호나무여!

##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충실성과 우리 문학

리기주

우리 당은 청년들을 나라와 민족의 귀중한 꽃으로,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로, 미래의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그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준비시키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 청년들을 혁명과 건설의 주역으로 준비시키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민족의 흥망과 조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청년들이 시대의 앞길을 개척하는데서 언제나 선봉에 섰으며 새것을 창조하고 사회의 진보를 이룩하는데서 그들이 중요한 역할을 놀았다는것은 역사에 의하여 확증되었다.

오늘 조선청년들앞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시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우리 당의 령도밑에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나아가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조선청년들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다그치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나갈 우리 당의 믿음직한 전투부대이다.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참다운 계승자로 교양육성하는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내외정세로 보나 청년들의 특성으로 보나 오늘 우리 문학앞에 나선 가장 중심적인 과제의 하나이다.

우리 문학이 이 과제를 훌륭히 수행하자면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피어린 투쟁을 전개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형상을 보다 많이 창조하는 사업에 큰힘을 넣어야 한다. 그것은 오늘의 역사적환경에서 청년들이 자기 세대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자각하고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고 투쟁하도록 고무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기때문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 누리고있는 행복한 사회주의 새 생활은 전세대 청년들의 피와 땀의 대가로 마련된것이며 그들이 자기 세대에 맡겨진 역사적 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결과에 이루어진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전세대 청년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자기 세대에 맡겨진 역사적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오늘의 청년들이 자기 세대앞에 맡겨진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그것을 책임적으로 수행하게 하는데서 청년공산주의자들은 가장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조선혁명을 개척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생활과 투쟁은 오늘의 청년세대들이 그대로 본받고 이어받아야 할 귀중한 본보기이다.

우리 문학이 청년세대들을 교육교양하는 사업에 참답게 이바지하자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절대적인 충실성을 폭넓고 심도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충실성은 투철한 수령관에 기초하고있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우리 인민의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혁명의 수령으로 받들어모시고 싸워온 첫 청년세대이다.

민족해방운동이 겪어온 피의 교훈으로부터 민족의 참다운 령도자를 모시려던 우리 인민의 절절한 갈망과 소원은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심으로써 비로소 성취되였다. 이것은 우리 인민과 인류 앞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이 기여한 가장 특출한 공헌이다.

사실 청년공산주의자들이 투쟁의 길에 나섰던 1920년대 후반기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은 참으로 암담하였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혁명의 전망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원대한 뜻을 품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빛바래지 않는 진로를 밝히시였다. 나라의 독립과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싸울 결의를 안고 투쟁의 길에 나섰으나 탁월한 령도자를 모시지 못한탓으로 갈팡질팡하던 열혈청년들은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를 모시게 된 첫 순간부터 그이의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사상정신적풍모를 깊이 체험하고 그이를 무한히 경모하고 숭배하게 되었으며 수령님께서만이 도란에 신음하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수 있고 오직 수령님을 믿고 따를 때만이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혁명대오의 단결의 중심으로 모시였으며 수령님과 정치사상적으로, 동지적으로 굳게 결합되어야만 영생하는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빛내일수 있으며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할수 있다는것을 심장으로 체득한 투사들이였다. 청년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는 혁명의 수령이시였을뿐아니라 자기들에게 혁명가의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그것을 참되게 빛내여가도록 이끌어주시는 친근한 동지이시고 은인이시였다.

그렇기때문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충실성은 혁명적 신념과 의리에 기초한 가장 순결하고 견결하고 절대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신념과 의리를 가지고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무장투쟁으로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해방을 이룩할 수 있었다.

우리 인민의 유구한 력사에서 처음으로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추대하였으며 수령님의 령도 따라 다름아닌 바로 청년세대들이 주체혁명위업을 개척하는데서 선봉적 역할을 한것은 우리 조선청년들이 커다란 공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온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할 가장 큰 영광이고 행복이다. 여기에 우리 청년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절대적인 충실성을 가지고 모시는 자세와 립장의 사상정신적기초가 있으며 청년공산주의자들처럼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받들어모시고 당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한다는 세대의 임무에 대한 자각의 기초가 있다.

우리 문학은 오늘의 청년세대들이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대를 이은 세대이며 당의 령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조선청년으로서의 높은 공지와 자부심을 간직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우리 문학이 청년세대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충실성을 따라 배우게 하는데 이바지하자면 청년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형상화수준을 한층 높여야 한다.

우리 문학은 소설과 시, 가사, 영화문학 등 모든 형태의 문학에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한 좋은 경험을 가지고있다. 장편소설 《대지는 푸르다》, 예술영화 《조선의 별》의 영화문학 등은 다 우리 근로자들과 청년세대들을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지니었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으로 교양하며 주체의 혁명관으로 무장시키는 위력한 교과서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우리 혁명을 개척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투철한 수령관은 우리 청년세대들의 심장을 틀어잡고 세대의 임무에 대한 높은 자각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충실성을 형상한 큰 형식의 작품은 더 말할것도 없고 《동지애의 노래》만 놓고 보더라도 여기에는 혁명적 수령관이 관통하고있다. 가사에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와 충성심, 혁명동지들에 대한 끝없는 사랑,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비타협성, 바로 이런 사상이 힘있게 맥박치고있다. 우리 인민과 청년세대들이 이어가고 있는 이러한 혁명정신을 높은 수준에서 형상하는 것이 우리 문학의 과업이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형상에서 이룩된 성과를 견지하고 형상수준을 더 높이는것은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형상수준을 높이자면 그들

의 투쟁과 생활에 대한 보다 깊은 탐구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인상깊은 새롭고 비반복적인 생활과 성격을 창조할 수 있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사상정신세계의 높이를 이미 창조한 문학작품들을 통하여 우리가 잘 알고있는 실정에서 더욱 그러하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정치생활, 군사생활, 인간생활을 더 다각적으로 파고들어 어떠한 환경과 영향밑에서 그들의 혁명의식이 싹트고 자라났으며 혁명투사로 성장하였는가 하는 혁명적세계관의 형성과정과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혁명 사상과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한몫목 바치기를 서슴지 아니한 그들의 혁명적 신념과 의리의 세계를 폭넓고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청년세대들이 누구나가 다 청년공산주의자들처럼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길에서 충성다할 확고한 자각과 철석같은 신념을 간직하게 할 수 있다.

우리 문학이 우리 시대 청년세대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충실성을 따라배우게 하는데 이바지하자면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형상을 청년들의 혁명실천과 결부하여 창조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이 문제는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형상을 창조하는 목적자체의 요구이고 우리 혁명의 내외환경의 요구이기도 하다. 우리가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우리 시대 청년들로 하여금

우리 혁명이 걸어온 지난날을 잘 알게 하자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다. 우리의 청년세대들이 력사와 시대 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에 대한 높은 자각을 가지고 청년공산주의자들이 바로 오늘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흘려 싸웠던것처럼 보다 휘황한 래일을 위하여 청년시절을 값있게 살며 투쟁하도록 고무하자는데 있는것이다.

혁명을 하는것은 결코 자기자신이나 자기 세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 하는것이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것이다. 지난날 청년공산주의자들이 풀뿌리와 나무껍질로 끼니를 에우고 눈속에서 자면서도 일제와 맞서 굴함없이 싸운것은 그들이 편안하게 사는것이 좋은줄 몰라서가 아니라 순간을 살아도 위대한 수령님과 조국을 위하여 싸우는것이 가장 떳떳하고 보람있게 사는 길이라는것을 알고있었기때문이다. 전세대가 없이는 오늘의 세대가 있을수 없으며 매일의 세대는 오늘의 세대와 잇닿아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자기자신과 자기 세대를 위해서뿐 아니라 후대를 위하여 보다 훌륭한 미래를 마련하여야 할 신성한 의무가 지워져있다.

오늘의 환경에서 청년들에게 혁명적인생관을 똑바로 세워주는것이 중요하다. 사람이 일생에서 청년시절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것은 한생을 보람있게 사는가 못사는가 하는것을 결정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사람이 일생을 참답게 살자면 청년시절에 올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하며 인생을



훌륭하게 결속하자면 청춘의 힘과 열정을 혁명을 위해 바쳐야 한다는 인생관을 가져야 한다.

우리 청년세대들은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살며 싸운 항일혁명투쟁시기와는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다. 오늘의 청년세대들은 청년공산주의자들이 바로 그것을 위해 싸웠던 착취없고 압박없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세상에 부러울것 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오늘의 청년들은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우리 인민이 당한 노예살이를 체험하지도 못했으며 우리 인민이 미제를 때려엎은 가련한 조국해방전쟁을 겪어보지도 못한 세대이다. 우리의 전세대청년들이 피어린 투쟁으로 쟁취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오직 행복만을 알며 자라온 세대이다.

그런데 혁명은 끝나지 않았으며 혁명은 의연 간고한 길을 거쳐서야 승리할수 있다. 우리는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와 맞서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며 조국통일의 위업을 실현하여야 한다. 미제는 조선에서 또다시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있으며 원수들은 온갖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썩어빠진 부르주아 문화와 생활양식을 퍼뜨려 새 세대청년들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정신적불구자로 만들려고 책동하고있다. 또한 세상에는 일시적인 난관을 이겨내지 못하고 혁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혁명의 길에서 우여곡절을 겪는 사람들도 있다.

이 모든 사실은 혁명의 구체적환경은 비록 달라졌지만 혁명은 계속되고있다는 점에서 항일혁명투쟁시기나 오늘이나 다를바가 없다.

청년들이 오늘의 행복한 생활에 도취하여 지난날을 잊고 태일을 생각지 않는다면 혁명을 집어던지고 자기 일신의 안일과 향락만을 추구하게 될것이다. 혁명의 길이 간고하다 하여 주춤거리거나 패배주의와 비관주의에 빠질수도 있다.

우리 문학은 참다운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청춘시절의 보람은 어디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여기에 예술적해답을 줌으로써 청년세대들로 하여금 혁명을 하는 길에 영광이 있고 청춘의 보람과 행복이 있다는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의 사상과 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님의 사상과 혁명로선을 관철하는 그길에 크나큰 영광이 있고 청년시절의 삶의 보람이 있다는것을 가르쳐주었다.

우리 문학은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인생관을 따라배워 그들처럼 살며 싸우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성격형상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 그러자면 창작가들이 청년들의 생활속에 깊이 들어가며 그들속에서 배출되고있는 영웅들, 청년혁신자들

의 사상정신세계를 여러모로 탐구하고 높은 경지에서 그려야 한다.

우리 당은 일찌기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자!》라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여 우리 인민과 청년세대들이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인생관화된 충실성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 그들처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길에서 전위투사가 되도록 이끌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충실성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커다란 견인력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공헌한 수많은 청년영웅들, 우리 시대 청년세대의 전형들을 낳았다.

그들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들끓는 전투장에서, 조국보위의 초소에서 백절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용감하게 뚫고 끊임없이 혁신하고 전진하고있으며 세인을 놀래우는 영웅적 위훈을 세우고있다.

우리 문학은 청년공산주의자들의 고결한 사상정신세계를 이어받아 오늘의 청년세대들이 모두가 위훈의 창조자가 되고 영웅이 되도록 고무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해결할 문제는 영웅이나 혁신자는 비범한 사람만이 되는것이 아니며 위훈은 포화울부짖는 격전장에서만 창조되는것이 아니라란것, 누구나 영웅이 되고 위훈의 창조자로 될수 있다는것을 형상으로 잘 보여주는것이다.

우리 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정책을 한갓 의무로써만이 아니라 커다란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안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높은 충성심과 헌신성을 발휘하는 평범한 청년 노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의 고상한 사상정신세계를 깊이있고 생동하게 그려야 한다.

문학의 교육교양적영향력은 작품에 그려진 인간의 생활을 통하여 사람들이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자신을 알게 하는데 있다. 우리 청년세대들은 혁명에는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을 값없는 삶으로 보며 누가 보건 말건 그 어떤 보수나 평가도 바라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일이 혁명에 이바지하는것이라면 모든것을 묵묵히 바치는데서 참다운 삶의 보람을 느낀다. 바로 이것이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충실성을 이어받은 우리 시대 청년세대의 고상한 사상정신세계이다.

우리 문학은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충실성과 그 모범을 따라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오늘의 청년세대들의 투쟁과 생활을 더 높은 경지에서 형상함으로써 청년들이

우리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 할 굳은 각오를 가지고 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언제 어디서나 당의 근위대, 결사대로서의 의리와 본분을 다하도록 교육교양하는 사업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사상적무기로 되여야 할것이다.

# 내 심장우에 당원증이 있다

김 호

세상에 태어날 때  
내 어머니가 준 그 심장우에  
나를 믿어 당이 안겨준  
붉은 당원증이 놓여있습니다

그전날엔  
제 가슴속 심장이 뛰는 소리  
내 들어본일 없어도  
당원증밑에서 뛰는 심장의 고동소리  
언제나 다 듣습니다

심장 하나만으로  
인생의 먼길 떠나올 땐  
때로 생활의 암초앞에 주저도 했고  
비바람 사나운 날씨면  
가던 길 멈춰도 섰습니다만

당원증이란 무엇이어서  
품은 시각부터  
이리도 마음 든든해지고  
풍랑 사나운 날바다도  
두렵지 않은것입니까

억센 힘  
승리의 신심  
청춘의 열정과 기백을  
영원한 숨결로 주는 당원증은  
얼마나 큰 심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심장입니다  
절해고도에 홀로 있다 해도  
외로움을 모르게 하는 심장  
천길 낭끝에 선다해도  
한치 마음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심장

심장이라도  
특별한 심장입니다  
불길로 태울수 없고  
혹한으로 얼कु수 없는 심장

이 심장을 지냈기에

항일의 선렬들  
맹수들도 얼어죽는  
백두의 눈보라를 헤쳐온것 아닙니까

이 심장을 간직하였기에  
밭머리에 보탑을 세워놓은채  
전선길 달려간 머슴군의 아들이  
원췌의 화점을 가슴으로 막고 쓰러졌어도  
그 이름과 함께  
고향으로 몇몇이 돌아올수 있었고

이 심장으로 고동쳤기에  
불타버린 제집 주춧돌 하나 놓을줄 모르던  
한 연약한 너인도  
거인같이 일떠서  
스스로 재더미를 헤치고  
공장 복구의 첫 기둥을 먼저 세웠거니  
정녕 얼마나 깨끗한 충성과 효성을 남게 하는 의  
리의 심장입니까  
조국앞에 무수한 영웅을 키워내는 불굴의 심장입  
니까

아, 어머니 준 심장은  
한생밖에 뛰지 못해도  
당의 뜻으로 뛴뛰는 심장  
당의 뜻으로 불타는 심장은  
이렇듯 세월을 넘어  
천만년 영생하거니

하루도 백년처럼  
백년도 하루처럼  
값있게 살수 있도록 해주는  
이 심장이 있어  
이 심장이 고동치고있어

나의 인생은  
이제 나이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은 끝을 모릅니다  
당원의 생명은  
우리 당중앙의 크나큰 품속에서  
영원불멸합니다

시조

## 기발에 대한 시

조래현

### 건설장에 나뿔겨야

우리의 붉은기  
향기진한 꽃바람속에만 나뿔겨보라  
저리히도 붉을수 있는가

우리의 붉은기  
한가로운 강변 유보도에만 꽃아보라  
저리히도 나뿔김 세찰수 있는가

피어린 투쟁속에  
태어나고 지켜온 기발이여서

혁신의 불바람 이는  
건설장에 나뿔겨야 그 색깔도 진하다

이 기발밑에서는  
백번 쓰러지면 천번 솟구치는  
불굴한 전사의 모습만이 제격이다

아, 전진과 투쟁의 상징 기발이여  
네가 있는곳에 혁명이 있다  
혁명이 있는곳에 네가 있다

### 위훈의 나라

굴뚝이 한길만큼 솟으면  
기발은 그우에 나뿔기고  
굴뚝이 두길만큼 솟으면  
기발은 또 그우에 나뿔기고  
먼저 굴뚝이 키를 솟구고  
기발이 따라서 오르는것인가  
먼저 기발이 올라  
굴뚝이 따라서며 높아지는것인가

어떠라  
기발은 언제나 머리우에 있어  
돌격대원들 랑만속에  
굴뚝을 쌓아올리는데야-

정녕 기발은 힘이며 기쁨  
아침 일찍 창문턱을 나서면  
손 흔드느니 기발이더라  
굴뚝을 통채로 날려보낼듯  
불어치는 폭풍속에서

잠시나마 망설일 때에도  
높은곳으로 손잡아 끌어올리느니  
기발이더라

발판이 그네처럼 흔들리고  
몸은 휘청거렸건만  
붉은기폭에 마음을 잡아땀던가  
그들은 굴뚝쌓기를 멈추지 않았더라

아, 당이 쥐여준 기발이여서  
죽어도 이 기발밑에  
살아도 이 기발밑에  
선렬들 흘린 피 헛되이 안하리  
당앞에 다짐한 맹세가 끓어서

이 기발밑에서는  
안온도 비겁도 몰랐더라  
이 기발밑에서는  
노래를 불러도 혁명의 노래

처녀와의 사랑을 고백했어도  
위훈속에 꽃피웠더라

사람들은 말하더라  
젊은이들 무슨 힘이 있어  
젊은이들 무슨 지혜가 있어

저리히도 빨리 굴뚝을 쌓는가고

돌격대원들은 대답하더라  
기발이 위훈의 나래였노라고  
이 굴뚝을 다 쌓은 다음에도  
이 기발은 내리우지 않겠노라고

## 부드러운 손길

조국을 위해  
마감으로 할일은 없는가  
래일이면 사형장으로 나가야겠기에  
이 한생각으로 골몰하던 사람들

아버지는 흰저고릴 벗었다  
어머니는 남색 치말 잘랐다  
누나는 빨간 땡길 풀었다  
공화국기발 품고 떠나자고

사흘째 죽은듯 누웠던 애어린 소년도  
가슴에서 붉은넥타이를 꺼냈다  
그리고는 생긋이 웃었다  
기발의 오각별 이걸로 새겨달라고-

날은 밝았다 아침이슬 머금은 꽃처럼  
생기있게 다시 피어난 소년  
제발로 걸어갔다 사형장으로  
일나가는 아버지따라 학교로 가듯

총성은 울렸어도  
소년은 기발을 놓지 않았다  
쓰러졌어도 소년은  
기발의 한끝 감아쥐고있었다

오로지 그 기폭밀에서  
삶의 시작도 끝도 찾은 소년  
모진 교문도 죽음도  
그들의 운명을 빼앗지 못했다

## 열세번째 기수

열두명의 용사들 쓰러져 숨지면서도  
손에서 손으로 주고받으며  
고지우에 휘날렸던  
저 기발의 열세번째 기수는 누구?

열두명 용사들  
열세번째로 어느 전사에게  
이 기발을 넘겨주고싶었으랴  
총탄자욱 력력히 드리워있는 기발이여

그 전화의 고지에 내 있었더라면  
열세번째 기수로 될수 있었으리

어찌 나뿐이라  
내옆에 선 저 애송이청년도 그랬으리

오늘의 우리뿐이 아니리라  
나 앞서 여기에 왔던 사람들  
내 뒤로 끊임없이 올 사람들  
열세번째 기수로 서슴없이 들어서려니

기발이여, 너는  
어느 하루도 번짐이 없이  
수천수만의 열세번째 기수를  
자랑스러이 키워내고있구나

# 력서의 마지막장을 번지며

최정용

력서의 마지막장을 번지며  
생각도 깊어  
무심히 번질수 없구나  
마음속에 무거운 이 마지막장을

이밤이 지새면 새해  
분단의 아픔 가시지 못한채  
80년대도 저물어가는가  
장장 반세기를 거슬러온 분단의 또 한해  
90년대로 이어가야 하는가

이 한해도  
통일의 열망으로  
우리 가슴  
그 얼마나 끓어번졌던가

통일  
꿈에도 소원인 통일을 이루자고  
남녘의 청춘들 피타게 웨칠 때  
우리도 그대들과 함께  
투쟁의 광장에 서있었거니

항쟁의 그 대오에  
마음의 어깨를 같이하며  
우리는 일떠세웠다  
순천땅에 비날론의 새 도시를  
그 한마음으로 뻗어갔다  
간석지천리벌에 청춘언제들이

진정 우리  
그 얼마나 간절히 원했던가  
광복거리 청춘거리  
일떠서는 새 집들에 지붕을 얹으며  
갈라져사는 혈육들이  
한방에 모여앉기를

풍년나락 설레는 들길에서

선뜻 발길을 돌리지 못했다  
두고온 고향땅 호남벌  
제 손으로 갈아보지 못한  
그 한줌 흙이 그리워  
아, 그런 밤이면  
떠드는 한술 밥술이 무거웠다

그래 잊을수 있단말인가  
통일의 꽃으로  
오늘도 천만 가슴에 피어 웃는  
《전대협》대표의 그 사랑스런 모습을  
-수경이 다시 만나자  
가를수 없는 혈육의 정에 몸부림치던  
그 비극의 순간순간들을

이밤따라 가슴 두드린다  
백두에서 한나로 이어가던  
국제평화대행진대의 발걸음소리  
-조선은 하나다!  
세계의 량심이 터치던 그 웨침이

분단의 진통을 안고  
가슴타는 밤이여서  
번지는 력서 한장이  
이처럼 마음속에 무겁구나  
력사의 새 아침을 기어이 불러올 마음속에  
세월이여  
너는 이제 더 무심히 흐르지 못하리라

내 가리라  
이 땅 그 어디에 발자국 찍어도  
오직 하나 통일의 한길에 이으며

불같이 살리라  
통일의 고임돌 되여  
통일의 돌과구 열며

## 혁명가극전통의 창작실천적재부의 내용

박상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이끌어나가는 행정에 혁명가극전통의 기본내용의 하나를 이루는 불멸의 창작경험을 창조하시어 사회주의, 공산주의 가극예술건설의 전반사업에서 고전적의의를 가지는 영원히 따라 배워야 할 창작실천적재부를 마련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작품들은 거의다 연극이 아니면 가극이었습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성황당》**, **《3인1당》**은 연극이었으며 **《꽃피는 처녀》**는 가극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필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피는 처녀》**, **《조선의 노래》**는 위대한 주체사상과 주체적문제이론, 고귀한 창작업적과 경험을 가장 완벽한 예술적경지에서 빛나게 구현하고있음으로 하여 우리 가극예술의 빛나는 혁명전통의 정수를 이루는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의 장엄한 역사적현실이 요구하는 혁명적가극예술의 새 역사를 개척하시기 위하여 몸소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을 창작하시어 그 위대한 불멸의 창작업적과 경험을 쌓으시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의 노래》**는 온 민족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 일제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조국광복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반제애국사상을 밝혀주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의 노래》**는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관중들속에서 일대 파문을 일으켰으며 인민들을 반일애국사상으로 교양하고 조국광복의 성전으로 힘있게 불려일으켰다.

이 명작은 노래와 음악, 무용, 극적인 이야기, 설화들을 유기적으로 배합한 작품으로서 우리 시대 가극창조에서 귀중한 경험을 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피는 처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적가극예술의 새 역사를 펼친 또하나의 기념비적작품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에 혁명조직들과 군중들속에서 대중적문제활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조직지도하시였을뿐아니라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어 혁명가극예술에 관한 독창적인 미학사상을 밝히시고 그것을 창작실천에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그리하여 벌써 이 시기에 우리의 혁명가극예술은 가극예술의 새로운 발전의 길, 대중혁명화의 위력한 무기로서의 참다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극예술의 길을 열어놓았으며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우리 사회주의적사실주의가극예술의 뿌리를 깊이 내리였다.

바로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피는 처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령도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가극예술의 영광스러운 길을 개척한 작품으로서 우리의 혁명가극전통의 기본내용을 이루는 귀중한 재보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피는 처녀》**가 창작된 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나간 오늘에도 이렇듯 사람들을 혁명승리에로 힘있게 고무하는 불멸의 혁명적 기치로 되는것은 이 명작에 구현된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성과 관련된다.

진정 사상주체적내용의 심오성에 있어서나 예술적형상의 깊이에 있어서 종래의 가극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여기에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피는 처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극예술의 새 역사를 개척하는 시발점으로, 고전적본보기로 되는 근거가 있는것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피는 처녀》**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비운이 절정에 이르렀던 1920년대말~1930년대초를 시대적배경으로 하면서 꽃분이와 그 일가가 당하는 피눈물나는 생활을 보여주고있다.

명작은 꽃분이와 그 일가가 당하는 고통과 불행을 다만 한가정의 고통과 불행으로서가 아니라 심오한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그것을 나라없는 민족이 당하는 고통과 불행으로 일반화 하였으며 그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오직 혁명투쟁의 길밖에 없다는 위대한 진리를 밝혀주고있다.

명작의 혁신적의의는 그 주체사상적내용에서 사회혁명의 근본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완벽한 해답을 주었다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중요하게는 혁명적내용에 맞게 그 예술적형식을 새롭게 창조하였다는데 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비롯한 혁명적가극들에서 기본형상수단인 노래를 절가로 만드는데 또한 큰 혁신적의의가 있다.

절가의 공통적인 특징은 아무런 분석도 과장도 없이 우리 인민의 산감정을 소박하고도 진실하게 노래하고있는것이다.

여기서는 종래의 가극에서 고질적으로 남아있

던 《극성을 위한 극성》, 허위적인 과장과 분식, 음조의 주관주의적회룡 등에서 오는 복잡성, 모호성과 같은것은 그림자조차 찾아볼수 없다.

이것은 이 노래들이 인민적절가의 본래의 요구인 사실주의와 인민성으로 일관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이 절가들은 또한 그 선율이 아름답고 민족적이며 유순한것이 특징이다. 노래들이 아름답고 유순하다는것은 절가선율의 고유한 특성에 기초한것으로서 우리 인민의 미학적요구와 비위에 전적으로 맞는다는것을 의미한다.

노래가 인민의 감정을 소박하고 진실하게 반영하여 인민의 정서적요구와 비위에 맞는다는것은 그것이 벌써 인민대중에게 리해되고 접수될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피는 처녀》와 《조선의 노래》는 이렇듯 극치를 이루는 주제가들인 《꽃피는 처녀》와 《조선의 노래》를 비롯하여 가극의 모든 노래들이 인민대중에게 리해되고 접수될뿐아니라 인민자신의것으로 되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예술적으로 완벽하여야 한다는 통속성의 가장 높은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고있다. 여기에 바로 항일혁명가극들의 통속성의 중요한 담보가 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비롯한 항일혁명가극들의 노래들은 다 절가에 기초하여 알기쉽고 부르기 험하게 되어있음으로 하여 무대에는 물론 인민들속에서도 광범히 불리우게 되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비롯한 혁명가극에서 기악은 어렵고 까다롭던 종래 가극관현악을 따르지 않고 인민의 생활감정과 미감에 맞는 새로운 가극기악으로 창조하는 경험을 이룩하였다.

그것은 가극으로 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의 기본형상수단인 노래가 절가로 된 조건에 맞게 기악도 새로운 절가로 된 노래에 기초하여 가극기악을 새로 만들었다는데 그 창조적의의가 있다.

특히 가극의 노래를 반주할 때에는 절가선율에 기초하여 노래가 살도록 하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비롯한 항일혁명가극들이 무용을 가극의 형상수단으로 리용하였다는데서 또하나의 새로운 창조적경험을 이룩하였다.

무용을 가극의 형상수단으로 리용한것은 종자를 꽃피우기 위한데 무용이 복종되고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이것은 무용이 가극의 형상수단의 필수적인 요소로 된다는것을 말한다.

또한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노래를 부르고 춤추기를 좋아하는 민족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므로 가극에 무용을 도입하는것은 가극의 종자를 꽃피우는데서뿐아니라 우리 인민의 민족적정서와 비위에도 맞는것으로 된다. 가극은 노래와 음악을 기본형상수단으로 하지만 그 어떤 예술형식도 자체내에 포함시켜 극발전에 복종시킬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종합예술이다.

그러므로 가극에 무용을 넣는것은 종합예술로서의 가극예술의 형태상특성을 살리는데서도 전적으로 부합된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극예술건설위업을 개척해나가는 길에서 무용을 가극의 필수적인 형상수단으로 도입하신것은 인류가극사에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경험으로 된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가극 《조선의 노래》에서 금돌청년을 비롯한 청년남녀들의 가무 《13도의 자랑》과 가무 《단심줄의 노래》 등은 온갖 착취와 압박밑에서도 은금보화 가득한 아름다운 조국을 가꾸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는 절절한 념원이 그대로 무용으로 생동하게 형상되고있다.

특히 가무 《13도의 자랑》은 주인공 금돌청년을 비롯한 청년남녀들이 등장하여 조국땅을 온통 꽃정과 은금보화 가득찬 해빛넘치는 금수강산으로 한껏 펼쳐보이려는 주인공의 절절한 념원을 하나의 무용형상속에 보여줌으로써 가극에서의 무용형상의 품위를 높일수 있게 하였다.

원작에서는 가무를 극정황에 맞게 배합하는데서도 경험을 이룩하였다.

동생을 랍치해간 일제경찰놈들을 처부시고 구원한 녀동생 금아를 데리고 마을에 돌아온 금돌청년을 비롯한 청년들이 춤추는 가무 《단결의 노래》는 극에 밀착되어있으면서도 당대 시대적요구를 설득력있게 반영하고있다.

민족적인 정서로 차넘치는 남녀청년들의 이 략만적인 가무는 이 땅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일제와 지주, 자본가놈들을 때려부시자면 온 민족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 싸워야 한다는 작품의 주제사상적내용을 해결하는데 밀착되어 잘 표현하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주체의 세계관으로 무장한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그려내는 새로운 성과를 달성하였을뿐아니라 그 세계관형성과정을 일반적합법칙성에 맞게 사회의 본질을 인식하는 단계, 적을 증오하는 단계, 적을 때려부시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혁명투쟁에 나서는 단계 등을 진실하게 그리면서도 개성적인 특성을 훌륭히 살리었다.

혁명적작품의 기본사명은 바로 사람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와 혁명적세계관확립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피는 처녀》는 위대한 수령님의 이 독창적인 문예사상을 가장 훌륭히 구현한 본보기이다.

이것은 이 명작이 사실주의적전형화의 생동한 형상으로 일제의 식민지제도와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착취제도를 날카롭게 폭로하고있을뿐아니라 사람들의 혁명적각성과정을 진실하게 그렸다

는 그자체가 잘 말해주고있다.

다름아닌 명작의 매 장면들은 저주로운 낡은 제도의 반동적본질과 야수적본성에 대한 론고장이며 혁명투쟁의 진리를 깨닫기까지의 꽃분이를 비롯한 긍정적주인공들의 심각한 생활체험의 축적과정을 보여주는 진실한 화폭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명작은 전편을 통하여 혁명적세계관형성의 참된 교과서로 되고 있다.

항일혁명가극에서는 또한 극조직, 극구성에서도 훌륭한 경험들을 이룩하였다.

특히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극을 인간성격과 생활발전의 논리에 따라 끌고나갔으며 극조직에서 기본을 이루는 감정조직을 진실하게 끌고가는 데서 훌륭한 실천적모범으로 된다.

명작은 극조직을 생활논리에 맞게 잘 주었울뿐 아니라 주어진 사건의 흐름에 따라 극의 축적과정과 감정의 축적과정을 잘 결부하여 그린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의 하나로 된다.

명작에서 어머니의 죽음장면은 극발전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

명작의 전반부는 어머니의 운명문제를 두고 극이 꾸려져있으며 감정조직이 되어있다.

명작은 의의가지할데 없는 꽃분이형제의 비극적 체험과 아름다운 인정세계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인정미를 보여주었으며 착취사회의 종양으로부터 오는 인간의 쓰라린 고통과 피착취계급의 눈물겨운 모태임을 체득시키고있다.

그리하여 마침내 꽃분이는 반항의 길, 혁명의 길에 나서게 된다. 이렇듯 심각하게 흘러가는 꽃분이 일가의 처참한 운명선, 이것이 곧 명작에 주어진 극의 흐름이며 극구성이다. 그러므로 극은 꽃분이 일가에 련속적으로 들쭉위지는 생활의 파란곡절을 타고가면서 매우 첨예하고 심각한 극성을 띠고 흘러간다.

명작은 바로 시작으로부터 사건의 흐름을 따라 극의 축적, 감정축적을 주었으며 사건의 폭발적인 절정의 위치를 정확히 설정하고 진실하게 극을 해결하였다.

사건의 절정을 극의 발전과 감정축적과정에서 어찌할수 없는 필연적폭발점으로 되게 하였으며 주인공 꽃분이의 극적체험의 최고상승점으로, 인간관계에서 얽혀나갔던 모순의 극한점으로 되게 함으로써 극조직, 극구성에서의 전례없는 본보기를 마련하여주었다.

명작은 구성의 기본요소들과 인물선, 사건선, 갈등선들을 유기적으로 잘 밀착시켜나갔다.

특히 갈등선을 사회관계의 기본에 맞게 예리하게 잡고 계급투쟁의 법칙에 따라 풀어나감으로써 혁명투쟁의 본질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똑바로 밝혀냈다.

극조직, 극구성, 감정조직에서 거둔 이러한 중

요한 경험들은 혁명가극창작에서 사상에술성을 보장하고 비상한 극적견인력을 가지게 하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은 주인공 일가의 비참한 비극적생활을 첨예하게 끌고가면서 그에 맞게 주인공들의 인정심리를 관통시켜나가는 새로운 양상을 창조하였다.

세상을 원망하며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는 어머니, 차라리 자기가 죽어도 꽃분이만은 그 종살이를 못시키겠다고 하는 어머니와 딸이 설움에 겨워 피눈물의 망돌을 돌리는 모습, 눈물없이 불 수 없는 순희와 꽃분이의 리별장면 등은 꽃분이 일가사이의 오가는 뜨거운 인정세계를 비극적인 생활에 맞게 인정심리적인 색깔로 관통시켜나갔다.

명작은 그 양상을 어떠한 생활의 본색에서 주도적인 선을 잡고 그것을 어떻게 일관한 정서적 흐름으로 조화시키고 관통시켜나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귀중한 해답을 주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비롯한 항일혁명가극들에서는 또한 작품의 종자를 형상적으로 가꾸는데서도 노래와 음악을 전적으로 복종시켜나가는 경험을 이룩하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에서 노래와 음악은 비극적운명속에서 꽃분이의 나라없는 민족의 고통과 설움을 체험하고있는 착취사회의 시대상을 진실하게 반영하면서 주인공이 착취사회의 심각한 사회계급적모순을 알게 되며 마침내 착취제도에 항거하여나서는 작품의 사상적알맹이를 밝히는데도 형상의 모를 박았다.

이로부터 가극의 노래는 부드럽고 아름다우며 절절하고 풍만한 서정적힘을 가지고 인민적이며 민족적이며 통속적인 혁명가극음악의 원칙적요구를 독창적으로 구현하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의 가극음악을 대표하는 주제가 《꽃파는 처녀》는 앞부분에서는 나라없는 민족의 고통과 슬픔속에서 애오라지 앓는 어머니의 병을 고치리라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다 이겨가며 꽃을 파는 꽃분이의 아름답고 고상한 인정심리세계를 구가하고있다면 마지막 부분에서는 희망과 신념에 찬 울림으로 착취사회의 모든 불행과 고통은 오직 혁명의 길에서만 해결할수 있다는 명작의 심오한 주제사상을 해명하는데 이바지 하고있다.

주제가를 중심에 놓고 당대사회에서는 결코 이룰수 없는 단란한 가정생활에 대한 소박한 념원과 끝없는 고통과 슬픔만이 강요되는 비극적인 운명과 결연히 일떠선 혁명의 길에 주어진 가지가지의 다양한 생활을 반영한 노래들으로써 명작의 양상적특징을 강화하고있다.

명작은 나라없는 민족의 설움과 고통이 절정에 이르고 반일혁명투쟁의 절박성이 극한점에 달한 당시의 시대적감정을 절절하게 담은 인민적인



절가형식의 노래들로 일관되어있다.

주제가 《꽃파는 처녀》는 또한 통속적이면서도 철학적사색이 깊은 선률형식을 통하여 명작의 종자가 가지는 철학적심오성과 사상주제적내용이 가지는 사회적심각성을 음악적형상으로 훌륭히 돋구어내는데서 고전적모범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명작에서 주제가 《꽃파는 처녀》를 명가사, 명곡으로 만듦으로써 력사에서 처음으로 가극음악을 대표하는 주제가의 지위와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하였다는데서 새로운 창작실천적모범을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의 노래》에서 주제가 《조선의 노래》인 경우도 실정은 같다.

특히 가극에서 주제가의 기능과 역할을 높임으로써 가극에서 음악의 선을 세우고 음악형상전반에 주제선률을 판통시키고 음악의 양상을 통일시키는 경험을 새롭게 이룩하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의 노래는 등장인물의 성격을 부각시키는데서도 창조적경험을 이룩하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의 음악은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효성, 사랑 등 가장 인정적이며 생활적인 감정과 절음마다 그들이 무참히 짓밟히는데 대한 절통한 심정을 보여준다. 그러나 모든 다양한 생활세부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자주식의로 각성되지 못한탓으로 더욱더 비극적인 길을 걷게 되는 주인공 꽃분이의 처지에 대한 가슴아픈 감정이다.

짖기우고 짓밟히는 가운데서도 한가닥의 효성에 불타는 주인공의 소박한 념원을 반영한 주제가 《꽃파는 처녀》는 명작의 서두에서와 지주놈의 집에 끌려가 머슴살때 밤이면 산에 올라가 꽃

을 꺾어파는 장면에서 불리운다. 노래는 아름답고 절절한 음악형상으로 꽃분이의 내면세계를 가슴뜨겁게 펼쳐보여주고있으며 통속적이면서도 철학적깊이가 있고 세련된 개성적선률형상과 진실한 감정으로 인민적인 절가의 특징을 높은 경지에서 구현하고 있다.

조선혁명군대원으로 된 오빠의 영향밑에 비로소 혁명대오에 들어선 꽃분이가 끝없는 기쁨과 희망을 안고 부르는 노래 《혁명의 붉은 꽃이 만발해 가네》는 온갖 착취와 천대 속에서도 슬픔의 꽃을 혁명의 꽃으로 바꾸어 성스러운 혁명의 길에 오른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새로운 형상을 끝없이 구가하고있는것이다.

이 두노래는 서로 다른측면에서 절가의 민족적특성을 새롭게 개척하고 명작의 다른 노래들과 뚜렷한 형상적대조를 이루면서도 극정황에 잘 어울리어 주인공의 성격발전을 감명깊게 안겨주는 데 훌륭하게 이바지하고있는것이다.

우리 혁명가극전통이 비상히 과학적인 심오성을 가지게 된것은 그 내용에서 혁명적문예사상이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그 내용과 체제가 전개되어있는것과 관련되어있다.

여기로부터 명작들은 비상히 심오한 철학성과 높은 정치사상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진실하고 의의있는 사회적문제와 인간문제들을 심도있게 밝혀내게 되었다.

우리 혁명가극전통은 주체적문예사상을 사상리론적재부로 하고있으며 공산주의가극의 전형인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실천적재부로 포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혁명적가극발전력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주체적가극예술의 영광스러운 전통으로 된다.

## 량심

### 한원희

가슴속 심장이 보이지 않듯이  
마음속 량심은 보이지 않아라  
심장이 생의 박동을 준다면  
량심은 그 삶을 빛내주는것

그믐밤의 등불처럼 별빛처럼  
인생의 먼길 비쳐주는 량심  
행복한 나날엔 다는 몰라도  
어려운 나날엔 밝게 빛나더라

전화의 날 부모잃은 열두아이 키우며  
하루에도 치마끈 열두번 조여매던  
이름없는 그 어머니  
가슴에 금별을 바랐던가

길가다 터진 논두렁 막고간  
그런 날엔 남이 몰라도 해종일 기쁘고  
길가는 할머니 짐 못들어준 그런 날엔  
남이 몰라도 량심의 눈은 지켜보더라

심장이 멎으면  
나하나 자신을 잃지만  
량심을 버리면  
나도 부모도 온 세상도 다 잃으리니

아, 가슴속 심장이 보이지 않듯이  
마음속 량심은 보이지 않아도  
그 량심의 초석우에 높이 솟아있어라  
누리에 찬란한 어머니 내 조국이!

## 우리가 사는곳

김종원

예로부터 한뼘 명승에서 산사람은 그 명승의 아름다움을 다 모른다는 말이 있다. 그 말은 아마도 자기를 둘러싼 모든것에 도취되면 그 진의미를 다는 느끼지 못한다는 뜻일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말의 의미가 새롭게 안겨온다.

어느 일요일 아침, 나는 제 13 차 세계청년학생 축전에 참가하여 외국인들을 안내한 한동무를 찾아갔다. 옆의 아파트에 사는데도 축전기간 얼마나 바빠 보냈는지 한번도 볼수 없었던 그였다. 나는 직업상의 호기심으로 그에게서 평양축전에 참가한 외국인들의 인상에 대하여 듣고싶었기때문이다. 나는 말머리를 슬그머니 그쪽으로 끌고갔다. 그런데 그는 어쩌다 찾아온 나에게 매우 미안한 기색을 보이며 오늘도 시간이 없으니 며칠 후에 만나자는것이였다. 성황리에 진행된 평양축전은 끝나 이젠 여러 나라의 대표들도 다 갔을 것이고 더우기 오늘은 일요일인데 무슨 일에 그리도 바쁠것인가, 섭섭해하는 내 마음을 눈치챘는지 그는 축전일정계획대로 하면 자기사업이 이미 끝났으나 외국대표들이 며칠간 더 묵게 해달라고 제기하는통에 안내사업도 이렇게 연기되었다는것이다.

이런 말은 내가 처음 들은것이 아니다. 얼마전에는 아프리카의 몇개나라의 대표들은 이런 황홀한곳은 일생에 다시는 와보지 못한다면서 좀더 구경할수 있게 자금을 보내달라고 자기 나라에 요구했다는말도 들었고 어느 한 나라의 대표들은 자기 나라에서 오라는 독촉이 오자 며칠간 더 있게 해달라고 전화통지를 하였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러나 축전기간 직접 외국인들을 상대한 사람에게서 이 말을 들으니 그들의 심정을 금시 눈앞에서 느끼듯 가슴이 더 후터워왔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 집을 멀리 떠나면 며칠을 못가서 하루빨리 제집에 가고싶어하는것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고있다. 그런데 이들은 산넘고 대양건너 먼곳에 와서 심여일간을 보냈는데도 제나라 제고장을 잊은듯 우리 나라에 더 머물러 있겠다는것이다.

이 말을 들은 나의 눈앞엔 축전의 날들에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온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는 축전참가자들의 축전개막식장에서의 시위행진, 문수강안거리에 대예술화폭을 펼쳐놓은 선녀옷과 조선옷차림의 부채춤대렬, 황홀한 꽃물결을 헤치고 가듯 신비한 세계에 침취된 외

국인들의 눈길.

축전개막식과 폐막식에서의 황홀한 꽃바다, 7월의 하늘가에 내리던 억만눈송이들, 평화의 대륜무와 꿈같이 조화를 부리던 억만 불빛 불빛... 그것이 너무 눈부시고 신기하여 행사가 끝났건만 감격과 흥분에 젖어 자리를 뜰줄 모르던 세계 각국 청년대표들의 모습이 안겨온다.

그뿐이 아니다. 축전의 나날 화려한 평양의 밤을 그저 보내기가 아쉬워 잠못들고 춤추며 거닐던 모습들이며 기쁨과 행복에 넘쳐 오가는 우리 인민의 밝은 인상에 매혹되어 가던 걸음마저 멈추고 하염없이 바라보던 그 모습들...

풍치 아름다운 대동강 기슭의 맑고 푸른 물결 위에 펼쳐진 배무대에서 부르던 벗들의 노래, 명승지, 유원지들에서 그칠줄 모르던 그들의 웃음은 얼마나 밝았던가.

생각하면 하나같이 우리 평양 우리 조국에 대한 경탄과 부러움에 찬 모습들이다.

진정 이 땅에 더 머무르겠다는 나라가 어이 한들이라. 그 심정은 평양축전에 참가한 모든 나라 대표들의 한결같은 심정이 아니었던가.

그들의 모습이 뜨겁게 안겨올수록 내 생각도 깊어진다.

특색있게 건설된 현대적인 경기장들, 가는곳마다 주단같이 곱게 펼쳐진 푸른 잔디들, 해종일 근로자들의 웃음소리 그칠새없는 유원지들, 갖가지 꽃들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공원들, 그 모든것이 우리 인민이 늘 보아오고 찾아가 즐기는 곳이 아닌가. 그들이 경탄의 눈길을 보내던 거리의 곳곳들이 우리 인민이 아침저녁 오가는 출퇴근길이고 우리 삶의 보금자리이다. 그들이 걱정해 넘쳐 시에 담는 그 절경이, 하루일을 끝낸 때나 일요일이면 온 가족이 기쁨과 행복속에 즐겨 찾는 유원지들이다.

남들은 한번 와보고 매혹되어 잠시라도 더 즐기려 하는 내 조국의 수도 평양, 과연 이 땅에 사는 우리는 그 얼마나 행복한것인가.

그렇다. 남들은 축전이 진행된 짧은 나날에 보고들은것이 너무 희한하고 눈부시어 연신 감탄을 보내는곳에서 우리 인민은 날마다 레사로이 살아가는것이다.

그리고 보니 우리는 파사로운 해빛아래 행복한 인민의 락원에서 늘 살아가면서도 그 빛갈, 그 진가를 다는 모르고 살아왔다.

생각할수록 세계지도우에 이름마저 사라졌던

우리 조국을 찾아주시고 만방에 빛나는 나라로  
되게 해주신 수령님과 당에 대한 고마움이 가슴  
들먹이 차오른다. 그리고 인민을 위해 마련해준  
행복한 우리 삶의 터전에 대하여 다는 모르고 산  
그 자책이 마음의 금선을 두드린다.

진정 온 세계의 벗들이 누구나 찾아오고싶어하  
고 오면 누구나 뜨기 싫어하는 우리 조국의 수도  
평양.

하기에 평양을 와보지 않고는, 주체조선을 와  
보지 않고는 세계를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는 한

외국인의 말도 있지 않는가.

정녕 온 세계의 부러움이 차넘치는곳에 영원한  
삶의 보금자리를 정한 우리 인민의 행복과 영광  
은 얼마나 크며 바로 그 소중한 땅을 안아지키는  
락원의 수호자, 총천 병사의 영예와 긍지는 또  
얼마나 큰것인가.

나에겐 그 어떤 희귀한것이 눈길을 유혹한다고  
해도 나의 조국밖에는 더는 모른다는 크나큰 긍  
지와 자부심이 가슴깊이 자리잡고있다.

## 80년대 청춘들에게

박세일

10년이란 세월이 어느새 흘렀구나  
열여덟살 애송이로 조심스럽게  
80년대 문어구에 들어섰던 우리  
보아라, 오늘은 넓은 가슴 뿔내며  
새로운 년대향해 팔을 벌린다

다시보자 내또래 젊은 벗들아  
그동안 우리는 몰라보게 변했구나  
마음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가슴마다 지닌뜻도 높아졌구나

누구는 이름난 발명을 하여  
20대에 벌써 준박사가 됐다지  
북변땅 저멀리 철길건설장에선  
온 나라가 떠들썩 처녀영웅 나왔다지

내 일처럼 기쁘다, 자랑스럽다  
너나 없이 우리는 첫 시작부터  
80년대 행군길을 함께 오지 않았느냐

나의 땀이 스민 서해갑문을 볼 때  
너의 땀이 꽃핀 비날론숨을 볼 때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길에  
줄줄이 들어선 공장과 거리  
그 모든것을 오늘 다시 바라볼 때

참으로 행복이 아닐수 없구나  
일감이 많았던 80년대에  
힘이 솟는 청춘시절 맞이한것이  
조국이 크게 믿는 청년들답게  
남보다 큰 짐을 맡아멘것이

속도전 열풍을 숨결인양 내뿜으며  
전투적인 생활에 습관된 우리  
당이 부르면  
남먼저 가슴 내댄 우리

들끓으며 바쁘게 살다보니  
나이를 먹는줄도 미처 몰랐는가  
머지 않아 우리는 가정을 이룰 나이  
마음드는 안해와 남편들을 맞으리

그날에 태여날 자식들에게  
동무들아 오늘을 이야기하자  
드문드문 흰머리칼 쓸어넘기며  
외울수록 흐뭇한 그 말을 하자

-아버지 어머니의 청춘시절은  
위훈으로 가득찬 80년대  
그래서 우리는 흘러간 젊음이  
아쉽지 않구나! 자랑스럽구나!

# 새들은 노래한다

리의남

얼마전에 나는 산간지대 버스를 타고 여행하게 되었다.

종비나무, 붓나무 등 키높이 자란 나무들이 눈부리가 모자라게 펼쳐진 숲의 바다속을 달리는 버스를 타고가는 여행이란 매우 기분이 좋았다.

더구나 어느 한 정류소에서 알아맞추기경연에 갔다온다는 어린 학생들이 올라서 흥성거리는 바람에 더욱더 흥겨웠다.

알아맞추기경연을 어디서 했더니, 어떤 문제가 나왔더니고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내옆에 앉은 학생이 불쑥 이렇게 물었다.

《아저씨, 새들이 우나요? 노래하나요?》

뜻밖의 질문에 나는 어리둥절해서 어린 학생을 마주보며 되물었다.

《알아맞추기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더니?》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은 새들이 노래한다고 하시는데 어제 본 영화에서는 새가 운대요.》

그제야 소년이 묻는 뜻을 알아차린 나는 미소를 띄웠다. 하지만 선뜻 대답할수 없는 질문이어서 머뭇거렸다. 이런 답은 백과사전에도 없을것이다. 이윽해서야 나는 학생에게 무슨 영화를 봤는가고 물었다.

《혁명영화 〈피바다〉를 봤습니다.》

그제야 나는 생각나는것이 있어서 주저없이 대답했다.

《너희 선생님의 말씀도 옳고 영화에 나오는것도 옳다.》

그러자 이번에는 의문이 잔뜩 실린 소년의 눈이 나를 말뚱말뚱 쳐다보고있다.

둘중에 하나는 반드시 꺾포라고 생각했던 소년이였으므로 나의 대답이 불만스러웠던 모양이다.

그래서 나는 소년을 리해시켜야 했다.

《지난날 나라가 피바다에 잠겼을 때는 새들이 울었지만 모두가 행복하게 살고있는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새들이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는 저도 모르게 그 어떤 승엄한 감정으로 가슴이 뿌듯해났다.

《그러면 다른 나라의 새들은요?》

소년은 의문을 감추지 못했다.

《새들이 노래하는가 우는가 하는것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달린거란다. 행복한 나라의 행복한

인민에게는 새소리가 노래소리처럼 들리지만 행복하지 못하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새들의 소리가 울음소리처럼 들린다.》

감수성이 빠른 어린 나이에는 의문이 많은것처럼 리해력도 빠른것이다.

소년은 알겠다는듯 머리를 까닥거리고나서 창밖의 맑은 하늘을 날고있는 새들을 바라본다.

이 순간 나의 머리속에는 누군가가 지은 노래의 한구절이 떠올랐다.

꽃을 봐도 내 조국에 피는 꽃이 더 곱고

물을 봐도 내 조국의 맑은 물이 더 좋네

수령님 그 사랑이 강산에 넘쳐나니

살기 좋은 금수강산 내 나라가 제일 좋아...

사실 오래동안 외국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조국에 있을 때는 미처 느끼지 못했는데 외국에 나가있으면 정다운 고향산천이 있는 조국이 것처럼 보고싶고 조국의 흙을 쥐고 불에 비비고싶은 생각이 간절해진다고 한다.

그러기에 외국여행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웅장 화려한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즐비하게 일떠선 도시들과 백과주렁지고 풍년이삭 무르익는 사회주의문화농촌을 보며 《정말 내 조국이 제일이로구나!》 하는 탄성을 지르는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다.

내 조국이 제일이다!- 이것은 자기 조국에 대한 우리 인민의 가장 절절한 사랑과 가장 높은 긍지의 탄성이며 노래이다.

내 조국이 제일이다!-바로 이 말속에 우리의 아름다운 강토와 인민, 우리의 제도, 우리의 창조물에 대한 끝없는 자부심이 있다.

우리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이다. 우리 나라는 산 좋고 물 맑고 햇빛 밝은 나라, 어데 가나 록음방초 우거진 산이 있고 새들이 노래하는 꽃동산이 있다.

정녕 우리 인민은 세상에 우리 조국보다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를 모른다.

오늘 우리가 긍지높이 노래하는 우리 조국은 경치 좋고 햇빛 밝은 자연때문에만 제일인것이 아니다.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모시고 살기때문인것이다.

우리 조국이 세상에서 제일 으뜸가는 나라, 아름답고 황홀한 모든것이 집대성된 나라로 될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어버이수령님께서 일제에게 짓밟힌 조국을 찾아주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빛내여주시였기때문이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 아니었다면 상가집 개만도 못하게 살아온 우리 인민이 오늘 지니고있는 행복과 존엄을 상상도 못했을것이다.

돌이켜보면 짓눌리우고 천대받던 망국노의 신세를 한탄하며 선조의 무덤이 있고 자기의 태줄을 묻은 고향도 나라도 등지고 타향으로 피눈물을 뿌리며 흘러간 사람이 몇천이던가 몇만이던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지 못했을 때의 조선, 검은 구름이 짙게 드리웠던 이 땅에서는 모든것이 절망적이었다. 조국의 모든것을 보고 느끼는 감정 또한 절망적이였으며 따라서 구슬프게 느껴졌던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조국의 자연, 그자체는 아름다웠으나 아름다운 노래가 울리지 않았고 갖가지 꽃들이 만발한 봄의 훈향을 두고도 즐거운 노래가 흘러나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인들은 천하명승 금강산을 보고도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라 구슬픈 노래를 지었고 붉게 핀 진달래를 보고도 노래아닌 아픈 가슴을 터놓았다.

새들이 우짖는 소리를 감득하는 아이들의 감정도 시인의 감정과 다를바 없는것이다.

그렇다! 조국의 아름다움은 인간의 행복에 정비례하고 인간의 불행에 반비례되는게 아닌가.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심으로 하여 인간이 누릴수 있는 행복의 절정에 올라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강도 일제와 싸워 이김으로써 광복된 조국을 안아오시였으며 이 땅 위에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우시였다.

그리하여 새들의 울음소리, 인민들의 신음소리를 장송곡처럼 뒤에 두고 조국을 떠나갔던 우리 인민이 행복의 노래를 부르며 돌아왔으며 영광의 노래를 부르며 복된 삶을 누리고있다.

주체조선의 인민이라는 땃땃한 자부심을 가지

고 세계무대에 당당히 나선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는 수령님을 모신 크나큰 민족의 영예와 긍지, 끝없는 행복과 자랑이 얼마나 세차게 굽이치고 있는가.

또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살고있는 우리 인민을 세상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고있는가.

우리 조국을 찾는 외국의 벗들은 부러움에 찬 목소리로 말하고있다.

《인류의 리상이 현실로 꽃피고있는곳이 바로 조선이다.》

《조선은 정말 인민의 지상락원으로 전변되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과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조선인민이 부럽다.》

이 얼마나 우리들로 하여금 주체조국에서 사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말인가.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날을 따라 더욱더 존엄있는 인간으로 변모되어가고있으며 우리의 행복 또한 날을 따라 커가고있다.

따라서 우리의 노래, 행복의 노래소리 더욱더 높고 우렁차게 울려퍼지고있다.

생각할수록 나는 벽차오르는 가슴을 억제하지 못하며 저녁노을이 비낀 차창밖으로 조용히 눈길을 옮기였다.

어느새 버스에서 내린 소년학생들이 달려가는 곳에 아담한 문화농촌의 아름다운 경치가 한눈에 안겨왔다. 갖가지 아름다운 새들이 즐겁게 노래하며 풍년나라 물결치는 포전우로 훌훌 날아오른다.

산기슭에 높이 솟은 비수리나무에 매달린 고성기에서는 경쾌한 노래소리가 울려온다.

어버이수령님 모시여  
누리에 찬란한 내 조국  
천만년 받들어빛내갈  
끝없이 귀중한 품이여

나는 걱정에 넘쳐 이 노래 《은혜로운 조국의 품이여》를 입속으로 따라불렀다.

노래를 따라부르는 나의 가슴에는 체일강산-주체조국의 품속에서 사는 행복감이 더욱더 뿌듯하게 차올랐다.

# 진달래 피는 그 봄날에

박상민

해빛과 함께  
별빛과 함께  
그날은 우리 집에 머물러있네

레사로운 날  
아름차게 안겨지는 행복을 안고  
우리를 때면  
온 집안의 기쁨을 안아오시는  
사랑의 그 미소  
아, 그날의 사진속에 뜨겁게 어려있네

진달래피는 그 봄날  
귀국한 우리들 보고싶다시며  
머나먼 길 찾아오신 우리 수령님  
온 가족을 한품에 껴안으시고 찍은 사진  
우러르면 오늘도  
그 품에 우리모두 안겨있어라

우러르면  
이역땅 거친 바람에  
터갈라진 이 손 잡고 환히 웃으시며  
조국의 하늘이 얼마나 맑은가고  
하시던 그 말씀 귀에 쟁쟁쿠나

사랑속에 믿음속에  
봄날의 꽃망울인듯 새롭게  
우리가 태어나던 행복한 순간은  
영원히 우리 집에 머물러있구나

찬비 그을 한치의 처마도 있었던가  
봄을 즐길 꽃 한송이 정다웠던가  
사는것이 원썩갈던 이국의 나그네  
조국의 품에 안기지 못했다면  
수령님 그 품에 안기지 못했다면  
아, 인생은 얼마나 고달팠으랴

지금도  
따뜻한 그 손길은 나의 어깨를 쓸어주시는듯  
가슴속에선 봄날의 눈석이인양  
감사와 걱정과 눈물이 흘러내려  
쌓이고쌓였던 설음 통채로 무너져내리던  
진달래피는 그 봄날을 잊지 못해

때없이 그 사진 우러르면  
가슴뜨거워라  
그 사랑 그 해빛  
그 어느 하루인들  
우리결을 떠나신적 있었던가  
우리 생활 아니 돌보신 날 있었던가

정녕, 수령님은 아버지되시여  
우리 가정의 래일까지 지켜주시여라  
아,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자애로운 그 미소 언제나 어려있는 우리 집은  
행복만이  
기쁨만이 망울터치는  
따뜻한 봄날에만 살아라

## 은혜로운 조국의 품속에 안겨 30년

### 참가자들

**류 벽** 소설가  
**김태경** 시인 (준박사 부교수)  
**리호인** 소설가

**남대현** 소설가  
**강귀미** 소설가  
**본사기자**

**본사기자** 오늘 우리는 번영하는 우리 조국의 력사와 더불어 재일동포들의 귀국실현 30돐을 뜻깊게 맞이하면서 귀국작가들과 한자리에 모여 앉았습니다.

흘러온 년대를 돌아보면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온 세계가 떠들썩하며 이목을 집중하는 가운데 첫 귀국선이 오던 날이 어제같은데 벌써 30년세월이 흘렀습니다.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들 하는데 십년세월이 세번이나 흘렀으니 여러분들의 사생활에서는 물론 창작에서도 훌륭한 열매들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동** 그렇습니다.

**본사기자** 제가 알건대 장권소설 《해빛만리》(제1부), 《후대의 길》, 《청춘송가》를 비롯해서 중편소설들인 《배고동소리》, 《조국의 품속에서》, 장편실화 《나는 조선사람이다》와 시집 《배고동소리 울려라》 등 큰 형식의 문학작품들과 단편소설들인 《조국》, 《광주의 새벽》, 《삶의 위치》 등이 여러분들이 창작하신 작품들이 아닙니까?

**류 벽** 그렇습니다. 그 모든 작품들이 자본주의 사회인 일본땅에 살던 우리들이 은혜로운 조국의 품에 안겨 쓴 작품들입니다.

**리호인** 정말 위대한 수령님의 품인 조국의 품에 안기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자기의 목소리로 조국을 노래할수 있었겠습니까!

**본사기자** 옳은 말씀입니다.

예로부터 나라없는 백성은 상가집 개만도 못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조국이 없다면 오늘의 우리 행복, 래일의 찬란한 미래를 상상할수 없는것입니다.

여기 모이신분들은 이국살이 설움을 누구보다 강하게 체험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강귀미** 정말 약육강식이 성행하는 황금만능의 사회인 일본땅에서 나서자란 우리에게 있어서 조국이란 말만 들어도 눈곱이 찌릿이 젖어들고 가슴 후터워오르는곳이었습니다. 저는 일본 고베의 깊은 산속에서 태어나 평범한 조선부락 빈민굴에서 어린시절을 보냈습니다.

**본사기자** 그러니까 고향이 일본이군요.

**강귀미** 그렇습니다. 언젠가 제가 쓴 작품에도 나오다싶이 《하모니카》집에서 꿈많은 유년시절을 보내면서 민족적천대를 받으며 가난한 살림을 이어가려고 애쓰는 부모들의 피눈물나는 생활은 어린 나에게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속에 조용히 자리잡게 해주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조국이란 한번도 본적 없고 머리속에 그 표상조차 없었으나 노을지는 저녁이면 조국이 그리워 눈물짓곤하였습니다.

**리호인** 저 역시 일본 효고현 아마가사키 공업도시에서 망국노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나의 첫눈에 비쳐든것이 인단상표조각이였고 다 자라도록 고유한 조선치마저고리를 입은 녀자들의 모습대신 일본기모노를 펼친 모습만을 보았고 누런 벼짚이영을 인 초가집에 박통들이 등실 등실 매달린 조선적인 모습은 볼래야 볼수도 없었지요. 우리에게 뒤따른것도 《조선쟁》, 《넌니꾸꾸싸이》 등 수난당한 우리들을 비웃는 목소리였습니다.

**본사기자** 그러니 그속에서 오늘과 같이 이처럼 작가가 된다는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겠지요?

**일동** 옳습니다.

**본사기자** 참 김태경선생에게는 이런 자리에서 할 이야기가 더 많으시리라고 보는데요.

**김태경** 그렇습니다. 저의 고향은 우리 조국의 남쪽끝인 제주도인데 고향에는 이런 민요가 있습니다.

식은 밥이 밥이런가  
해녀가 사람인가

다시말해서 해녀는 사람값에 가지 않는다는것이지요. 제가 바로 해녀의 아들입니다.

사람 아닌 천대를 받으며 살던 제가 은혜로운 사회주의조국의 품인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긴지도 어언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만년 세월이 흐른대도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던 뜻깊은 그날의 그 감격을 영원히 잊을수 없습

니다.

저는 1968년 공화국창건 20돐을 맞으며 재일 조선인축하단 성원으로 조국에 왔습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 나라 수반들과 대표단들과의 사업때문에 무척 분망하신 나날을 보내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일조선인축하단성원들을 접견해주셨습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제가 조선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창작도 하였다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사회주의조국에서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우라고 자애 깊게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저는 김형직사범대학 어문학부에서 교편을 잡고 후대들을 가르치는 한편 시창작을 계속 즐기치게 벌려왔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준박사의 학위와 함께 부교수의 학직을 받았으며 올해에는 시집 《배고동소리 울러라》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본사기자** 예, 진정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겨서 인간이 받아안아야 할 온갖 영광을 다 지냈군요. 그러니 사람위주의 사상이 현실로 꽃피고있는 사회주의조국에서 부르는 시인의 노래 역시 한없이 뜨겁고 열렬한것이 아니겠습니까.

**강귀미** 방금 김태경선생님도 이야기했지만 저 역시 은혜로운 조국의 품에 안기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것이 새롭게 안겨와 자본주의나라와 대비되면서 모든 생활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무엇인가 끝없이 이야기하고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나의 희망대로 기자가 되었으나 한두편의 기사에 그 모든걸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그릇이 작습니다. 하여 저는 늘 가슴속에 품고있는 조국에 대한 고마움을 소설에 담아 써보았습니다. 그런데 작가동맹에서는 많은 작품도 써내지 못한 저를 작가동맹 맹원으로 받아주었고 작품을 쓰도록 전적으로 보장해주고있습니다.

**본사기자** 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강귀미동무의 작품인 텔레비전소설 《삶의 위치》를 친히 보아주시고 텔레비전으로 방영하도록 배려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강귀미** 그렇습니다. 저는 그저 어린 시절 눈물 속에 보아오던 할머니의 모습을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겨 자기 삶의 위치를 당당히 지켜나가는 모습으로 그려보았을뿐입니다.

저는 앞으로의 모든 작품들도 각이한 운명의 인간들이 은혜로운 조국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는데 모를 박고 쓸 결심입니다.

**본사기자** 강귀미동무뿐만아니라 류벽선생도 리호인선생도 모두 자기의 작품에서 해외동포들의 운명문제를 많이 다루고있는데 어떻습니까.

**류벽** 예, 저는 지금 《해빛만리》(제2부)를 추고중에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일본땅에 총련지부를 번듯하게 꾸려놓고 귀국운동을 벌리고 귀국이 실현되던 감격적인 이야기를 기본줄거리로 하고있

습니다.

귀국이 실현되던 그때 온 세계에서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민족의 대 이동》이라고 떠들어대고 일본에 있는 조선동포들은 너도나도 조국으로 가자고 흥분되어 떨쳐일어났습니다. 당시 우리의 이 귀국운동은 일본 10대뉴스에서는 세번째 자리를 차지했고 세계 10대뉴스에서는 네번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10대뉴스란 1년중 사변으로 되는 10가지 특별보도를 말하는것입니다.

그 나날에 감격스럽던 이야기들을 주인공들의 운명선을 통하여 보여주려 했는데 잘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리호인** 저 역시 《후대의 길》에서도 말했지만 앞으로도 수백만 해외동포 1세, 2세, 3세들이 조국을 잊지 않고 조선사람의 넋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에 이바지하는 글을 많이 쓸 결심입니다.

당면하게는 20여년을 하루와 같이 자기의 모든 심혈을 기울여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꽃을 피우고 그 꽃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존함을 모시여 선물로 올린 가모에 대한 이야기를 큰 형식으로 써서 세상에 내놓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본사기자** 참 남대현동무의 장편소설 《청춘송가》는 남조선에서 출판되어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속에 널리 읽히우고 작품밑에 총련출신작가로 박아써서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남대현** 예, 저는 교향이 남조선이고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조국에 귀국하여 김정일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작가로 된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하여 저는 새 세대 작가로서 현실주제작품들과 조국통일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많이 써서 싸우는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을 더욱 힘있게 고무하겠습니다.

**본사기자** 예, 좋은 결심들입니다.

은혜로운 태양이 있어 만물이 소생하고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맺히듯이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사회주의조국이 있기에 우리는 이처럼 오늘과 같이 보람찬 삶을 누리고있는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셨기에 길가의 조약돌마냥 흩어져 굴욕과 천대를 받으며 살던 망국의 수난자들이 세계무대에 공화국기를 펄펄 휘날릴수 있게 되었고 조국을 떠나 머나먼 타향에 사는 해외공민들도 그 품을 우리러 민족의 존엄을 곳곳이 지켜가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동** 옹습니다.

**본사기자** 오늘 우리는 귀국실현 30돐을 맞으며 여러분들과 자리를 같이하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고마운 조국을 받드는 길에서 더 좋은 글을 더 많이 써서 위대한 수령님께



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리고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치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더욱 힘있게 고무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본사기자 리종성

## 내가 택한 길

김태경

혈육도

고향친구도

원썩들의 발악책동도

내가 찾은 길만은 막을수 없었다

오랜 세월 생리별끝에

두팔 벌려 애타게 부르며 나를 찾는

살뜰한 어머니당의 목소리에

마음은 하늘을 날아 평양에 잇닿고

심장은 터질듯 조국 안고 불타올라라

누구도

조국 향한 내 마음을 꺾을수 없었다

명멸하는 도시의 현란한 불빛도

술잔에 차넘치는 향기로운 포도주도

막을수 없었다 내가 택한 길만은

만경창파에 배고동 울리며

어서 오라 조국은 손꼽아기다리는데

내 또다시 이국땅 으스스한 거리에서

손발을 묶이우고 입을 다문채

쓰디쓴 추억안고 허송세월한다면

그것은 치욕의 나날 산 송장의 신세

아 미칠듯 몸부림치며 웨쳤어라

험벗고 배고픈 설움은 참을수 있어도

민족의 존엄, 인간의 권리마저 빼앗긴채

진수성찬으로 백년을 산들

그게 무슨 삶이더냐 ?

그게 무슨 인생이더냐?

내 흉 한삽을 뜨고

한줌의 탄을 캐여도

내 조국의 대지를 걸고

조국을 떠받드는 고임돌이 되고파

하여 당에 드리는 깨끗한 량심이

그대로 보석처럼 빛을 뿌리고

흘리는 구슬땀 방울방울이

그대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파

재생의 길 귀국의 길에 올랐어라

수령님 우러러 당을 따라

결심 품고 귀국의 길에 오른것은

나 하나의 안락을 위해서가 아니였다

나 하나의 부귀영화를 위해서가 아니였다

나서자란 고향땅은 남녘 이지만

내 생을 누릴곳은 평양이기에

심장을 바칠곳은 조국이기에

서슴없이 주저없이 이 길에 올랐어라

아 내가 찾은 조국에로의 길은

막바지에 섰던 인생이 찾은

참된 삶의 탄탄한 대로

조국에 뿌리박고 살아온 30 년은

당을 따라 영생하는 혁명의 길

통일을 앞당기는 영광의 길이어라

# 아버지의 마음

리장건

△현대 어느 광산에서  
△나오는 사람들  
상득… (대형차운전사)  
홍씨… (그의 아내)  
강태… (딸아들)  
용태… (둘째아들)  
신애… (강태의 애인)  
엄도… (책임 검차공)  
산옥… (신호공)

△저 멀리 운무가 흐르는 높은 산정우로 밝은 전  
조등을 뿌리는 대형차들의 거창한 흐름이 펼  
쳐져있다.  
△그 어떤 마음들이 저 운광길을 지켜가는것인  
가?! 방창이 울린다.

부모의 사랑은 내리고  
자식의 효성은 오르는 법  
내리는 사랑에 효성이 따름은  
인간이 지키는 도리라네  
수령의 사랑에 충성이 따르는것은  
아- 어버이 받드는 의리라네

△음악속에 자막이 새겨진다.

## 단막희곡

### 아버지의 마음

#### 제1장

△무대: 사회주의조국을 찾은 상득일가가 살고 있  
는 광산마을, 우측으로 창밖은 살림집일부가  
보이고 살구꽃나무 그늘아래 돌의자가 놓여  
있다.  
아담한 담장결에 수도가가 보이고 그옆에 갖가지  
화분꽃들이 소담하게 피여있다. 저 멀리 로  
천광산의 웅자가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답다.  
△밝은 음악속에 막이 열리면  
용태 (낚시대와 물고기구력을 들고들어오며) 어  
머니!  
홍씨 (부엌에서 나오며) 아이구나! 그게 뭐냐?  
용태 만형님이 좋아하는 두만강 쏘가리예요! 어  
머니! 고출 얼벌벌하게 넣구 남비탕을 끓이  
라요!  
홍씨 오냐. 오냐 (수도가에서 그릇에 담으며) 호  
호… 대학을 졸업한 첫째가 며느리감을 데리

고 오는 날인데 마침 잘됐구나. 용태 (소곤  
대듯)아버진 아직 안오셨지요?  
홍씨 그럼. 꼭두새벽에 나간 령감이 원, 밥생각  
두 안나는가? …에게, 저기 마침 오는구나.  
상득 (부속품주머니 메고들어오며) 용태야, 수리  
직장에 부속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봤냐?  
용태 (손을 씻으며) 말긴거야 깎아주겠지요 뭐.  
상득 이녀석!…  
홍씨 에구 깜짝이야.  
상득 제 심장을 남한테 떼맡기구두 태평심산가?  
어서 닝큼 가보지 못할가?  
용태 예, 예 알겠어요. (급히 웃웃을 찾는다.)  
상득 (주머니안에서 치차를 꺼내주며)였다. 이것  
두 말겨라. 귀가 좀 문드러졌지만 재생하면  
꽤 쓸만하겠구나.  
용태 네 알겠어요. 아버지! (받아들고 나간다. )  
홍씨 원 령감두. 당신은 그저 자동차밖에 모르  
는구려…  
△상득 토방에 앉아 부속품을 닦는다.  
엄도 (담광주리를 안고 들어오며) 이사람. 상득  
이. 대학을 졸업한 강태가 평양에서 색시감  
을 데리구 온다면서?  
상득 예. 그렇습니다. 형님!  
엄도 임잔 복있는 사람이야. 끝끝한 아들을 셋  
이나 두고있으니 딸만 가진 사람은 부러워서  
살겠나, 젠장.  
홍씨 호호… 아주버니 딸이 어쩔게요? 구실못할  
아들 한구들보다 똑똑한 딸 하나가 낫답디  
다.  
엄도 그렇던가요? 허허… 아주머니! 자요!  
홍씨 (받아들고) 아니 무슨 닳을 이렇게?  
엄도 변변치 않지만 먼길을 찾아온 자식들에게  
곰을 해주시우?  
홍씨 원 아주버니두…  
엄도 부모들의 마음이란 자식을 뜻대로 키운것  
처럼 기쁠 때가 없지요. 이제 양성소에 간  
막내아들만 돌아오면 온 집안식구가 다 모이  
는셈이로군!  
홍씨 그러문요. 끝끝한 4부자 대가정이 되지요.  
호호…(부엌으로 들어간다.)  
상득 형님, 안으로 좀 들어갑시다.  
엄도 그럴 시간이 없네. 이사람상득이 자네가 8  
호의 제대신청을 거부해나섰다는게 사실인  
가?  
상득 예. 오늘부터 그차는 내가 맡기로 작성했

수다.

엄도 자네 정신있나. 그차는 이미 낡았어. 이달이나 넘기기는 설비직장 견인차로 돌리려는 낡은차를 임자가 어떻게 다룬다구 그러나?

상득 형님, 그 88혼 우리 강태가 조국에 와서 첫 운전대를 잡아보던 차웨다. 그 앤 그차를 타고 조국을 배우게 됐지요. 대학을 졸업한 강태가 오자바람으로 88호를 찾을텐데 그걸 견인차로 돌린다는걸 알면 얼마나 섭섭해하겠나요.

엄도 그러니 자식을 위해 88혼 살리겠다는건가?

상득 걱정마시우 형님, 우리 강태가 대학에서 평장한걸 연구하고있는데 그걸 88호에 도입하면 새차두 당해내지 못할거웨다. 이제 두고 보시우.

엄도 음...임자 잘 생각했네. 그러잖아두 지금 일부사람들은 나라의 귀중한 설비를 망탕 다루면서 못쓰게 되면 나라에서 또 보내주겠거니 생각만하거든. 나라에서 아무리 대준들 밑 빠진 독 물붓기란 말일세.

상득 그래서야 안되지요. 나라에선 우리를 믿구 쇠돌계획을 세우는데 차 한대 줄어들면 그 만큼 쇠돌계획이 줄어들지 않나요.

엄도 그렇다구 덮어놓고 낡은것을 고집해두 안되지. 좌우간 88호문제는 최종기술검정때 다시 보자구! (나간다.)

상득 아니 형님? -음... (생각에 잠기다가 구석에 세워놓은 자전거를 잡는다.)

홍씨 (나오며) 아니 여보, 애데 또 가시려우?

상득 수리직장에 열른 다녀오겠소. (뒤바퀴를 눌러보더니 뿔프를 들고나온다.)

홍씨 원 령감두, 이젠 좀 몸을 돌보구려. 예순고걸 뿔느라 근력이 진해빠진 당신이 무슨 맥을 추겠다구 이렇게 극성이지우? 상득 허... 하긴 로친네 말두 옳아. 이젠 운전칸사다릴 오를 때두 다리가 꺾이구. 나사를 조일 땐 온몸을 도사려두 딱딱 맞서거든.

홍씨 그것보시우 나이는 못속여요.

상득 (세관계 뿔프질하며) 하지만 겁날거 없어. 우리 강태가 있지 않소? 그 애가 운광에 올라오면 3부자가 합심해서 안될 일이 있을라구?...

홍씨 원 령감두...

상득 여보, 로친네 내 어제밤 무슨 꿈을 꿔는지 아우? 강태 그녀석이 운광현장기사로 척 배치받아왔는데 나보구 88혼 함께 타보자구하더란말이요!

홍씨 당신하구요?

상득 그럼! 그녀석이 하얀 수갑을 끼구 운전대를 척 잡으니까 88호가 구름을 휘감구 하늘로 승천하는게 로케를 찍먹했더란 말이요.

하하...

홍씨 호호...그게 아들덕분에 령감이 횡재한다는 꿈이 아니요?

상득 횡재하게 됐지! 고진감래라!...이제 두고 보라구! (자전거를 타고 마당을 한바퀴 돌면서)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조음 보오소 - (노래부르며 나간다.)

홍씨 호호...원, 령감두. 예구 이정신봐. 첫째가 올 시간이 됐는데 왜 이러구있을가? (급히 나간다.)

△사이

△환한 옷차림한 강태와 신애가 트렁크를 들고 들어온다.

강태 다왔소! 이게 바로 우리 집이요!

신애 네에... (긴장해진다.)

강태 어머니! 응? 집이 났나? 좌우간 들어가기요.

신애 네. 땀을 좀 들이구요. (광산을 쳐다보며) 야! 정말 굉장하군요.

강태 그럼, 우리 나라 경제의 명맥이라 볼수 있지. 내 일본에서 어느 잡지를 봤는데말이요. 노구찌가 일본패망이 가져다준 비극은 동방에서 제일 큰 이 철봉광산을 못먹게 된거라구 통탄했다더구만.

신애 그러니까 강태동문 일본에 있을 때부터 이 철봉광산을 잘 알고있었구만요.

강태 그럼 조국에 와서 사회생활의 첫자국을 내디딘 지점이고 오늘의 희망을 성취하도록 떠밀어준 《동포2세의 고향》이라고 볼수 있지 하하...

신애 《동포2세의 고향》이요? 호호.

△이때 홍씨, 산옥 망돌을 들고나온다.

홍씨 강태야!

강태 어머니! 그동안 편안하셨어요? (신애도 함께 인사한다.)

홍씨 오냐. 오냐. 호호...

산옥 강태오빠!

강태 산옥아!

산옥 언니! 야 (신애의 손을 잡고 빙 돈다.)

신애 호호... 그새 잘 있었니?

홍씨 아니 너희들은 언제 뵈써?

산옥 전번에 전국근로자노래경연에 올라가서 만나봤다구 하지 않았어요?

홍씨 참 그랬겠지... 호호... 그래 아버님은 무슨 일을 하신다구?

강태 금속공업부 부부장을 한다구 편지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홍씨 참 그랬지! 일본으로 말하면 차관댁 귀공녀인데 우리같은 보잘것 없는 운전수집에서 머느리로 맞는다니... 정말 꿈만 같은 세상이지.

신애 아이참. 어머니두...

홍씨 (강태보고) 예구야 그 무거운걸... 어서 들어가자.

△강태, 홍씨 부엌으로 들어간다.

신애 산옥동무. 어찌된 일이에요. 난 그때 중앙 예술단으로 소환되는줄 알았는데...

산옥 네 호호... 그땐 정말 혼났어요. 노래경연에서 1등이라구 텔레비존에 소개되자 중앙예술단체들에서 단장동지랑 연출가동지랑 내팔을 막 잡아끌지 않아요. 글썄...

신애 그래서요?

산옥 그런데 왜선지 마음이 끌리지 않더군요.

신애 아니 처녀가 무슨 고집을 부렸게?

산옥 고집이라구요? 그런데 아니예요. 언니! 참 외는 년출을 떠나서 못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재고장의 자랑을 안고 산다지만 난 우리고장처럼 자랑많은곳이 없다고 봐요.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철봉광산을 잊지 않으시고 김철과 강선이 명줄을 걸고있는 철봉광산이 어떻게 제구실하는가에 따라 나라의 경제가 좌우된다고 교시하시었어요.

신애 아버지수령님께서?

산옥 네. 이렇게 귀중한 보배산에 태를 묻었다구 우리 아버지진 저의 이름을 산옥이라구 지었대요. 전 어릴 때부터 철봉광산과 제이름을 한시두 떼어놓고 생각해보본적이 없어요.

신애 산옥아! 듣고보니 네생각이 정말 훌륭하구나.

산옥 아이참 언니두 호호...

△이때 《빵!》하는 소리.

신애 어마나! (놀라서 뒤걸음친다.)

강태 (부엌에서 나오며)이거 무슨 소리야?

산옥 강태오빠. 저기 아버님이 오세요.

강태 뭐 아버지가! 아버지! -(달려나간다.)

산옥 언니 놀랄거 없어요. 이제 발파소리에 익숙되면 저런 다이야 빵꾸소린 곱쩍두 안해요. 호호...

△뒤에서 부자간의 상봉의 목소리.

△신애 긴장해서 옷맵시를 바로잡는다.

△무거운 부속을 실은 자전거를 부축하며 상득, 강태, 용태 나온다.

상득 허 자전거가 집앞에서 빵꾸났으니망정이지 큰일날뻔했구나.

용태 글썄 말예요. 하늘두 우리편예요.

강태 아버지두 이젠 이 자전거바퀴처럼 빵꾸날 때가 됐어요.

상득 건 무슨 소리냐?

강태 힘이 부친단 말예요.

상득 허허. 녀석두.

△셋이 힘을 합쳐 자전거 지지대를 세운다.

강태 아버지 신애동무예요.

신애 아버님 침 뵙겠습니다.

상득 음...(의젓하게 인사받으며) 먼데서 오느라 수고했네. 복은 쌍으로 날아든다구 우리 집안에 대학을 졸업한 기사가 단번에 들썩이나... 허허...

용태 (모자를 비딱하니 쓴채 버젓이 나서며) 형수, 내 둘째 시동생이에요.

신애 어마나.

강태 (용태를 쥐어박으며) 더퍼리 같은게. 새파란 처녀를 보구 형수가 뭐야 허허...

용태 (울쌍이 되여) 그럼 어떻게 불러야 하나! 동무? 동무는 아닌데...누이?

강태 저. 쯤...

용태 헤. 헤...좌우간 오시느라 수고했어요. (인사하고 땅에 떨어진 모자를 털어 코밑을 씻고 머리에 쓴다.)

산옥 (조용히) 용태동무. 손수건은 어땀어요?

용태 엉? 동무가 준거? (꺼내보이며)여기 있어!

산옥 어마나! (용태뒤에 숨는다.)

강태 아니 너희들은 언제 벌써?...

용태 허허...뭐 놀랄거 없어요. 보람찬 로동의 나날에 우리 우정 꽃폈지요. (산옥보고) 그렇지 잉?

산옥 어마나 (용태 잔등을 때려주고 달려나간다.)

용태 여 산옥이! 어델가?(뒤따라 나간다.)

△모두 즐겁게 웃는다.

강태 아버지 여기 좀 앉으세요. (의자에 아버지를 앉힌다.)

상득 오냐, 오냐.

강태 (트렁크에서 중절모를 꺼내며) 아버지 한번 써보세요.

상득 으응?

강태 꼭 맞는군요. 요즘 도회지에선 이런 형태가 유행이거든요. 이걸 한번 껴보세요. (색안경을 끼워준다.)

상득 음... 색안경에 도수가 있구나.

강태 네 자동도수경이지요. (뉘시대를 쥐어주며) 아버지두 이젠 나이에 맞는 취미를 골라야겠어요. 자, 어디 보자요.

상득 허허... 자 어떠냐?

강태 네네. 좋아요. (신애에게 눈짓한다.)

신애 아버님!...(상득의 뒤에 선다.)

강태 (사진기 초점을 맞추며) 일본에서는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허우적거리구 조국에 와선 자식들 뒤바라지 하느라 애를 쓰며 평생 손에다 운전대를 감아쥐구 늙어온 아버지예요.

상득 원 애두 새삼스레...

강태 (사진을 찍고나서) 아버지 생각나요? 온종일 허기진 몸으로 변소차를 몰고 거리를 나서면 사람들마다 《조센거리 변소버리지》하면서 아버지에게 침을 뱉구 돌을 던지던 일

말예요. 그래두 아버지 그 치욕스런 운전대를 놓지 못하구 오히려 일자릴 때ulgaba 회사중역앞에 허리를 굽신거리곤했지요.

상득 생각나구말구. 그래서지 난 가끔 지금 누리고있는 이 행복이 혹 꿈이 아닌가 해서 은근히 살점을 꼬집어 볼 때가 있단다. 허허...

강태 하하...아버지두 이젠 남들처럼 사회의 복리를 맘껏 향유하며 자손들에게 인생회고담이나 들려주면서 여생의 안식을 찾을 때가 됐어요!

상득 여생의 안식이라니?

강태 아버지 기뻐하세요. 전 이번에 도광업연구소에 배치받게 됐어요.

상득 아니 우리 운광대 현장기사로 내려온다더니?

강태 아버지두 참...온 집안식구가 한평생 운광에 매워 살겠나요. 상득 그게 어쨌다는거냐?

강태 눈만뜨면 쇠돌, 따분한 운광길... 여기에 무슨 락이 있어요? 이번에 저와 함께 도에 올라가자요. 도에 있는 삼촌을 내세워 무역항같은데서 소형대기차나 술술 몰면서 바다가 유보도를 거닐어 보란말예요. 아마 십년은 젊어질거예요.

상득 음... 강태야.

강태 왜 그러세요. 아버지.

상득 네가 물던 88호를 이제부턴 내가 맡게 됐다.

강태 알고있어요. 아버지.

상득 아니 벌써?

강태 아까 길에서 현장책임기사를 만났어요.

상득 그사람이 뭐라다냐?

강태 아버지가 차진했다더군요. 아버지! 새 차들이 왕왕 들어오는판인데 그따위 낡은차를 아버지가 몰다니요.

상득 뭐라구?!

강태 (한숨쉬며) 아버지두 참...

상득 음... 그래 네가 대학때 연구한다든건 어떻게 됐느냐?

강태 대형차바퀴의 쇠그물보호제 말이지요? 차차 연구하지요. 요즘은 거기에 머리쓸 경향이 없었어요.

상득 하긴 마음속에 광산이 없으니...

강태 예. 뭐라구요?

상득 아무것도 아니다.

강태 아버지 어서 집에 들어가시자요.

상득 먼저 들어가거라. 담배 한대 태우려다...

△강태, 신애 집안으로 들어간다.

△상득 떨리는 손으로 담배불을 붙인다.

△사이

홍씨 (나오며) 아니 여보 왜 그러시우?

상득 여보 로친네, 강태가 도에 배치장을 받아

놓고 날 데리러 왔다누만.

홍씨 나두 아까 들었수다. 별수 없지요. 자식은 어려서 부모를 따르지만 부모는 늙으면 자식을 따르기마련 아니우?!

상득 그러니 나더러 운광을 드라는 소린가?

홍씨 그소리야 선살때부터 귀에 못이 박힌소리가 아니요. 당신 평생에 대형차만 몰라구 손금을 쥐구 난것두 아닌데... 다이야 한짝이 850키로가 적소? 운전칸에 오를 때두 다리가 편다는 령감이 무슨 힘으로 당해내겠소?

상득 (마당을 거닐며)하긴 이젠 구새든 고목이지, 밀뿌리만 든든하면 그런대루 견더보겠네만...

홍씨 밀뿌리가 건득 쳐들렸수다. 엄지뿌리가 다 큰대루 썬지 않았소... 공연히 새며느리앞에서 고집불통이란 말을 듣지 말구 자식의 말두 듣는게 좋겠수다. (들어간다.)

△상득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는다.

△용태가 달려들어온다.

용태 아버지 야단났어요. 설비사람들이 와서 88호를 끌어가겠대요.

상득 뭐라구?

용태 빨리 가져다 설비운반차로 개조하라구 참모부에서 지령을 떨렸대요.

상득 무슨소릴 하는거냐. 88호 내 손에서 10년은 더 뺄수 있는데...당장 중지시켜라! 어서! ...

용태 네 알겠어요. (달려나간다.)

상득 (자전거의 무거운 부속을 어깨에 메며) 안된다. 안돼!...그 차를 보내선 안돼!... (달려나간다.)

△강태, 신애 집에서 나온다.

신애 (상득이 나간쪽을 보며)무슨 일일가요?

강태 보나마나 88호때문일거요.

신애 아버님이 몹시 노하셨군요.

강태 (공연히 흥분하며)신애동문 내 심정을 다는 모를거요. 이국땅에선 부모를 잘 모신다는게 한갓 꿈에 지나지 않지만 조국에 와서 왜 그 꿈을 실현할수 없단말이요. 내 조국에 와서 말이요. 나에겐 가슴아픈 상처가 있소! 그 거친땅에서 고생스럽게 살아오신 아버지를 이제라도 편히 모시고싶은게 내 소원이란 말이요! (휙 나간다.)

신애 강태동무! (생각깊이 바라볼 때)

△무대 어두워진다.

## 제 2 장

△무대. 전장에서 며칠후 락광정 산마루 한쪽에 철집이 있고 그뒤로 나즈막한 언덕이 지나간다. 언덕너머 집채같은 대형차가 서있는데 바퀴 일부는 언덕에 가리워 보이지 않는다. 자동차앞으로 저멀리 우중충한 버럭무지가

보인다.

△둔중한 대형차의 동음속에 막이 열리면

88호가 제동검사를 받고있다.

△엄도의 손짓에 따라 산옥이가 기발신호한다.

△차끼로 뜯 대형차바퀴가 앞뒤로 돌다가 멎군한다.

△엄도가 손짓하자 산옥이가 호각을 분다.

상득 (운전칸에서 머리를 내밀며) 왜 그러냐?

산옥 아저씨, 모든게 정상이에요. 어서 내려오세요!

△상득 운전칸에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온다.

엄도 제대신청을 받은 차가 이렇게 때뻬이하다니? 88호가 이제야 진짜 주인을 만났어. (책에다 기록한다)

산옥 그래요 아버지! 운전칸에두 주단을 깔구 어찌나 말끔히 닦았는지 티 한점 없구만요.

엄도 이 사람 상득이, 이번에 큰 수골했네.

상득 형님, 내 참모부예 정식 신소하겠수다. 왜 주인과 토론도 없이 88호를 제대시키자구 했나요?

엄도 그건 내 불찰일세. 책임검차공이라는게 미리 방비책을 취해야했는데 한발 늦었거든. 실은 강태가 운광대책임기사를 만나 사연을 듣고 나서 항의했더군. 아버지에게 왜 낡은 차를 맡기는가구... 여기 어디 신을 넘은 사람이 대형차 끄는걸 봤느냐구 말이네.

상득 우리 강태가요?

엄도 그러니 88호가 응당한 처분을 받은셈이지.

상득 음... 덜뉘너석같으니...

엄도 그 엘 너무 닳하지 말게. 자식은 늙어두 자식이란 말이 있잖나?

상득 그러니 형님두 그 엘 두둔하자는거요?

엄도 두둔하기보다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네.

상득 ...

△검은구름이 밀려오며 우뢰가 운다.

산옥 아버지, 또 한소나기 퍼부을것 같애요.

△상득 하늘을 쳐다보더니 비옷을 꺼내여 운전칸 지붕을 덮는다.

엄도 차들이 길을 헛들지 않게 위험개소마다 췌 불대를 세워야겠다.

산옥 췌불대를요? 알겠어요. 아버지!

△엄도 나간다.

△상득 스파나를 들고 차밀에 들어간다.

△언덕우로 용태가 바게즈를 들고 들어온다.

용태 (물걸레질하며) ...달도 없는 야밤에 자동차 달린다. 자동차 달리다가 문득 세우고...

산옥 용태동무, 나 좀 보자요.

용태 엉? (언덕에서 뛰어내리며) 왜 그래?

산옥 자요! (꽃을 수놓은 창닫개를 준다)

용태 (받아들고) 하, 이거 유리 닭겐데 향수까지 찼어?

산옥 아이참 누가 보겠어요.

용태 보면 뭐래? 허허... 산옥이, 우린 누가 뭐라든 우리의 우정을 맺어준 이 대형차와 더불어 일생을 변함없이 이 길에서 바치자구!

산옥 옳아요. 용태동무, 자동차길엔 곡선이 있어 두 운전수의 충성심에는 곡선이 없어야 한대요.

용태 히야. 그거 멋있는 말인데... 충성심에는 곡선이 없어야 한다! 알겠어. 산옥이! 난 운전수로서 동문 신호공으로서 맹세하자구.

산옥 약속하자요! (손을 덩석 잡는다)

△강태, 신애 나온다.

강태 허허, 우리가 기분을 잡치게 아니냐?

용태 체, 잡치기까지야말... (어색해서 공연히 물걸레를 비튼다)

신애 이 차가 88호예요?

강태 그렇소.

용태 우리 형이 양성술 졸업하고 첨으로 운전대를 잡았던 차예요.

강태 소꿉놀이동무처럼 다정해뵈지만 차는 비루 말처럼 심술이 많았거든. (발로 툭툭 차며) 찍하면 투정질했지.

용태 차는 운전수에게 달린거래요. 기른 말두 주인을 잘못 만나면 투정질하지 않아요.

강태 좌우간 88호까지 살려냈으니 아버지진 이젠 할일을 다한 셈이지.

용태 네?

△꾸르릉 우뢰가 운다.

신애 강태동무, 저걸 보세요. (운전칸을 가리킨다)

강태 응! 아버지 비웃이구만. 누가 씩뉘놓았니?

용태 아버지가요.

강태 로망하시는군. 옷을 덮어준다구 이렇게 큰 차가 비를 안맞을가? (차우에 올라가서 비옷을 벗긴다)

소리 누구냐?

강태 저예요 아버지!

상득 (차밀에서 나오며) 웬일이냐?

강태 아버지, 소나기가 퍼붓겠는데 어서 비옷을 입으세요.

상득 너 지금 뭘 딛고 서있냐?

강태 네?

상득 덜뉘너석! 아버지가 차밀에 있는데 머릴 딛고 올라서다니?

강태 참, 아버지두... 쇠돌이나 싹고다니는 찰 좀 딛고섰다구 뭐가 잘못되나요?

상득 뭐라구? 그래서 흙물은 신발루 마구 짓밟는단 말이나? 예익 불효자식! 이 버럭덩이같은너석!...

△신애가 얼굴을 싸진다.

△상득 쳐든 주먹을 맥없이 떨군다.

△번개불, 우뢰소리.

△음악속에 강태 굳어진다.

△상득 기침을 련발하며 주저앉는다.

용태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 열이 심하군요. 어서 약을 잡수세요. (호주머니에서 약을 꺼내준다.)

△상득 떨리는 손으로 약봉지를 펼쳐 입에 넣는다.

△용태 철집에서 주전자를 들고나온다.

용태 형은 뭐야? 비루말같은 차라구 마구 짓밟아? 아버지가 이 차를 살려내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알기나 해? 아버지가 며칠밤 고열에 지쳐 차밀에 드러누워도 형이 약을 들고왔어? 더운물 한모금 떠왔어? 그러구두 뭐 아버지를 위한다구?...

상득 용태야, 형앞에서 무슨 말본새냐?

용태 에익!...(분을 삭이지 못해 나간다)

△사이

△신애가 손수건으로 조심히 발자국을 닦는다.

강태 아버지! 아버지가 자식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리해해주신다면 전 아버지앞에서 그 어떤 모욕을 받는다해두 탓하지 않겠습니다.

상득 ?

강태 이젠 아버지가 차에서 내린다고 누구든 탓할 사람두 없구 오히려 자식들의 체면을 봐서두 응당한 처사라구 생각해야 합니다.

상득 그건 무슨 소리냐?

강태 ...방금 로동파에서 아버지의 로동수첩을 받았어요. 아버지 조국에 와서 일한지는 몇년 안되지만 열네살 때부터 일본에서 품팔이로동을 했다고 만기 로동년한으로 정해줬어요.

상득 뭐라구?

강태 아버지, 이건 조국이 아버지에게 베푸는 또 하나의 은덕이구 아버지 공화국국민이기에 그 의무를 리행해야 해요.

상득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쳐본다.

강태 이젠 여기 일은 용태에게 맡기구 아버지 저와 함께 내려가십시다.

△상득 번열이 이는듯 목단추를 끌고 주전자를 기울인다.

강태 물이 없군요. 인주세요. 제가 떠오겠어요! (신애에게 주전자를 쥐여준다)

△강태, 신애 나간다. 상득 음...

△음악속에 상득 차를 쓰다듬는다.

엄도 (촛불대를 들고 나오며) 이사람 상득이! 어서 차를 뽑아야겠네. 저길 보라구 밭파에 밀뿌리가 흔들린 바위들이 비를 맞아 당장 굴러내릴 십산이야.

상득 ...

엄도 응? 임자 신색이 좋지 않구만. 어디 아픈가?

상득 형님? 이 상득이의 날개죽지가 부러졌수다.

엄도 건 무슨 소린가?

상득 형님! 형님이 나에게 입당보증을 설 때 내 형님과 약속한게 있지요. 숨이 지는 순간까지 이 운팡길에서 쇠돌과 함께 살겠다고 말이요.

엄도 그런데 어쨌단 말인가?

상득 이젠 늙었다고 버럭돌로 따돌리니 난 어떻게 한단말이요?

엄도 임자가 늙다니? 허어 변이로군. 임잔 나보다 두살 아래가 아닌가?

상득 그렇지요. 난 형님보다 두살 아래구. 조국앞에 반생을 빚진 사람이웨다. 허무하게 살아온 공백을 메꾸자해두 형님보다 두세곱 더 뛰여야 할 나에게 이런 해임장을 쥐여주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엄도 (수첩을 보더니) 오 이것말인가?

강태 그녀석이 로동파에 찾아와서 졸라대기에 떼쳤다더군.

상득 뭐라구요?

엄도 탓할거야 없지. 자식이 부모를 편히 모시겠다는거야 좋은 일이 아닌가?

상득 덜된녀석! 피줄을 타고난 자식이 애비마음을 그렇게두 몰라주다니?

엄도 너무 꼭해 말라구. 평생을 고생스럽게 살아온 자네가 아닌가?

상득 분하웨다 대학을 공부시켜 내가 못다한 일을 넘겨주려 했는데 그애가 내 마음을 허물구 녀을 짓밟을줄은 꿈에도 몰랐수다.

엄도 하긴 록십이 많은 나이가 아니지. 고통에 이르신 우리 수령님께서 나라의 철생산때문에 심려하시는데...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도리를 지켜야 한단 말일세.

상득 용서하시우. 형님! 난 그 애손에 운전대를 잡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이웨다. 운전대라는게 길을 잘 가려보라구 잡는건데 난 그에게 인생의 길을 똑바로 가르쳐주지 못했지요.

후... (방금 교체한 대형차바퀴를 일궈세운다)

△상득 엄도와 합심하여 바퀴를 굴리며 나간다.

△김이 나는 주전자를 든 강태와 신애 나온다.

강태 아버지!...(차주변을 돌며 찾는다)

산옥 (나오다가) 어마나, 강태오빠! 언니! 언제 올라왔어요?

신애 방금전에 ...그런데 이건 뭐냐?

산옥 촛불대예요.

신애 촛불대라니?

산옥 언니, 우리 생활에선 때로는 한치의 편차가 만회할수 없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올 때가 있지요? 이 락광정에 차를 들이미는 순간이 바로 그래요. 천번중 단한번 실수해두 안되거든요.

신애 그러니 어두운 밤길에 앞을 밝히는 등대가

되겠구나.  
산옥 그래요 언니.  
신애 나두 같이하자꾸나!  
산옥 언니두요? 좋아요. 저기 있는 곡괭이를 들고  
날따라 오세요. (괭이를 안고 나간다)  
△신애 철집에 들어가 곡괭이를 들고 나오다가  
무엇을 발견한듯 주춤거린다.  
△엄도가 손을 털며 들어오다가 강태를 알아본다.

엄도 거 강태가 아닌가?  
강태 예?  
엄도 임자 마침 잘 만났네.  
강태 왜 그러세요. 아저씨.  
엄도 임자는 말끝마다 효자구실을 한다지만 내  
보건대 임자야말로 자식의 도리도 모르는 불  
효자식이거든.

강태 내가 불효자식이라니요?  
엄도 효자라면 부모의 마음을 받들고 참된 뜻을  
따르기 마련인데 임자는 아버지의 평생소원  
을 모독하고 밭을 짓밟는단 말일세.

강태 아저씨, 아무 말씀이나 해두 좋습니다. 그  
러나 아버지를 위하는 저의 진실만은 모욕하  
지 마십시오.

엄도 그렇게 아버지를 생각하는 자네가 언제부  
터 연구한다던 쇠그물보호제라는걸 왜 집어  
치웠나? 임자가 몰던 차를 되살리기 위해 아  
버지가 며칠밤 신역을 치르고있을 때 얼굴  
한번 내밀지 않던 자네가 이런거나 쥐여준다  
구 자식된 도리를 다 했던말인가?

강태 예.  
엄도 내 임자 아버지 입당보증인으로서 말해두  
네만 두번다시 아버지를 욕되게 할 생각말라  
구! (나간다)

강태 아저씨! ...에익! (언덕에서 내려오다가 신  
애와 마주친다)

신애 강태동무, 아저씨의 말씀이 옳은것 같어요.

강태 뭐요?  
신애 물론 아버지를 편히 모시겠다는 강태동무  
심정은 저두 찬동해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  
려 아버질 괴롭히고있다는걸 모르고있잖아요.

강태 ...  
△상득이가 나오다가 그들의 말을 듣는다.  
신애 나두 첩연 부모님들의 심정을 외면하고 동  
무의 립장을 무조건 지지하고 따라왔어요.  
그러나 현실에 와보니 저의 생각이 얼마나  
단순했는가를 뉘우치게 되는군요. 광산기계  
를 전공한 우리 기사들이 현실의 절박한 요  
구와 부모들의 심정을 외면해선 안된다고 생  
각해요!

강태 그럼 여기로 내려오겠다는거요?

신애 연구과제에 따라 현지연구기지를 자유로  
정할수 있잖아요.

강태 흥, 천진하구만, 남들은 준박사론문을 내놓  
고 중앙으로 올라가는데 한낱 쇠돌먼지나 뒤  
집어쓰고 살자는거요? 동무처럼 일시적 흥분  
에 들떠왔다가 한숨쉬며 돌아서는 사람이 한  
둘인줄 아우?

신애 그걸 겁내서야 어떻게 당의 뜻을 받든 광  
업기사라구 말할수 있겠어요? (곡괭이 들고  
나간다.)

강태 신애동무!  
△짜르릉 우뢰소리, 번개불.

상득 강태야,  
강태 네. 아버지!  
상득 비가 올텐데 어서 내려가려무나.

강태 아버지, 정말 섭섭해요. 자식은 아버질 위  
해 불원천리를 찾아왔는데 아버진 자식의 마  
음을 그렇게두 못알아주신단 말입니까?

상득 네 마음을 왜 모르겠냐? 너 이 광산에서  
조국을 배웠지만 네 마음속엔 이 광산이  
없단말이다.

강태 네?  
상득 이 아버지가 무엇때문에 새 차를 내놓고 8  
8홀 말은줄 아냐? 너에게 조국의 운전대를  
맡겨준 수령님 은덕을 잊지 말기 위해서이다.

강태 아버지!  
상득 그런데 넌 당초에 조국을 헛 배웠거든! 넌  
무엇때문에 조국을 찾아왔다. 응석을 부리  
자구 찾아왔다. 호강을 하자구 찾아왔다? 너  
같은 불효자식이 있기에 조국을 찾아온 동료  
들의 얼굴에 흠칠을 하는거야?

강태 네?  
상득 가거라! 넌 이 상득의 아들이 아니다. 어서  
내앞에서 사라져라.

△번개불, 우뢰소리  
강태 아버지!...  
△음악속에 무대 갑자기 어두워지며 비바람이 물  
아친다.

△강태 얼이 빠진듯...  
△상득 피로움에 가슴을 움켜쥐고 걸음 옮긴다.  
△사이

△천둥소리와 함께 바위돌들이 굴러내리는 소리  
소리 돌사태다!-

△상득 다급히 대형차에 다가간다.  
강태 아버지, 위험해요! (앞을 막는다)

△그들의 앞에 큰 바위들이 굴러내린다.

강태 (번개같이 운전칸에 오른다)  
상득 강태야! (언덕에 뛰어내려 원심을 쓰는듯  
차를 들이민다)

△대형차가 동음울리며 뒤로 후진한다.  
용태 (달려들어오며)아버지!



△신애, 산옥 달려나온다.  
신애 아버지!  
산옥 아저씨!  
△모두 상득이를 부축하며 언덕위로 오른다.  
산옥 아저씨, 어디 다치지 않았어요?  
상득 괜찮다. 차가 무사했으니 다행이구나.  
용태 아버지두 참. 돌사태가 이는데 차앞에 들  
어서시다니요.  
산옥 아저썬 정말... 하긴 제몸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차인데 산이 무너진대도 뛰어드실거  
예요.  
강태 (운전칸에서 내려서며) 아버지!  
상득 강태야, 네가 큰일을 했다. 미우나고우나  
말아들이 다르긴 다르더구나.  
강태 아버지! (머리숙인다)  
△음악이 흐른다.  
상득 (강태의 잔등을 쓰다듬으며) 강태야, 너두  
잊지 않았겠지.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날 내  
가 변소차를 몰고가다가 그만 길을 헛갈려  
마쓰야마 사장의 집 외통길에 들어서던 일  
말이다. 회사중역놈이 달려나와 변소버려지  
가 길두 가려볼줄 모른다고 나에게 못매를  
안기구 구두발로 이 손잔등을 짓이겨놓지 않  
았니. 그때 네가 아버지를 찾으며 달려나오  
던 일이 눈앞에 선하구나.  
강태 아버지! (손을 잡는다)  
△음악이 끊어지며 추억의 소음이 울린다.  
《이놈아, 더러운 찰 어데 끌고와 이자식! 이 변  
소버려지, 변소버려지, 변소버려지!-》  
《아!...》 (상득의 비명소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악성으로 울린다.  
  
상득 강태야, 이 아버지에 대한 네 진정은 어릴  
때부터 각별한줄 안다. 하지만 네가 아무리  
자식구실 잘했다해도 이국살이에 피명든 내  
가슴속 상처만은 씻어주지 못했거든. 난 조  
국에 와서 사람값에 든 사람이야. 수령님 은  
덕으로 평생의 행복을 다 독차지했던 말이  
다!...  
강태 아버지!  
상득 강태야, 놀라지 말어라. 난 얼마전에 어버  
이수령님께 편지를 올렸다.  
강태 네?  
상득 이국땅에서 구두발에 짓밟히던 이 손으로  
편지를 써서 어버이수령님께 드렸단말이다.  
강태 네? 아버지가요?  
상득 수령님께서서는 최근에 또다시 전후복구건설  
시기 강선을 찾으셨던 일을 회고하시면서 그  
때나 지금이나 나라의 철 사정은 여전히 긴  
장하다시며 우리 철봉광산에 수천명의 제대  
군인을 보내주시고 수백만원의 자금을 풀어  
주시고도 마음놓이지 않으시여 우리 로동계

급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지 그들을 한번 만  
나봐야겠다구 말씀하셨단다.  
강태 네? 어버이수령님께서요?  
상득 생각해봐라. 수령님을 어버이로 모시고 사  
는 우리가 일을 잘못해서 고통에 이르신 수  
령님을 또다시 이 험한 산정에 오르시게 한  
다면 그게 무슨 자식된 도리겠냐?  
모두!...  
상득 그래서 난 우리 대형차운전수들이 어깨가  
버그러지도록 쇠돌을 날라서 수령님 어깨에  
실리는 무거운 짐을 꼭 덜어내겠다구 편지를  
썼다!  
강태 아버지!  
상득 그러니 날 내버려두고 너희들은 어서 떠나  
거라.  
산옥 네? 떠나다니요? 강태오빠! 건 무슨 소리  
예요?  
신애 산옥아!  
산옥 언니! 정말 너무해요. 이렇게 빨리 돌아설  
길을 왜 찾아왔어요. 네? 언니!...  
신애 산옥아! 날 용서해줘. 난 하마트면 눈먼 사  
랑에 빠져 의리를 저바린 불효자식이 될번  
했어!  
산옥 네?  
신애 난 여기에 남기로 결심했어! 그건 내 마음  
보다 우리 부모님들의 간절한 부탁이야!  
산옥 네? 부모들의 부탁이라니요?  
신애 아버지! 놀라지 마세요. 얼마전에 저의 아  
버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부르심을 받았  
습니다.  
상득 뭐 입자 아버지가?  
신애 그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일군들을  
부르시여 어버이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철  
봉산문제를 풀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하나  
하나 제시하시면서 부모들도 먼곳의 자식을  
더 많이 걱정하는데 평양에서 수천리 떨어진  
이 철봉광산문제를 놓고 우리 일군들이 제  
자식처럼 진심으로 생각한적이 있는가 물으  
실 때 누구도 그이 앞에서 머리를 들수가 없  
었답니다...  
상득 !...  
신애 그날밤 저의 아버진 온밤 잠을 이루지 못  
하더군요.... 광업연구사인 제가 여기로 내려  
오는것은 자식으로서 부모님들앞에 지키는  
응당한 도리라구 생각합니다.  
상득 고맙네 고마워. 평양체네...  
신애 아버지!  
산옥 언니! (신애의 손을 잡는다)  
강태 아버지! 절 용서하십시오. 모든건 저때문입  
니다. 사실 전 여기 운광대에 배치받았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 도에 배치장을 받았습  
니다. 결국 아버지를 등에 업구 자기의 안일

과 향락을 추구한 셈이에요.

상득 뭐라구?

강태 조국의 고마움에 취하던 나머지 어느새 사회의 응석받이가 되고 말았지요. 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부모를 편하게 모신다구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것이 아니라 수령님을 충성으로 받드는 부모들의 뜻을 따르는것이 참된 자식의 도리라는걸 말입니다!

상득 옳다 강태야, 우리모두 한생을 값있게 살아 우리에게 참된 삶을 안겨주신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효성을 다하자.

강태 알겠어요. 아버지. 꼭 명심하겠습니다.

용태 아버지!

상득 애들아! (모두를 한품에 껴안는다)

△엄도, 흥씨 나온다.

엄도 이사람 상득이! 당위원회결정으로 자네가 88호책임운전수로 임명됐네. 자! 88호기술검사를 받을라구!

상득 형님!

△방창이 울린다.

수령을 받드는 충성은  
신하의 충절도 아니라네  
그 어떤 위인을 따르며 섬기는  
단순한 숭배도 아니여라  
수령의 사랑에 충성이 따르는것은  
아- 어버이 받드는 량심이어라

△강태 대형차의 발동을 건다.

△대형차가 움직어나간다.

△대형차 움직임에따라 무대가 흐른다.

△락광정 산마루 넓은 공지가 나진다.

△대형차가 밝은 화불이 밝히는 운광길을 따라  
저 멀리 달려간다.

△모두 손을 흔들어 바래울 때

-막이 내린다-

## 심장은 말한다

신형길

피로 지킨 이땅  
안아지킨 행복이여서  
피여오르는 노을을 보아도  
영근이삭 설레이는 벌에 나서도  
불타는 나의 심장이여

너는  
언제나 가슴속에서  
정다웁게 속삭이더라  
삶의 자욱자욱 헛되지 말라고  
후회없이 살라고

조용히 귀를 강구면  
설음 많던 이 땅을 구원하러  
광복의 봄빛을 안고  
조국으로 진군길을 다그치던  
투사들의 숨결소리 들려온다

이 땅우에 뿌리내린  
한떨기 진달래가  
겨레의 모습과도 같아  
불을 부비며 뛴던 투사들 심장의 고동  
가슴 가득 채워주는 소리

오 너였구나

나의 심장이  
50년 불연기 타래치는 전호가에서  
채우고 또 채우던 총탄에 어리던 그 녀  
그날에 세차게 뿜던  
불줄기에 어리던 그 증오가 아니던가

오늘도 혈전의 그 언덕에  
마음 내려쳐  
이리도 심장은 뛴다는것이냐  
길가의 한떨기의 꽃잎에도  
그날에 숨결이 어리여

우리 수령님 찾아주신 땅  
내 생애 뿌리내리고  
내 삶의 꽃을 활짝 피워준  
어머니- 나의 조국과 피줄로 이어주는  
쉽없는 그 박동소리

아  
나의 이 심장  
행복을 지켜 미래를 부르며  
언제나 준엄한 그날에  
언제나 전화의 그 시각에  
나의 녀를 이끌며  
오늘도 심장은 나에게 속삭이네

## 력사의 한페이지

권창일

### 아흐메드에게 주는 대답

(축전이 열리기 바로 전날인 6월 30일 갑자기 멈추어선  
승용차 안에서 아흐메드는 물었다.)

왜 전차들이 멎어섰는가  
왜 버스들이 멎어섰는가  
왜 질서정연하던 대통로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모여드는가

나는 대답했다  
만일 그대의 어린 딸이 집을 나가  
밤 저물게 돌아오지 않았다 생각해보라  
만일 그대의 늙은 부모 이웃에 갔다가  
약속보다 며칠 늦어졌다 생각해보라  
그대는 얼마나 근심하며 불안해 할것인가

하루저녁, 며칠, 몇달이 아니다  
우리는 40여년을 그렇게 살았다  
반세기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가슴저린 분렬의 비극을 겪으며  
기다리며 그리며 살았다

지금 저기 남녘의 대표가 왔다  
《전대협》의 대표가 왔다  
아니 대표라 하지 말자  
딸이 왔다  
손녀가 왔다  
누이가 왔다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누고

뼈를 나누  
한혈육 한가족이 왔다

40여년 헤어졌던  
식구들의 상봉인데  
철석간장이면 동하지 않으랴  
그래서 대통로가 메이도록  
사람들이 밀려들며  
손을 잡는다, 부둥키며 열싸안으며  
울고 웃는다 웃으며 흐느낀다

그대가 만일 40여년만에  
헤어졌던 딸을 만났다 생각해보라  
그대가 만일 40여년만에  
헤어졌던 누이를 만났다 생각해보라

자꾸만 렌즈가 흐려서 초점을 맞출수 없구나  
아흐메드 당신이 성의껏 책임적으로 찍으라

우리 민족의 최대의 열망이 무엇인가를  
지금 그대는 보고있다  
불에 타지 않고  
물에 녹지 않고  
세월의 흐름에도 지워지지 않는것  
그것이 겨레의 피줄이며  
그것은 끊을래야 끊을수 없다는 진리가  
아흐메드 지금 그대의 눈앞에 펼쳐져있다

## 손

너의 손  
너의 손

그 생각을 못했었지  
기쁨에 기쁨이 앞서고

감격에 감격이 앞서서  
울고 웃으며  
부둥켜잡아  
아, 그만 아프고만 너의 손

열이 잡고 백이 잡고 천이 잡은 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잡은  
 손녀의 손  
 아버지, 어머니들이 잡은  
 딸의 손  
 오빠, 언니들, 동생들이 잡은  
 누이의 손, 자매의 손

사랑스런 손  
 장한 손

최루탄의 연기에 그슬렸던 손  
 통일을 절규하는 분노의 거리에서  
 화염병을 역세게 잡았던 그 손

분단 40여년에 처음으로  
 남녘의 학생대표 한데 모여  
 세계적축제에 참가했음을

북이 부르고  
 남이 달려와  
 민족의 경사 이루었음을  
 조국의 력사에 새겨넣은 손

그렇구나  
 사랑에 뜨겁고  
 불의에 꺾이지 않는 그런 손만이  
 통일의 대문을 두드릴수 있구나

## 웃음

사선을 헤쳐온 몸이건만  
 사선을 헤쳐갈 몸이건만  
 너 어찌면 그리도 밝게 웃을수 있느냐

다감한 나이  
 웃음많은 나이  
 말하면서도 웃고  
 노래를 부르고나서도  
 목소리 끊지 못하다  
 천진하게 웃고

개막식장의  
 십오만군중을 향해  
 인사할적에도  
 웃음으로 환하던 그 얼굴

다감한 나이  
 정혜픈 나이  
 그때문이라 생각지 말라

비행장에 내린 첫 만남의 순간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 노래할적에  
 아, 오열에 북받쳐 흐느끼던 모습  
 우리 보지 않았던가

갈라져 사는 겨레의 아픔에  
 너무도 일찍 멎든 가슴이여서  
 분렬된 조국에 태어나  
 통일을 비는 마음 한이 된 그 가슴이여서  
 그 가슴에 뉘보다 슬픔많은 처녀

허나 그 눈물  
 그 아픔을 덜고 올라서  
 그가 웨치던 말

-세계의 벗들, 선생님들  
 나와 나의 옆에 계시는  
 북녘동포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모두의 얼굴엔  
 통일조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찬 확신이 비껴있습니다

아, 분렬의 고통은 가슴을 허벼도  
 오고야 말  
 통일조국의 미래를 믿기에  
 대표여, 너는 그리도  
 밝게 웃을수 있었구나

웃는 네 얼굴 간직하련다  
 웃는 네 모습 간직하련다  
 파쑈의 발굽밑에  
 네 가야 할길 시련에 찻어도  
 잊지 말아 온 겨레가  
 웃는 너를 기억하고있다는것을

그렇게 언제나  
 웃어라  
 어떠한 원썬도  
 너의 얼굴에서  
 우리의 얼굴에서  
 조국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앗아갈수 없기에...

## 《편지》

우표도 없이  
주소도 없이  
내가 보낸 《편지》  
나도 받았다

엽서도 아닌  
봉투에도 넣지 않은  
너의 그 《편지》

통일의 념원으로 걸음걸음  
한나로 가던 길  
남녘 가까운 사리원에서  
너 고향의 부모님께 올리는 그 사연

-아버지! 갈라진 땅, 갈라진 조국에서  
우리는 살수 없어요  
어머니! 우리는 통일된 조국에서  
살고싶어요

너 어찌하여  
부모님 품을 떠나 지구를 에돌아  
북행길을 왔던지  
너 어찌하여  
조국의 강토를 종단하여  
남행길을 가는지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뢴 그 사연

그 사연 어찌  
남녘에 계시는  
너의 아버지만이  
너의 어머니만이  
받아야 할 사연이라

글로가 아니라

붓으로가 아니라  
가슴속 피로써 절규한 그 사연

나도 받았다  
나도 받았다

통일된 조국을  
너희들에게 넘겨주지 못한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이 받았다

받을것이다 이 땅의 분렬을 아파하며  
긴 세월 동정과 성원으로 마음조이던  
세계의 모든 선량한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 땅의 분렬에 죄지은자  
지금 죄를 짓고있는자  
죽은자도 산자도  
모두 받을것이다

아, 더는 지속될수 없는  
민족의 아픔을 고발하며  
이 땅의 어린 딸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불러  
민족에  
세계에  
력사에 부친  
그 《편지》를 읽으라

-아버지! 갈라진 땅, 갈라진 조국에서  
우리는 살수 없어요  
어머니! 우리는 통일된 조국에서  
살고싶어요

## 판문점의 하늘은 개일것이다

그날  
온 나라는  
텔레비죤앞에 모여있었다  
화면에 나타난 판문점에는

비가 내리고있었다  
비가 내리고있었다  
백두에서 떠나

평화를 웨치며  
 통일을 웨치며  
 분계선에 다달은 국제평화대행진대  
 그속엔 남녘이 기다리는 대표  
 그속엔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그쳤으면  
 그쳤으면  
 바라는 마음에 아랑곳없이  
 먼길에 수고많은 그들의 머리위에 비내릴 때  
 우리모두의 어깨도 젖고있었다

맘속으로 비웃을 펼쳐들고  
 맘속으로 우산을 찾아들고  
 한여름 곳은 비  
 막아주고싶은 우리의 마음

비가 내리고있었다  
 비가 내리고있었다  
 근 반세기 헤어져 그리는  
 민족비운의 구름장에서 내리는  
 그것은 분단의 눈물인가

내리는 비속에 행진대는 서있었다  
 우리 청년들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웨쳤다

수경의 모습도 굳세고 의젓했다  
 이제 여기 통일의 새싹은 뿌려졌고  
 지금 내리는 비는  
 그 싹을 힘차게 움틔울것이라고

아, 하나의 조국으로 가는 길에  
 통일된 조국으로 가는 길에  
 비가 없으랴  
 눈이 없으랴  
 바람 없으랴

허나 그것을 피하렘 없이  
 그것을 두려워함 없이  
 오히려 힘으로, 기개로  
 필승의 의지로 삼으려는 그 마음

아, 이 땅의 래일을 살  
 북과 남 새세대들의 마음 이러하거든  
 우리 조국의 통일을 바라는  
 세계의 벗들의 마음 이러하거늘

비는 그칠것이다  
 판문점의 하늘은 맑게 개일것이다  
 이 땅우에 드리운  
 민족분단의 구름은 가셔질것이다

## 통일각의 6일간

럼우봉

바깥엔 중북의 레사로운 낮과 밤...  
 방안엔 끼니도 잠도 모르는 낮과 밤...

조국은 하나다-여섯 글자를  
 심장의 피를 다 기울여 새겨가던  
 그 옛새낮 그 옛새밤

떠나온 백두의 천지가 한가슴 출렁여도  
 가야 할 한나는 가슴 더욱 목말라해  
 우리 또한 맹물과 소금밖엔 권할수 없었던가

어제는 저 남녘땅도 채 모르던 애어린 처녀  
 오늘은 온 세상이 다 아는 통일의 꽃

-우리 수경이를  
 어서 부모들 품으로

어서 백만학우들속으로!

조국과 제도  
 언어와 피부색은 서로 달라도  
 하나같은 지지와 련대의 그 목소리

그렇구나 사랑하는 수경아  
 너는 하나의 조국이 돌로 갈라진 이 한복판에  
 세계의 정의와 량심들이 줄쳐 달려오는  
 국경없는 광장을 닦아놓았나니

아, 통일각의 그 6일간에  
 너는 굶으면서도 쓰러지면서도  
 분단선을 불사를 통일의 화신으로  
 다시, 두번 다시 태어났구나!

-1989. 7-

## 80년대와 통일문학에 대한 소감

김상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에 복무해야 할뿐아니라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체 조선인민의 투쟁에 복무하여야 합니다.》**

문학에 대한 소감이라든가는 남이 쓴것을 볼 때 흥미있지만 자기가 쓰고싶지는 않은 글이다. 다른 작가는 몰라도 나의 경우는 그렇다. 그것은 큰 작가들에게 있어서는 작품의 창작 과정과 경험의 역시 거장답게 독득하고 풍부해서 후진들과 독자들에게 좋은 참고로도 되고 작품과 작가를 한층 더 돋보이게도 하겠지만 나같은 준소작가의 경우에는 그와 반대로 허구라는 편리한 수단을 리용해서 겨우 축조한 구조물속에 숨겨져있는 그리 풍부하지 못한 리면세계를 작품외의 글로 드러내보이는것이 별로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좀 비겁한 소리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실지로는 그런 심정이다. 다시 말해 거장들에게는 작품외에도 독자들에게 줄것이 많겠지만 나같은 경우에는 편집부의 청탁을 받거나 독자들로부터 그런 류의 요청을 받으면 난처해지는것이다.

나는 이전에 한번 이런 지상연단에 나선적이 있다. 잡지 《청년문학》의 요청으로 해방후에 내가 어떤 계기로 문학을 시작했으며 어떻게 시인이 됐는가 하는데 대해 간단히 썼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80년대의 통일주제소설창작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라는것이다. 이것은 내가 감당하기도 어렵고 격에도 어울리지 않는 과제여서 난감할뿐이다.

우선 나는 아직 온전한 소설도 쓴 대가도 아니요 전문소설가도 아니다. 최근년간에 소설을 몇편 써보느라고 했지만 결에 놓인 소설이라는 의자를 끄당겨서 그 한도통이에 슬그머니 엉덩이를 붙여보고있는 형국으로 설사 소설가로 치더라도 늙은 신입대원에 지나지 않는다. 편집자가 그것을 모를리 없다. 그런데도 이런 글을 맡기는것은 아마 보통은 붓을 놓을 나이에 소설이라는 문학치고도 중로동에 속하는 작업을 시작한 좀 기이한 현상에 호기심이 끌리고 또 내가 쓴 몇편의 작품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이리저리하게 우리 소설가들이 많이 다루지 않는 통일문제와 관련된 주제를 취급하고있는 사실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인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부끄러운대로 좀 할말이 없지도 않다는 생각으로 붓을 들었

다.

이전에 《청년문학》에 실린 수기에서도 쓴바 있지만 원래 나는 어느편이나 하면 산문지망생이었다. 황건동무는 기억하고있는지 모르지만 해방 후 얼마 안되어 그와 나는 한자리에 모여앉아서 우리 함께 소설을 쓰자, 새조선의 소설문학을 건설하자 하고 청년문학도다운 기염을 토한 일이 있다.

그후 황건동무는 그날의 맹세를 지켜 꾸준히 소설을 썼으며 좋은 작품들을 세상에 내놓아 해방후 새 소설문학건설에 기여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느틈에 시인이 돼버리고 말았다. 가끔 향수병처럼 소설 생각이 되살아나서 그까짓거 문무점비하면 더 좋지 문학사에 그런 레가 적어서? 하는 생각으로 더러 단편소설을 써보곤 했지만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군한다.

한번은 늘 우리 집에 허물없이 놀러오던, 지금은 유명한 소설가이지만 당시는 아직 신인이었던 한 젊은 작가가 찾아와서 때마침 《문학신문》에 실린 나의 단편소설을 보고 《선생님, 이것도 소설이라고 썼습니까?》하고 공격하는바람에 그만 락심한적도 있다. 그때 나는 아마 내가 소설가의 재질이 없는가보다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잊지 못할 첫사랑의 추억처럼 나는 첫 문학지향을 버리지 못하고 그후도 시인의 간판을 떼달아놓은채 부업처럼 이럭저럭 단편집 두어개쯤은 묶을 정도의 편수를 썼으나 극히 가까운 몇몇 동료들의 예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조차 없을것이다. 그후

나는 오래동안 문학과 인연이 없는 직업에 종사하다가 70년대 말경에 다시 글쓰는 일에 돌아왔는데 여기서 나는 자신을 저주하면서 또다시 소설이라는 《거물》과 맞다들게 되었다. 첫 충격은 1980년 5월에 터진 광주인민봉기였다. 그로부터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대협》대표가 참가한 금년에 이르는 10년간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속에서 광범히 일어난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투쟁과 특히 최근년간 해외동포들속에서 급격히 고조되고있는 조국통일념원과 그 실현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이 나를 서정시의 세계에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도록 그 어떤 서사적인 문학형식에 대한 욕구로 뒤흔들어놓았다. 그리하여 나는 젊은 시절에 늘 실패만 하고 한번도 든든히 자리잡고 앉아보지 못한 소설이라는 의자에 늘그막에 또다시 조금씩 엉덩이를 들이밀게

되었는데 그 새의자와 나의 앓음새가 나 자신에게는 물론 곁에서 보는 사람에게도 매우 안정감이 없고 마치 서투른 교예를 보는 것처럼 위태로워 보이는 모양이다. 그래서 무엇때문에 안전한 의자를 버리고 구태여 불안정한 의자로 옮겨앉으려는가고 걱정해주는 동료친구도 있고 너는 소설가 재목이 못되니 아예 단념하라고 권고하는 선배도 있었다. 나는 그러한 권고들이 다 일리가 있다고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미련을 끊지 못하여 몇편을 시도해보았는데 그것들이 어느정도 소설의 체모를 갖추었는지 나 자신도 알수없다. 아마 십중팔구는 또 실패작들일것이다.

시에도 시대와 사회를 폭넓게 포괄하여 노래할 수 있는 《서사시》라는것이 있지 않은가 라는 의견이 있다. 그걸 시도해보라는 권고일것이다. 옳은 말이다. 서사시라는것이 있다. 영웅적이고 낭만적인 현시대에는 서사시라는 문학형식을 요구한다고 말할수 있다. 실제로 요새는 《서사시시대》라고 하리만큼 서사시가 쏟아져나오고있다. 너도 나도 서사시다.

마치 장편서사시 한두편 쓰지 않으면 시인축에 끼우지 못한것 같은 추세다. 그중에는 분량으로 보아 웬만한 중편소설을 뒀다가하는것들도 있다고 한다. 이것은 좋은 일이며 응당한 일이기도 하다.

명백히 말하지만 나는 그 현상을 타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서정시로 출발한 시인이 성숙되면서 서사시를 쓰는것은 세계문학사를 보아도 상례로 되어있다. 나는 다만 나 자신이 불행인지 그 상례를 따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할뿐이다.

나도 조국해방전쟁 첫시기에 우리 인민군대의 1차친공전투를 취급한 서사시를 한편 썼고 근 40년이 지나서 최근 사형수의 마지막 5분간의 삶을 노래한 길지 않은 서정서사시를 한편 썼다. 그러나 그외에는 서사시를 쓰지 않았다. 그대신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때때로 성공하지 못하는 소설을 시도했다. 여기서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을것이다. 다만 말할것은 그것이 시와 산문의 우열문제가 아니라 기질과 취향때문이었다는 사실이다.

시와 소설의 우열을 가릴 기준은 없는것이고 또 가릴수도 없다. 소설가들은 흔히 시를 두편만 쓰면 《시시》하다고 시를 야유하지만 시는 시대로 자기의 우위를 주장할 근거가 있다. 문학의 시원은 시며 모든 황홀하고 아름다운것을 《시적》이라고 말하며 평범하고 무미건조한것을 《산문적》이라고 하지 않는가? 또 있다. 《시는 기발이고 예언이지만 산문은 과거의 기록이고 보고다.》, 《시는 칼을 뽑아들고 내닫는 기마병인데 소설은 총을 메고 포복전진하는 보병이다.》 또 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은 시로 애인의 심장을 점령하지 소설을 쓰지 않는다.》 시와 기타 등등... 소설

을 겸임한 내가 존경하는 한 년로한 녀류작가는 늘 《소설을 쓰다가 시를 쓰려면 심장을 바꿔넣어야 한다.》고 재미있고 뜻깊은 말을 하군한다. 시는 보다 강렬한 정신적 연소를 필요로 하기때문에 뜨거운 심장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일것이다. 나는 심장이 하나밖에 없으니 바꿔넣을수는 없지만 그 말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소설은 또 소설대로 할 말이 있을것이다. 《시는 예리하고 뜨겁지만 협소하고 주관적이다.》, 《소설이야말로 모든 틀과 구속에서 벗어난 가장 자유롭고 표현가능성이 풍부한 현대적인 문학형식이다.》, 《군대에서 기본은 보병이다.》 하지만 이런 론의는 모두 어리석고 쓸데없는 일이다. 어느 문학리론에도 시가 우위냐 소설이 우위냐 하는 문제를 규정한것이 없고 또 있을수도 없다. 모두 제나름의 우단점이 있고 제나름의 기능이 있을것이다. 문제는 광주민봉기를 기점으로 해서 반제자주화, 반파쇼민주화투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분단비극의 극복과 조국통일에 대한 열망이 전민적범위에서 앙양되고 그 실현을 위한 거족적투쟁이 치열하게 벌어진 이 10년동안 우리 문학이 어떻게 이에 반응했는가 하는것이다.

바로 그 10년간에 문학창작사에서는 수백편의 우수한 장중편소설을 세상에 내놓았다. 이것은 큰 성과다. 그런데 나는 그 많은 작품들중 극히 적은 일부를 읽었을뿐이니 단언할수는 없지만 듣는바에 의하면 그중에 통일주체의 작품이 별로 많은것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좀 섭섭하고 유감스러운 일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보다 앞서 무엇인가 생각에 잠기게 된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말하지만 나는 내가 그러한것을 한두편 썼다고 해서 이런 말을 하는것이 아니다. 나는 그런점에서 좀 유리한 립장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비전문가이며 늙은 신입대원인 나 자신을 포함한 우리의 위력한 소설부대앞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생각해보자는것이다.

민족분단은 민족최대의 비극이고 조국통일은 가장 절박한 민족의 지상과제다. 우리 당이 가장 힘을 기울이고있는것도 북반부의 사회주의건설과 함께 조국통일문제다. 이것이 우리 민족이 벌리고 있는 2대전선이다. 우리 당에 충실하고 현실에 민감한 작가들은 응당 이 두 전선의 전투에 온 민족과 함께 참가해야 할것이다. 그런데 력량이 너무 한전선에 치우쳐 있는것 같다. 물론 소설이 과거의 기록이라는 제약이 있을것이다. 그러나 1년후도 과거다. 10년이면 어지간히 큰 과거라고 말할수 있다.

원인과 이유가 있을것이다. 우선 생각되는것은 우리 작가들이 남조선의 실패를 잘 모르고 또 알기가 어렵다는 사정이다. 공장이나 농촌에 나가 그곳 생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사람들을 만나



고 자료를 조사하고 해서도 쓰기 힘든것이 소설이다. 하물며 장벽으로 분단되고 가리워진 남녘의 현실을 아무리 상상력이 비상한 작가들인데 어떻게 다 알수 있으며 어떻게 작품을 쓸수 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동맹과 창작사의 지도부가 작가들을 도와주어야 할것이다.

특히 고무적인것은 북남 작가들의 접촉과 호상협조정신의 발로다. 북남작가회담은 비록 남조선피도당의 탄압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 탄압을 비웃듯이 황석영이 날아와서 우리 작가들과 상봉회담하고 공동으로 민족문학을 건설할데 대하여 합의 결정했다. 앞으로 통일주체의 작품창작이 활발해지리라고 기대된다.

그러나 통일문제에 직접적으로 밀착된 주체의 작품만이 통일위업에 이바지하는것은 아닐것이다.

듣는바에 의하면 근간에 우리 근로자들의 사회주의건설투쟁을 그린 작품들이 남조선에서 출판되어 광범히 읽히고있다는데 이것은 통일운동의 일환으로 최근 남조선에서 급격히 양양되고있는 《북조선바로알기》운동과 그들의 요구에 우리 소설문학이 자기의 인식적기능으로 일정하게 대답하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통일문학의 주제범위를 그렇게 무한정 넓게 잡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수 있는데 나는 이에 대답할 자신이 없다. 다만 한가지 생각되는것은 북남작가들의 호상협조와 공동노력으로 건설할것을 다짐한 《민족문학》의 테두리안에 《통일문학》도 포함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다. 내 생각으로는 포함될것 같다. 그러나 또한 거기에 안심하지 말고 통일문제에 보다 밀착된 주체의 작품도 더 많이 창작해야 할것 같다.

10년이 아니다. 분단의 비극이 시작된것은 미

제침략군이 우리 강토의 남반부에 더러운 발길을 올려놓은 1945년부터이다. 분단의 슬픔은 해방의 기쁨과 동시에 왔던것이다. 그러니 거의 45년이다. 고통과 슬픔에 찬 45년, 그 분단의 비극을 끝장내기 위하여 95년을 기약하고 해내외 전체 우리 민족이 투쟁에 일어섰다. 문익환목사가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가서 중형을 구형받았다.

스물한살의 어린 녀대생이 사선을 넘고 지구를 돌아서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여 《전대협》의 기발을 평양의 하늘에 휘날렸고 조선은 하나이며 통일의 열망은 꺾을수 없는 민족과 력사의 의지라는것을 온 세계에 선포했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분단의 장벽을 허물며 자기를 기다리는 또하나의 엄혹한 장벽인 감옥을 향하여 걸어갔다. 소설문학은 통일후에 후대들에게 우리 세대들이 통일을 위해 어떻게 싸웠는가 하는것을 기록하여 알려줄 임무가 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그리고 그보다 앞서 통일을 위한 범민족전선에서 자기의 진지를 차지하고 싸워야 할 의무도 있는것이다.

그렇게 놓고볼 때 그리고 점령하여야 할 진지가 눈앞에 보이는 조건에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통일문학의 《보병부대》는 포복전진을 그만 끝내고 일어서서 돌격전으로 넘어갈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만약 그렇게 되면 다음해부터 시작되는 중장편소설창작전투에서는 풍요한 통일문학의 열매를 거두리라고 생각된다.

써놓고보니 《수기》인지 《잡기》인지 알수 없는 글이 되고말았다. 그러나 그 책임을 나혼자 지기는 좀 억울하다. 왜냐하면 이 글은 어느모로 보나 원래 내가 쓸것이 아닌데 분명 편집자의 착각으로 주소가 헛갈린 모양이기때문이다.

## 가사

# 호박의 노래

정구일

이국살이 수십년에 늙어갈수록  
가슴속엔 고향생각 짙어만가네  
쑥대발을 일구어서 발을 만들어  
조선포박 심어놓고 향수 달래네 향수 달래네

파란 싹이 돌아나서 덩굴을 뻗고  
호박잎이 싱싱하게 너울거리네  
꽃마디가 동글동글 맺혀질 때면

정성들여 가꾼 보람 간직한다네 간직한다네

북남호박 한발에다 갈라심어도  
호박순이 서로서로 손을 잡네  
애동호박 청동호박 탐스러울 때  
우리 나라 통일갈망 북받친다네 북받친다네

(필자는 총련중앙교육회 부회장임)

## 조국은 하나 외 1 편

동기춘

사람마다 하나인것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처럼 하나인것이  
또한 조국입니다

어머니는 돌일수 없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돌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 내 조국을 돌로 가르려고  
발악하는놈들이 있지 않습니까

피로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나의 어머니 나의 조국이  
허리에 감긴 쇠사슬이 아파서  
피눈물을 흘리고있습니다

세상 저주맛을 무리들  
미제가 그것을 했습니다  
남조선의 매국노들이  
그것을 하고있습니다

한가죽이 갈라지고  
한겨레가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갈라지고

아, 그때문에  
전쟁도 치른 내 나라  
통일만이 살길이어서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어서  
이 시각도 아까운 청춘들이  
통일제단에 한몸을 던지고 갑니다만  
그 명령들이 눈 못감고있는 오늘입니다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고  
겨레에겐 재난을 주고  
력사엔 수치만을 남기는  
이 비극의 반세기들 가까이하며  
어찌 조국의 아들이라 머리들겠습니까

속엔 흑심을 품고  
입말로만 통일을 외운자들을  
그 저주로운 이름을 똑똑히 찍어  
후손들에게 넘기고  
겨레여 우리 통일한 세대로 력사에 남자

아아, 갈라진 내 조국  
아파하는 어머니며  
결코 돌이 될수 없는  
하나여야 할 내 조국입니다

## 지구의를 청소하다가

지구의를 청소하다가  
세계의 대륙들을 닦다가  
밑에 맺히는 물방울을 흠치려는데  
거기에 더러운 미국이 있었다

언제나 불쾌한 그곳  
앉은 자리조차 우리와 정반대여서  
내게는 생각되었어라  
여기는 항상 밝은 땅인데  
거기는 늘 음울한 밤같이

밤이다, 마귀들의 밤세계  
거기 마천루들은  
지구의 종처럼 부풀어오르고  
끓고 뜬뜬해진 거기서  
불의의 세균이 부식되고있거니

《자유의 녀신》이 에이즈를 퍼뜨리고  
애완용개들이 마님들을 기쁘게 해주는 환락가  
월가의 똥똥보들이 려송연을 입귀에 물고  
세계지도우에 느침을 흘리는 그곳

오, 유성의 마지막 오물이  
집결된 소굴  
저주가 사무친 땅이여  
우리엔 백여년의 원한이 있고  
인류엔 세기의 증오가 있다

씻어내자  
더러운 마지막 쓰레기들을  
나는 기분 나쁘게 냄새나는 그곳  
아메리카의 오물을 걸레짝에 뭉그러  
지구밖에 내던졌다

# 어머니의 목소리

주광남

바다가마을에 밤은 깊어  
내 사색의 세계에 고요히 잠겨있을 때  
잠들지 않는 파도소리  
조용히 속삭여줍니다  
아이적에 들던 어머니의 그 목소리  
-애야, 그만하고 이젠 쉬려마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때로  
이르게 등불 끄고 잠자리에 누우면  
높이 울려오는 파도소리  
거기에도 실려옵니다  
숙제를 다 했느냐 걱정스레 묻던  
어릴적의 여전한 그 목소리  
-애야, 하루 일감 다 했느냐?고

밤 지새면 몸을 녀려하고  
일찍 누우면 일을 녀려하고  
그토록 애지중지 이 자식을 위하시던  
귀에 젖고 몸에 뻗 어머니의 목소리

울려왔습니다  
병사시절 땀흘리는 훈련길에선  
설레는 수림의 바람결 타고와  
힘을 내라고 일러주던 목소리

첫 쇠물 뿔고 돌아온 그날밤엔  
내 베개머리맡에서  
어릴 때처럼 이 손을 꼭 잡아주시며  
무슨 일이든 마음먹기탓이라고  
다정히 속삭이던 그 목소리

아 잊을수 없습니다  
고향집 찾아 나란히 누운 첫날밤  
밤새도록 옛말처럼 하시던 이야기  
추워오면 나다닐 옷 한벌 없어  
화로불 그러안고 겨울나던 일이며  
누덕누덕 기운 옷차림으로  
한겨울 나무하러 산으로 오르던 일  
세월지나 나도 잊은 그 일들을  
못잊어 외우시고 또 외우시던 말씀

-이제는 네가  
글짓는 중한 일을 다 말다니...  
나몰래 슬며시 눈곱 훔치며  
눈물에 젖던 그 목소리  
-이 에미야 고생밖에 시킨게 있느냐  
나라에서 키워줬으니 나라에 보답해라

아 자식을 위해주신 일들은 다 잊으셔도  
못다해준 그 마음은 한생토록 안으시고  
귀밑머리 희여진 이 아들에게  
조국의 은혜 더 뜨거이 새겨주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세상을 떠나가신 오늘까지도  
못잊어 이 아들을 보살핍니다  
밤지셀 땀 이몸을 녀려하시며  
일찍 누우면 내 할일 녀려하시며  
일깨워줍니다 나라에 보답하라고  
못들으면  
내 삶의 숨결도 식어질듯싶은  
아 어머니의 목소리!

## 저탄장에서

황승명

간밤에 높이도 쌓였구나  
밤새도록 내린 눈이  
산과 들을 뒤덮었어도  
저탄장의 석탄을 덮지 못하였네

하늘에선 평평 쏟아져내리는 눈  
땅에선 쉬임없이 솟구쳐오르는 탄

어디 한번 겨루어보아라  
누가 누구를 이기는가를

불붙는 돌이 뜨거워서라  
천길 땅속에서 탄을 안아올리는  
탄부들의 그 마음이 불보다 뜨거워  
내리는 눈도 감히 덧쌓이지 못하네

# 붉은기

김 규

지동치는 칼바람에  
박달나무도 태질하는데  
광휘로이 나뭇기는  
백두밀영 사령부의 붉은기

우리 수령님  
그렇게도 험한 길 헤치시며  
그리도 영광의 첫 대오를 무으시고  
그리도 장엄히 날려주신 붉은기

그때부터였으리  
혁명의 군기로  
수령님 따르는 영광의 기치로

하여 필승의 기치였던가  
엄혹하였던 로혹산 행군길에도  
중중첩첩 고난의 행군길에도  
장군님따라 신심도 드높이  
진두에 날리던 필승의 기치

이 기치 심장에 날리면  
두눈을 잃고도 승리의 앞날을 보았고  
단두대도 총칼도 맞받아나가며  
조국의 아들로 영생하나니

이 기치 격전장에 휘날리면  
그 어떤 강적도 공포에 떨고  
강토에 휘날리면  
온갖 꽃 만발하는 승리의 기치

가는 길  
시대와 세대를 넘어야 하기에  
가는 길  
탄탄한 대로가 아니기에  
이 기치 끝없이 귀중하나니

붉은기 너를 놓으면  
천길나락으로 구울고  
너를 굳게 쥐면  
사랑속에 영웅으로 빛나거니

아 찬란한 이 기치  
인류의 높은 뜻 붉게 어려  
영원히 넘겨주고 넘겨받을 붉은기

붉은기  
우리 수령님 안겨주신 강철의 신념이고  
우리 수령님 안겨주신 불굴의 의지여라  
붉은기 붉은기 혁명의 기치여

# 표창 외 2 편

김남걸

병사시절부터  
크고 작은 메달과 훈장  
조국이어 너는  
내 가슴에 주련이 달아주었다

귀밑머리 희여진 지금  
내 이따금 만져본다  
은금빛 뿌리는  
이 가슴에 아릅찬 훈장을

이런 때면  
조국이어 나를 믿어준 그만큼  
내 또 바라는것 있나니  
누구에게도 아니고  
오직 나에게만 주는 아릅찬것을!

심장을 내대야 하는  
조국의 어려움앞에  
나를 먼저 불러 세워주는 그 하나면  
가장 큰 표창으로 나는 만족하리

## 량심에 묻노니

량심에 묻노니  
벗의 불행을  
내가  
대신할수 있는가

량심에 묻노니  
내가  
동지들을 위해  
목숨도 바칠수 있는가

때때로  
이 물음앞에

나의 량심이여  
너의 대답 듣고싶다  
  
듣고싶다 듣고싶다  
너의 대답  
순간이라도  
그 물음앞에 머뭇거린다면  
  
량심이여  
그러면  
나의 생  
한줌 먼지보다 못하리

## 어머니

어린 시절  
나를 작은 요람에 태우고  
밤이면  
하늘의 수억만 별들을 흔들어주시던  
나의 어머니

그런날  
요람가에서 부르신  
어머님의 노래는 가사도 없으셨습니다  
곡도 자유로이  
어머님 지으셔 부르셨습니다

꿈을 주시려고  
하늘을 흔들어주셨습니다  
내 한생 길을 그 자옥들 짊어보신 마음  
가사없는 노래에 담으셨습니다

한생  
자식에게 바치신 어머니 사랑  
그 사랑 물이라면  
대양인들 비기겠습니까  
그 사랑 하늘이라면  
나에겐 하늘도 작아뵈입니다  
  
그 사랑앞에선  
노호하던 바다도 숨을 죽이고  
터지던 화산도 눈을 감고  
번개의 불칼도 무색해집니다  
  
그러시던 어머니 내곁에 없습시다  
하나 그 사랑 더해주는  
어머니가 내곁에 있습니다  
어머니당이 나를 안고있습니다

## 청춘들의 주소

강인철

저 멀리 조국의 서해안엔 말그대로 이름없는 무명섬, 인적없는 무인도, 보기조차 낯설은 돌섬, 곰섬, 가마섬, 사자섬 등 무려 수천개의 크고작은 섬들이 있다. 어제날 이 섬들은 몰사람들의 발길, 손길 한번 닿아보지 못한 불모의 섬이었다.

하지만 오늘 로동당시대에 와서는 이름도 없던 그 지점들이 태고의 천년잠에서 깨어나 뿔뿔한 자기의 주인을 가지고있는것이다.

나는 얼마전 우리 당이 제시한 30만정보 간석지개간을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장도 간석지의 청년건설자들을 찾아간적이 있었다.

장도간석지에서는 7개의 섬들을 련결하여 2,600정보의 큰 땅을 얻어내는 방대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있었다.

날바다를 꿰질러간 제방길을 따라 물에서 20리나 떨어진 가마섬에 이른 나는 한동안 자기를 의심하였다.

절반이나 몽청 잘리운 섬의 좌측 평퍼짐한 산중턱에 《-》자로 촘촘히 지어놓은 스무동남짓한 집들이 불쑥 나타났던것이다.

(인적없던 이 돌섬에 이런 희한한 집들이 언제 생겼을가?...)

마치 어느 도시주변의 주택지구를 방불케 했다.

후에 알고보니 돌섬의 이 《변화한 집》들은 며칠전 묘도섬에서 이동해온 청년건설자들의 림시합숙이었다.

네모반듯한 트렁크며 색날은 배낭을 하나씩 지고 저마끔 분주하게 호실을 찾아들어가는 젊은이들,

하얗게 칠한 회벽이며 갓 세운듯한 나무굴뚝을 보니 새집들이하는것 같았다.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첫호동 세번째줄 합숙앞에 이끌렸다. 해말썩한 조가비로 뜨락을 구획짓는 처녀들과 방안에서 짐작들을 정돈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정겹게 안겨왔다.

이때였다.

빨간 머리수건을 쓴 처녀가 바람처럼 쉿하니 달려오더니 무슨 나무패쪽같은것을 쑥 내밀며 《자, 빨리 쓰라요.》 하고는 다음 호동으로 옮겨갔다.

처녀가 주고간 패쪽을 중심으로 일시에 둥그렇게 모여선 젊은이들은 무슨 창안이라도 하듯 웅성대었다.

《어서 쓰게나.》 누구인가가 보통키의 오담찬 청

년에게 붓을 내밀었다. 동무들의 눈길을 일별하며 천천히 붓대를 잡은 청년은 미끈하게 다듬어 짙은 문패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순간 모두는 숨죽은듯 그 글발에 시선을 모았다. 서투나 박력있는 필치로 한자 또 한자 써여지는 글발!

그들은 《1-3-2》라고 써여진 나무표식판을 바라보며 일제히 《야!》 하고 탄성을 올렸다.

키 큰 한 친구가 그 문패를 받아쥐고 《오, 세번째로 옮겨오는 사랑하는 나의 집, 이 박두성이네 문패여》라고 희떠웁게 읊조린다.

그러자 분대장동무가 《자 소뿔은 단김에 뿔으랬다구 우리가마섬의 첫 생활의 서곡을 울려보세나!》하더니 손망치를 들고 문패를 호실문우에 갖다대었다.

동무들을 돌아보는 느슨한 그의 미소속엔 자못 엄숙한 빛도 섞여있었다.

드디어 《딱-딱-딱》 못박히는 소리, 그 소리를 듣는 얼굴빛들도 엄엄하고 진중하듯싶다.

마치 경이적인 사변이 도래한듯...

아마 이런 순간의 감정을 체험한다는것은 쉽지 않을것이다. 이것은 어디서나 감득할수 없는, 바다의 정복자들이 땀흘린 노력의 대가로서만 느끼는 더없는 보람과 긍지의 정화이기때문이라...

그때 바다쪽 채석장부두에서 선원인듯한 한 청년이 달려오더니 《문혁이, 자네 또 색시를 올게 할게 아니야. 새우섬에 옮겨올 때 자네 색신 물에서 이틀을 헤맸다지, 그리구 이 변화무쌍한 섬 이동때문에 오해까지 있었다면서?! 하하...》 하며 얼굴이 너부죽한 청년에게 웃음섞인 톡조로 말하였다.

《체, 이 강문혁이가 보고파서라도 백리건 천리건 섬을 찾아올거네.》

《속에 없는 소리, 저 친구 아마 오늘저녁에 편지 쓰지 않고는 못배길거네. 동무들, 엉큼한 이 친구가 선손쓰기전에 공동명의로 긴급전보를 침시다. 〈주소는 팍산군 천태리 가마섬 1호동 3렬 2호실로 바뀜〉 이라고 말일세!》 분대장의 말에 호응하듯 모두가 환성을 지르는데 빨간 머리수건을 쓴 처녀가 바다쪽을 향해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야- 어느 도시의 주소보다 더 요란해보이는데요.》

아, 어찌 그 처녀의 심정만이라.

그들모두의 웅심깊은 눈빛들은 하나같이 방금

셀물이 지는 바다우로, 희끗희끗한 젖빛안개속의  
일망무제한 수평선으로 향하고있었다.

《이제 저 앞의 무인도를 다 련결하면 우리가  
선 이 합숙자리는 온데간데 없어지겠지요?》 빨간  
머리수건을 쓴 처녀의 말이였다.

그러나 누구하나 응답이 없었다. 아니 그들모  
두의 심장들은 강렬히 반응하고있었다.

자취마저 없어질 이 섬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  
라 이제 새롭게 생겨날 주택마을이며 층높은 학  
교, 유치원, 금물결 일렁이는 협동전야...

그들은 현실로 펼쳐질 이 모든 새 생활에 대하  
여 환희와 흥분속에 그려보는것이였다.

《1-3-2》호실문패우에 쓰여진 소박한 이 표적-  
이것은 청년건설자들이 안고사는 새 간석지땅의  
행정도이며 어머니조국에 알리는 바다의 정복자  
들의 위치가 아닌가.

휘황한 미래를 하루빨리 앞당겨올 이들의 불타  
는 심장속 깊은곳에는 소박한 배낭과 트렁크만  
들어있는 이 합숙호실이 넓고아늑한 살림집처럼,  
매 호동들은 무수한 인민반구획처럼, 이 가마섬  
은 변화한 읍소재지처럼 자리잡고있는것이다.

횡포무도한 날바다와 싸우며 그 옛날 밀물과

셀물에 부대끼던 서해안의 무수한 섬들을 물과  
이어 놓으며 기름진 풍년옥답을 마련해가는 청년  
건설자들.

이들은 이 돌섬의 주인만이 아니라 저 멀리 주  
소 없는 태고의 바다속, 억년묵은 대지의 출생을  
책임진 호주들이며 그 개간지에 황금벼바다를  
안아 올 주인들인것이다.

그렇다. 물설고 외진 섬사람이 아니라 꽃피는  
삶이 약동하는 물사람이 된 심정에서 이들은 살  
고 있다. 이들은 바다사람이 아니라 조국의 지도  
우에 뚜렷한 지명으로 표시된 료지사람으로 나의  
가슴에 새겨진 대자연개조의 미더운 선구자들이  
다.

주소! 섬기슭의 합숙들을 바다우의 변화한 도  
시로, 시시각각 달음쳐오는 거창한 생활과 행복  
의 거주지로 안고사는 청년건설자들의 주소!

나는 이날밤 취재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후날 없어진 돌섬에 들어앉을 새 간석지마  
에서 집문패를 달 첫 주인들이여, 그대들의 주소  
가 세상에 공포되는 날 부디 잊지 마시라. 그대  
들보다 먼저 그 주소를 새겨본 사람들이 있었다  
는것을!...》

## 소녀에게

성만실

영웅묘

하얀 대리석 상돌우에

소녀는

들꽃으로 엮은 작은 꽃다발을 얹는다

소녀는 아홉살

집은 멀다

아마도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

들길에서 한송이 두송이 꺾어왔으리

소녀는 보았다

명절날 아침이면 군복입은 아버지들이

꽃묶음을 안고 서둘러

대리석층계를 묵묵히 오르는것을-

언젠가

영웅묘의 오각별을

고사리같은 손으로 정히 닦으며

어서 커서 영웅이 되겠다고

엄마앞에 다짐했다는 소녀

아직은 모르리

금별을 가슴에 한번 달아보지도 못하고

기다리는 고향집뜨락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한

평범하지 않는 삶의 그 준엄한 의미를

하지만 레사로운 보통날

대리석 상돌우에 놓이던 작은 꽃다발

오각별을 닦던 고운 손

그 맑은 얼굴을

먼후날 수도의 영웅관에서 보게 될는지

누 알라

오, 소녀야 내 바라노니

목숨건 싸움이 없는 평화로운 날이라고

영웅이 없으랴

현현히 생을 바친 이 사람들처럼

너 빛나게 살기를,

아동단원 금순이도 지금의 네 나이가 아니냐!

# 잘 가라, 승리의 해여

리광선

이해도 저물어 눈이 내리니  
마음속에 아쉬운 생각  
못잊을 사람을 보내는 마음처럼  
끝없는 추억속에 정깊은 해여

80년대를 빛나게 장식한  
뜻깊은 마지막해  
생각해보면 얼마나  
보람찼던가  
높고 낮은 조국의 산발마다에서  
불멸의 구호나무들이 발굴되어  
온 나라를 더 기쁘게 해준 날과 날

돌이켜보면 얼마나  
가슴벅찬가  
반제련대성,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모여왔던  
세계청년학생들의 목소리 아직도 쟁쟁하고  
《조선은 하나다!》의 구호를 웨치며  
백두에서 떠나던 국제평화대행진의 발걸음소리  
가슴마다 통일의 열망으로 끓게 한 나날이여

마지막 이해의 언덕우에서  
눈앞에 화면처럼 흐르는 날과 날을 더듬으니  
바라보이누나  
이 땅에 숲처럼 일떠선 철의 지붕이며  
대화학기지  
하늘가에 나래펼친 추녀아래  
밝게 웃음 어린 창문들이  
더 큰 행복을 부르는듯  
보여와라

세차게 타오르는 주체의 화불이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의 신념과 의지를 안고  
영원히 가고갈 행군길우에  
또다시 펼쳐지는 그 기치가

아, 조국이여  
영광스러운 나의 조국이여  
그대의 품에서는  
이 땅에 흐르는 세월이  
이렇듯 크나큰 영광과 행복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니

어디에서 오는것이냐  
세월의 년륜속에  
덧쌓이는 영광과 긍지가  
가는 세월이 오는 세월에  
넘겨주고 안겨주는  
희망과 신심은

정녕 발걸음도 창조도  
우리 식으로 이끄는  
위대한 승리의 기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가리키시는  
그 길따라 가고 오는 세월이기때문이 아니냐

잘 가라, 1989년이여  
세월은 흘러가도  
세기와 더불어 인류의 가슴속에  
영원할 위대한 해여  
승리의 해여!